

4

주체103(2014)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4호

(루계 제798호)

《김일성동지의 환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경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환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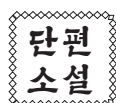
김 정 은

차 례

만경봉에서 부르는 태양의 노래(송가)	문 동 식(4)
이 땅에 주체년호가 흐른다(시)	리 명 근(5)
4월의 봄날이야기(시)	오 동 규(5)
자장가소리(시)	홍 성 두(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청춘길 이별이 오니(시)	황 명 성(7)
단편소설 고향의 미소	김 하 늘(8)
주체문학의 대강	(19)
민족의 아버지(시)	리 호 근(20)
만찬회때 있던 일(혁명일화)	(20)
만경대고향집앞에서	원 영 목(21)
{ 영원한 삶의 품(가사)	김 용 엽(21)
시 가슴저킨 10년	홍 민 식(22)
{ 하늘땅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이여	리 계 심(22)
《단풍》호 너를 따라	함 영 주(23)
힘의 철리속에 밝힌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인간학적해명(평론)	강 철 국(33)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
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
니다.》

김 정 은



부시쌈지 김 도 환(24)

밝은 웃음 리 기 창(37)

새날이 밝는다(과학환상소설) 신 승 구(63)

높은 봉우리로(실화문학) 홍 남 수(53)

탄전이여 앞으로!(수필) 송 혜 경(51)

생일날(단막희곡) 고 철 만(74)

◇ 시, 가사 ◇

철령아래 사과꽃바다여! 방 금 석(36)

우리의 고운 꿈(가사) 김 령(32)

사랑의 미소 김 명 옥(47)

과학에 대한 생각 외 1편 한 동 선(48)

조국이여 이 대지를 받으시라(시초) 김 충 기, 함 영 근(49)

풍요한 가을을 향해간다 최 명 길(52)

거부기바위(전설) 옥 성 일(73)

송 가

만경봉에서 부르는 태양의 노래

문 동 식

태양이 솟아 빛나는 만경봉
여기서 누리를 굽어보면
푸르려 설레이는 조국강산에
따사로운 봄빛이 넘치옵니다
온갖 꽃들의 그윽한 향기
가슴에 흘러들어 목메입니다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
설한풍을 녹여주신 봄빛이어서
눈비속에 피워주신 꽃향기여서
안을수록 감사의 분화가 열리고
흙모의 열화는 솟구쳐오릅니다

이른새벽 해지는 저물녘
때로는 깊어가는 한밤에도
만경봉 여기에 오르시여
설움에 젖은 강토를 한몸에 안으시고
해방의 큰뜻을 키우시던 수령님

만경봉
여기서 바라보신 조국의 푸른 하늘
여기서 간직하신 아름다운 아침노을...
그것을
불타는 사랑과 무적의 힘으로
그것을
조선의 창창한 미래로 품으시고

10대의 어린신 그 시절
초가집 사립문을 나서신 그 걸음
한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고있는
애국 애족 애민의 열과 빛을
주체의 화불로 높이 추켜드리고

눈보라 굽주림 가렬한 전투...
자욱자욱 헤쳐가신 피바다 불바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새겨가셨습니다
인류가 걸어 못 본 초행길에
력사가 알지 못한 불멸의 자욱자욱

포악한 일제의 백만대적도
기가 꺾이여 광야에 허우적거리었고
그이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앞에
략탈과 살육의 살풍은 불타고
망국의 얼음장은 썩-썩- 부서지고

드디어 수수천년세월
암흑속에 풀잎처럼 묻히우던
그 인민 떨쳐나와 환호성을 터치는
주체의 새시대 이만위천 별천지가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순간순간마다
사선을 헤치신 수령님의 발자취따라
날과 날을
백승으로 이끄시던 불멸의 령도로
해와 달을 이어
세계의 하늘가에
이리도 높이 솟아오른 만경봉

오, 만경봉 만경봉은
사랑과 인덕의 최고화신 절세의 위인을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모신
그 존엄 그 영광 빛나는 봉우리

경애하는 김정온원수님 계시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
그이의 인력에 이 세상 만민은
오늘도 만경봉 여기로 달려와
천추만대에 그이를
인류의 태양으로 더 높이 모셔갈
흙모와 축원의 열망을 아뢰이노니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이시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신
주체의 태양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여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월의 끝까지 봄빛을 뿌리시며
천만년 길이길이 영생하시라



이 땅에 주체년호가 흐른다

리 명 근

이 땅
내 조국에
주체년호가 흐른다
한해 또 한해...
위대한 주체의 세월이 흐른다

1912년의 찬란한 해돋이와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된 주체년호
그 나날과 더불어
이 땅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솟구치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었던가

조국의 큰결음을 떠시고
한해 또 한해 새겨진 주체년호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인듯
찬연히 빛나는 주체년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힘을 펼쳐온 우리 인민
주체로 강해진 발걸음은
세계앞에 도도히 굽이쳤다
자주로 존엄을 시위하고
자위로 자신을 지키며
자립의 강국을 일떠세웠어라

우리 걸은 날들엔
어려움도 없지 않았더라
피눈물을 씹어삼킨 고난도 있었고

넘기 어려운 강행군도 있었다
하나 우리의 주체년호는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간
비약과 변혁의 세월로 흘렀다
언제나 승리와 승리로
자랑찬 주체년호를 이어왔다

주체사상의 영원한 빛발로 새겨지고
주체사상탑의 화불을 싣고 흐르는
불멸의 주체년호
내 조국의 숨결이 되어
주체의 새 력사가 되어
세월을 넘어 굽이치는 주체년호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말해주며
어제와 오늘과 래일을
영원한 하나로 이어준 주체년호여

주체년호와 더불어 내 조국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김정은시대를 온 세상에 펼쳐가거니
오, 주체1년... 주체100년... 주체1000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주체년호가 흐른다
위대한 주체의 세월이 흐른다!

4월의 봄날이야기

오 동 규

4월의 봄날 이른아침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아버이수령님께서
공장앞을 지나며 보시었네

출근길에 오른
로동자들 앞으로
기적소리 울리며 달려오는 렬차
바쁜 걸음 멈추고 기다리는 로동자들

그 모습 바라보신 아버지수령님
한 일군에게 말씀하시었네

로동자들이 저렇게 철길을 건너다니는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길을 잘 뚫아주자고

며칠후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던 수령님
그 일군에게 다시 물으시었네
철길건능길을 어떻게 뚫자고 했는가

일군이 울린
설계도면을 보여주시던
아버이수령님

안색을 흐리시었네

—지하건늬길을 내게 되면

로동자들의 머리우로

기차가 다니게 될게 아니겠소?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로동자들의 머리우로

기차가 다니게 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차우로 다니게 다리를 놓아주자고

하여 철길건늬길에는 보기도 시원한

립체다리가 새로 일떠서고

렬차는 다리밑을 지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복받은 로동자들을 축복해주고

로동자들은 다리우에서

렬차를 향해 손저어 반겨주는

건늬길의 새 풍경이 펼쳐졌네

하늘이 밝게 열리고

강산엔 온갖 꽃들 다투어 향기풍기던

그날의 이야기는

4월의 봄날에 있는 이야기

오늘도 우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전설 뜨겁게 전해주는

못 잊을 그날의 이야기로

수령님사랑 가득차넘치는

아, 이 땅이 나의 조국이라네

자 장 가 소 리

홍 성 두

그 누가 잊을수 있으랴

귀한 자식 애지중지 품에 안아키울적에

사랑을 담아 소원을 담아

잠 못들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

지금은 저 멀리

세월의 물결우에 실려간 자장가소리...

마치도 아득한 꿈결인양

가슴속에 못 잊을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자장가가 울려오는가

여기 물맑은 합수천기슭에 서니

들려오는구나

전사들의 휴양소를 찾아주신 수령님

물소리 좋아 잠이 저절로 오겠다고

자애에 넘쳐 하시던 말씀

이 좋은 물소리 변함없이 울리라고

내가에 언제 쌀을 위치도 몸소 정해주신

그 사랑 못 잊어 그 사랑 전하며

정답게 울리는 물소리 물소리

어린시절 머리맡을 지켜주던 어머니자장가소리

내 오늘 다시 듣는듯

밤이면 물소리에 잠이 들고

아침이면 물소리 들으며 잠을 깨나니

초소지켜 잠 못들던 전사들을 품안아

포근한 꿈나라로 불러주는

합수천의 정다운 물소리여

그 소리에 가슴 젖으며

에서 장수힘 키우고 떠나간 전사들

포화의 락동강에 결전의 1211고지에

위훈의 큰 자옥 새기였나니

오오, 물소리 물소리

못 잊을 그날의 사연 담아시고

세월의 끝까지 울려갈 물소리

전사들의 자애로운 원수님 계시여

수령님의 그 사랑 영원하다고

이 가슴에 끝없이 속삭여주는듯...

너는 노래로구나

천만어머니사랑 합쳐도 비기지 못할

한없는 자애로움과 은혜로움으로

우리 요람 지켜주고 위훈의 꿈 지켜주는

아버이 그 사랑의 노래

아버이 그 사랑의 자장가

바로 너로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1932년 4월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심사와 함께 유격대결성식 날자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릉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건군절 이 날이 오니

황 명 성

뜻깊은 명절이다
4월 25일
온 나라 인민 기쁨속에 맞는
건군절아침

의례히 나도 이날이 오면
훈장메달 번쩍이는 군복을 펼쳐입고
아빠트의 현관문을 나서는 마음
이해따라 왜 이다지도 감회가 깊은거나

멀리 흘러온 세월너머
내 다시 병사시절로 되돌아가는듯
가슴을 휘젓는 군기의 펄럭임소리
뜨겁게 눈앞에 어려오는구나
정렬한 대오앞에 빨찌산출신의 옛 상관의 모습

오늘도 승엄히 나를 불러
봄빛질은 안도의 푸른 숲에 세워주는것 아니나
청년장군 김대장 따라
조선의 첫 무장대오가 출발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잊지 말라고

영광의 그 대오에 서서
나는 본다
혁명의 사령관 우리 수령님 그어주신
붉은 화살표 진격의 그 길우에
위훈을 펼치는 철의 흐름 강철의 대오

준엄한 전화의 날 그 대오속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심장으로 부르며

락동강도하전투장에서 장렬히 희생된
중기사수 나의 아버지도 있다

이 땅에 년년이 해와 달이 흘러도
세월의 락엽속에 묻힐수 없는
불굴의 모습 영웅의 산아들
그네들이 불타는 뱃으로 생명으로 넘겨준
식지 않은 총대를 거머쥐고
우리의 동갑들도 조국수호의 길을 걷지 않았더나

성스러워라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 혁명의 유산으로 물려준
백두산총대로 승리에서 승리로 그 한길만을
걸어온
위대한 주체의 선군위업

그 위업을 받들어
또 한분의 천출명장 김정원수님
대원수님들을 닮은 백두의 슬기와 지략으로
제국주의명줄을 한손에 휘여잡고 쥐락펴락
선군의 보검으로 복잡다단한 세계를 평정하고
이끄시는구나

아, 건군절 이날이 오니
백두산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위대한 선군으로 최후승리를 펼치실
오직 한분 그이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
천년만년 끄떡없는 백두의 산악처럼 억세여지노라!



고향의 비소

김 하 늘
그림 김 광 석

1

초저녁부터 내리던 봄비는 새벽에 진눈으로 변했다. 초봄이라면 몰라도 4월도 중순이 지난 때에 이런 일은 폐년에 없던 현상이었다.

집무실에 들어서던 책임서기는 전화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무춤 멈춰섰다. 지난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수령님께서도 밤늦게까지 관계부문 일꾼들에게 일일이 알아보시며 농사에 영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게 하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일요일 이른새벽에 금수산의사당(당시) 집무실에 나오시었던 것이다. 나오시는 길로 전화로 농업위원회(당시) 책임일꾼을 찾으시었다.

《…마음을 놓으라구? 간밤 추위에 내리던 비가 눈이 됐는데두 농사를 책임진 동무네가 직접 나가보지 않구, 영? 전화지시나 내리프리구 보고 올라오는거나 앉아서 기다리구있는데 내가 뭘 믿구 마음을 놓겠나?》

수령님께서도 몹시 언짢으시어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책임서기가 조심히 드리는 더운 물고뿌를 받아드신 수령님께서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시어 텃불이시었다.

《일하는 본새들을 보면 그저 내리내리 전화질만 한단 말이요.》

더운물을 한모금 드시며 마음을 가라앉히신 수령님께서도 잘못을 범한 당사자이기라도 하듯 집

무탁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책임서기를 건너다보시었다.

《아무래도 내가 좀 나가봐야겠소. 산간지대나 중간지대 농촌들은 드문히 이런걸 겪으니 마련들이 있겠지만 황해도별방이 마음 안 놓여. 원래 그 쪽은 지금 팽상모판씨뿌리기 끝낸지두 한참 됐겠다, 논뿐이고 밭은 얼마 없으니 모내기 들어갈 때까지 모판관리나 하면서 허리쉽할 때거던. 그러다 말겠거니 하구 앉아있다가 눈벼락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당장 떠나시려는듯 몸을 일으키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도 허리가 뜨끔하여 《음—》하고 신음소리를 내시며 움직이지 못하시었다. 한해, 두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말썽을 부리곤 한다. 회의를 지도하시다가도 허리가 뜨끔거리서 일어나 천천히 거니시든가 의자뒤에 서시어 등받이를 짚고 말씀하시는 때가 드문했다.

책임서기는 황황히 다가와 수령님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혀드렸다.

《어제 밤에 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인차 개이겠다구. 그리구 기온도 3도나 더 올라가서 해 뜰 다음부터는 날씨가 한결 따뜻해진다는데…》

수령님께서도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봄비는 한번씩 내릴 때마다 날씨가 더워지고 가을비는 내릴 때마다 추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늘 봄비가 내리면 농사일에 농장부릴가봐 신칙하시고 가을비가 내리면 인민들 겨울나이준비를 독촉하곤

하시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시였다.

《허리를 좀 두드려주겠나?》

웃음을 지으며 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풀어진 책임서기는 가까이 다가서며 말씀드렸다.

《일요일만이라도 휴식을 꼭꼭 하셔야 한다는 정칙국결정을 지키지 않으시니 이러지 않습니까.》

《허! 그러니 이 허리가 뜨끔거릴 때마다 회의에서 비판받는걸루 생각해야겠구만그래?》

《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휴식을 꼭꼭 하시면...》

수령님께서서는 어깨를 들썩이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사람두, 동문 한술 더 뜨는군.》

자리에서 일어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보시였다.

《음— 이젠 됐어. 그럼 우리 휴식하러 갈까?》

책임서기는 반색했다.

《정말입니까? 댁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내저으시였다.

《아니, 아니. 일하러 나왔다가 전화나 한통하구 집에 들어가겠나? 농민들을 만나러 가잔 말이요. 내겐 그게 제일 큰 휴식이라는걸 알면서두 그러누만.》

《수령님—》

《동문 내가 어딜 움직이겠다면 노상 울상이야, 왜? 따라다니기가 힘들어?》

《그게 아닙니다. 수령님, 계속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일없소. 난 건강해.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지. 근간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게 문제인데 수술하면 인차 나을거라구 하지 않나. 아직 10년 아니, 20년은 더 혁명을 할수 있소!》

이렇게 되면 수령님을 더 만류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책임서기는 농업부문 책임일군들에 대한 야속감이 불쑥 치밀었다. 지난밤 수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줄 알았으면 그 길로 농촌들에 달려나가 현장에서 작전하고 지휘했어야 할 것이다. 80평생 쌓인 로고 푸시라고 말로만 아뢰이고 실천은 따라서지 못하는 일군들...

아니, 아니다. 누구를 욕할것도 못된다.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있는 나는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지난밤중으로 한두개 농장이라도 돌아보고와서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으실수 있는 보고를 드렸더라면...

《수령님, 구실을 못하는 저희들때문에...》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따뜻이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됐소, 됐소. 인민들이 나를 보구 아버지라구 하는데 비가 오구 눈이 오면 아버이가 자식들 걱정하는거야 당연하지. 일요일인데 소란을 피우지 말구 우리 조용히 갔다오자구.》

수령님께서서는 돌아서시여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더듬으시였다.

《연안, 배천은 바다바람때문에 이 철에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가 드문하니 아마 대책이 있었을거요. 안침한 나무리벌이 걱정돼. 사달은 늘 편안한데서 나거던.》

승용차루 한시간 좀 더 걸리는데니까 아침밥은 주먹밥이나 몇개 싸가지구 가다가 좋은 샘터를 만나면 들바람을 쏘이면서 먹는게 어떻소?》

《수령님...》

《뭘 또? 어서 그렇게 하자구.》

두눈을 습벅거리며 돌아서는 책임서기에게 수령님께서서는 각근히 이르시였다.

《밥쌀 때 그걸 빠뜨리지 말라구.》

건뎡이것을 이르시는 말씀이였다.

책임서기가 문을 닫고 나가자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입맛이라는게 참, 소시적에 맞들인 음식을 나이 들수록 더 찾는게 이상하거던. 건뎡이것이라...)

몽클한 정회가 가슴가득 치밀어올라 수령님께서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어린시절 생일날이면 건뎡이것에 닭알 한알을 풀어 작은 보시기에 따로 쪼주시던 리보익할머님,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광막한 밀림의 밤에 유난히도 밝은 달을 바라볼 때마다 사무치게 떠오르곤 하던 고향 만경대, 어린시절의 그 별식은 가문의 장손에 대한 할머님의 각별한 사랑이였고 고향집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이였다. ...

수령님께서서는 사실 이번 일요일에는 오래간만에 만경대에 가보려고 생각하시였다. 추억깊은 고향집의 프락을 거니시며 민족의 운명과 함께 흘러간 애국가문의 력사, 파란많은 20세기와 더불어 흘러간 자신의 80여평생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회깊이 더듬어보고싶으시였다. 두해전부터 한편, 두권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회고록이 이제는 항일혁명편을 마감할수 있게 집필요목을 다 작성하고보니 잊지 못할 혈육들과 동지들에 대한 가슴미여져오는 그리움과 목메인 회억이 그이를 못 견디게 고향집으로 끌어당겼던것이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다려오셨다. 그

런데...

(할수 없지, 다음 일요일로 미룰수밖에.)

2

아침해가 퍼진지 퍼그나 되어 봄날의 해별이 내리쬐이는 날씨는 무척 따듯했다. 물기가 폭 배인 대지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씻은듯 맑은 대기는 온갖 꽃들과 잎새들이 피어나는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찼다. 화창한 봄을 노래하는 새들의 우짇음소리도 한결 청아해졌다.

오래간만에 맛보는 고향의 향취, 열차에서 내린 도농촌경리위원회 부원 황순철은 고향마을 답촌이 가까와오자 점점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고보니 자기가 고향을 뜬지도 17년이 된다. 중학교졸업반때 농장기사를 하던 아버지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조동되어 고향을 땀고 그다음엔 군사복무, 대학... 그사이 아버지가 도급기관으로 조동되어 대학을 졸업한 순철은 도소재지에 있는 련결농기계공장에서 현실체험을 마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에 배치받았다. 순철은 군사복무기간 해주시내의 부모들이 사는 집보다도 고향 답촌을 더 그리곤 하였다.

고향이란 자기처럼 떠난 사람에게는 추억의 땅인 모양이다. 유년의 꿈을 간직해온 동산에 대한 유정한 추억. 더우기 거기에는 정림이가 있다. 앞뒤 집에서 살면서 자기를 친오빠처럼 졸졸 따르던 정림이. 순철에게서 고향 답촌은 어린시절의 추억과 함께 싱싱한 처녀로 자라난 정림의 모습이기도 했다. 무연한 들판처럼 성미가 무척 개방적인 정림은 일손 또한 절싸서 스무살에 벌써 분조장이 되었다. 분조장이 되어 3년이나 련속 벼를 정당 열톤을 내어 몇년전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도당확대전원회의에서 경험토론까지 하였다. 그후 작업반장이 되어 작업반의 모든 분조들을 열톤분조로 만들었고 얼마전에는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아마 지금 좁은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을 열톤작업반으로 만들려고 분주히 뛰고있을것이다.

순철은 지난해 드바쁜 영농전투가 시작될 때 비료점수차로 도에 올라온 정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것이 생각났다.

...《어때요? 도급기관 부원생활이 재미있나요?》

《글쎄 뭐라구 할가? 이렇든 저렇든 농사야 농사지. 영농공정마다 들볶으며 지나가는건 우리도 같소. 농사차비, 씨불임,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

이, 탈곡... 정신없이 뛰다나면 한해가 언뜻 지나가고 그러면 또 같은 공정들이 반복되고. 농장두 같지? 해마다 같은 영농공정,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건.》

정림은 고개를 가웃하고서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히 하다가 살레살레 저었다.

《난 그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하는 일은 늘 같아보여두 아니, 달라요. 가을을 맞고보면 정말 흐뭇할 때두 있고 아쉬울 때두 있거던요. 기쁠 때는 이 멧에 농사를 하는구나, 새해엔 더 잘해보자 하고 달라붙구 아쉬울 때는 다음해엔 꼭 봉창하리라는 강심으로 또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은 영농공정이라두 해마다 잡도리가 다르고 노력도 달라요.》

정림은 잠시 말을 끊고 눈길을 들어 수양산봉우리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향 답촌이 있는 나무리벌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린 모든걸 가을에 걸구 살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거뒀들이는 가을은 그만큼 더 흐뭇할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난 세상에 가을이 없다면 농민도 없을거라구 생각해요.》...

그때 순철은 아무 말도 못했었다. 농민의 인생철학이라고 할가, 다년간의 농사일이 심어준 농사군처녀의 인생관일것이다. 그런 인생관을 간직하고 사는 정림이가 어쩐지 아득하게 울려다보였다.

이제는 세월이 펴 흘렀지만 분조장이 되어 첫째 농사에서 정당 열톤을 확고히 내다보는 작황을 마련했을 때 정림은 알차게 여문 벼이삭 하나를 잘라서 편지봉투속에 넣어 군사복무를 하는 순철에게 보낸적이 있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여 곱다고 내 머리를 쓸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 우리 분조포전에서 모두 정당 열톤이 나게 됐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요? 그날처럼 이 논벌에 오시여 벼이삭들을 대견하게 쓸어주신다면...》

군인생활의 관습대로 분대장이 편지를 독보하고 나서 말했다.

《훌륭한 처녀요. 우리 모표의 붉은 별도 이런 벼이삭이 감싸고있지 않소.》

그 말에 온 분대가 그 벼이삭과 군모의 모표를 소중히 살펴보았다...

어릴적부터 친남매처럼 맺어진 정은 흐르는 세월속에 어느덧 이성의 감정으로 조용히 싹터났다. 달리는 될수 없는 자기들사이라고 여겨왔지만 정작 결혼이라는 문턱앞에서는 누구도 먼저 말을 떼지 못하였다. 순철이 현실체험을 끝마치고 도농촌경리

위원회로 배치받았을 때 답촌마을의 작업반장이었던 정림이가 물었다.

《우리 답촌생각을 하군 하나요?》

《물론이지. 고향이니까.》

《암만 고향이라두 답촌엔 오빠네 집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배나무집할머닌 점점 더 몸이 불편해 하면서두 딸있는데로 가지 않고 그냥 놀러계세요. 남아있는 혈불이가 있어야 나간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않는대요.》

《맞아, 고향엔 그리운 사람이 있어야 돼. 나한테 정림이가 있지 않나.》

《음— 싱겁게두.》 정림은 어리광부리듯 몸을 뒤틀다가 장난기가 가득 담긴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러니 내가 답촌에 남아있어야 오빠가 고향을 잊지 않겠군요. 그렇지요?》

두눈은 새물새물 웃고있었지만 자기가 바라는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은 감출수 없었다. 귀중한 두 사랑을 하나로 합치고픈 그 마음...

그때 순철은 그저 조용히 머리를 끄덕여주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이 울리고있었다.

(정림이, 우리 도는 농업도야. 꼭 고향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어디서건 농민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 되는거야.)...

하지만 순철은 정림이에게 이 말을 할수 없었다. 한해한해 처녀는 고향땅에 점점 더 깊이 뿌리박고있다. 정림이와의 결혼은 오직 자기가 고향농장으로 진출할 때에만 이루어지리라느것이 불보듯 명백해졌다.

순철은 처녀에게 아직은 돌이가 서로 터놓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정을 터놓고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도 이야기하려고 오래간만에 답촌마을을 찾은것이다.

고향, 만약 정림이가 없다면 나는 고향의 무엇을 사랑했을것인가. 정림이는 내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있을가. ...

끝없이 가지치는 상념에 잠겨 순철은 답촌어구에 들어섰다. 그때 멀리에서 어느결에 알아보았는지 《순철오빠!》 하고 소리쳐부르며 정림이가 달려왔다. 나이론꽃수건을 목에 두른 정림은 숨가쁘게 달려와 순철의 팔을 잡아흔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허리가 늘씬하고 팔다리가 남자들처럼 굵은 정림의 얼굴은 들바람에 감실감실 타서 건강미가 한껏 넘쳐있는데 눈가에는 눈물까지 글썽하게 고여있었다.

《야—참! 이렇게 빨리 올줄은 몰랐어요. 금방

다녀가셨는데 벌써 도에서까지 알았나요? 야— 참! 소문이 빠르기도.》

순철은 어리둥절해졌다.

《금방 다녀가시다니?》

이번에는 처녀가 놀라며 눈이 커졌다.

《아니, 그럼 아직 모르나요? 야—참!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댔어요!》

《수령님께서?!》

《그래요. 오늘 아침 배나무집할머니네 집하구 땡상모판에. 아직 그걸 모르다니요! 아침 일찌기 오셨됐는데. 싸가지고오신 주먹밥을 땡상모판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구... 자신께서두 여기서 드시구가셨어요. 가신지 한시간두 못됐어요. 야—참, 조금만 빨리 왔어두 만나뵈는건데—》 처녀는 안타까와서 발을 동동 굴렀다.

《가자요, 수령님 오셨던 이야기 들쥔다구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야—참! 아직 그 소식두 모르다니요.》

...어버이수령님께서 답촌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아침해가 퍼지고있었다. 내리는 진눈까비를 승용차우에 얹으며 떠나실 때는 날이 채 밝기 전이었는데 차가 사리원을 지나 재령쪽으로 꺾어들었을 때에는 하늘이 건듯 들리고 아침해가 솟기 시작했다. 따뜻한 미소와도 같이 강산에 퍼져가는 봄날의 해살은 산에 들에 쌓였던 진눈을 소리없이 녹였다. 그 해살에 몸을 맡기고 봉오리를 터뜨리는 꽃향기가 더 그윽히 풍기고 새잎을 움틔우는 초목들도 한결 싱싱해졌다.

차가 달릴수록 날은 점점 더 밝아지고 따스해지니 수령님의 승용차는 마치도 이 밝고 따뜻한 봄날을 당겨오며 달리는듯 했다. 앞좌석에 앉아 시창밖으로 청신하고 따뜻한 봄날의 아침을 내다보는 책임서기는 뜨겁게 갈마드는 사색에 잠겼다. 우리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내리는 눈비는 이렇게 자신께서 다 맞으시며 이 강산에 화창한 봄날을 당겨오시는 것이 아닌가.

안경을 추스르시며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들판을 유심히 살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차가 농촌길에 들어서자 이르시였다.

《좀더 천천히 몰라구. 살펴보면서 가야 돼. 동무네두 좀 잘 살펴라구. 난 눈이 잘 안 보여서 놓치는것이 있을수 있어.》

《해가 솟으니깐 벌써 눈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운전사가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

이시였다.

《원래 봄눈이라는건 그렇게 맥이 없소. 그래두 젖은 눈이 돼서 무겁거던. 뎡상모판에 나래를 썩워 놔야지 그냥 비닐박막에 눈이 쌓여서 내리누르면 어린 모잎들이 찬 박막에 닿으면서 얼수 있소. 오면서 그런 모판은 본게 없지?》

책임서기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수령님께서 무엇을 살피시는지, 무엇을 살피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저기서는 지난밤에 썩었던 나래들을 이제 벗기고 있습니다.》

운전사의 대답이었다.

《음, 그래. 농민들이 정말 수고가 많아. 간밤에 다들 못 잤겠구만. 솜옷들이 푹 젖었겠는데 감기들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소.》

그 말쑈에 책임서기도 운전사도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우리 수령님은 이런분이시다. 자신은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시고도 농민들의 수고를 넘려하시는분.

《여기가 낮이 익군. 저-기 저 길로 가자구. 한 십리쯤 가면 마을이 있을거요. 어느때 와본 기억이 나오.》

승용차가 답촌에 들어서자 새 문화주택들이 오בות하게 모여앉은 마을을 지나 저쪽으로 방죽장을 둘러친 뎡상모판이 보였다.

《마을이 개명했군. 집들을 다 새루 지었어. 이래놓으니 벌은 낮익은데 마을은 낯설단 말이야. 음? 참 좋은 일이지.》

그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갑자기 차를 세우시였다.

《저길 좀 보라구. 저 집지붕에 허연게 보이는데 그게 눈이 아니요?》

책임서기와 운전사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보니 정말 집지붕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다.

《채 녹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른 집들은 다 녹아서 흘러내렸는데 저 집지붕에만 왜 아직두 눈이 있어? 저건 서까래가 물러앉아서 지붕물매가 꺾였든가 기와장들이 바루 놓이지 않았다는거요. 들려보자구. 비가 새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수령님께서 트락에 들어서시자 집안에 있던 늙은 녀인과 중년사나이가 꿈을 꾸는것만 같은지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굳어졌다.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새 다들 잘 있었소? 내가 이 동네에 와본지

퍼그나 됐지?》

그제야 늙은 녀인이 어푸러질듯 달려나와 황황히 인사를 올렸다.

《수령님, 꼭 스물다섯해만입니다. 제 그때 분조장을 하던...》

《분조장?》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아, 생각나오, 생각나. 피살자가족이지? 혁명학원을 졸업하구 군대나간 유복녀가 있었던가?》

《웁습니다, 수령님.》

녀인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새 많이 늙었구만. 농사일이 힘들어서 그래. 이 사람이 사위요?》

《아닙니다, 리당비서입니다.》

그 말에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반색하시였다.

《간밤에 오던 비가 새벽에는 눈이 되드라니 마음놓이지 않아서 두루 돌아보자구 나왔소. 그런데 이렇게 아침일찍 마을을 돌아보는 리당비서를 만나니 좋구만! 마음이 놓이오, 마음이.》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앞에서 리당비서는 송구스러워 몸돌바를 몰라하고 녀인이 대답올렸다.

《제 이사집을 꾸리는걸 돕겠다구 이렇게 일찍...》

《이사라니? 어디 가시오?》

《저... 딸한테로...》

《딸은 어디 다른데서 사오?》

리당비서가 한발 나서며 말씀드리였다.

《이 어머니 사위는 최전연초소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고있습니다.》

녀인이 덧붙였다.

《사위도 전쟁때 아버지가 전선에서 희생된 전사자 아들입니다. 그 애들은 원쑤를 갚기 전에는 전연 초소를 뜨지 않겠답니다.》

오늘 부대에서 차를 보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 그렇다? 그래서 떠난단 말이지. 그새 혼자서 살았겠구만, 혼자서...》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시며 집트락을 둘러보시였다.

《그러니 딸네 집으로 간단 말이지.》...

...배나무집을 나서시여 리당비서와 함께 뎡상모판으로 오신 수령님께 목에 나이론꽃수건을 두른 처녀가 깜짝 놀라 굳어졌다가 달려와 안기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아버지대원수님!》

리당비서가 수령님께 소개해드렸다.

《우리 관리위원장동무입니다. 처녀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 일을 잘하는 모양이구만! 처녀가 관리위원장이 된걸 보니. 가만, 낮이 익다, 우리 언제 만났던가?》

《분조장을 할 때 수령님을 모신 도당확대전원회의에서 경험토론을 했습니다.》

《맞아, 애젊은 처녀가 분조농사를 맡아서 3년이나 거쳐 정당 열론을 했지?》

처녀는 수령님께서 기억해주시는것이 너무도 기뻐 눈물이 글썽해졌다.

《웁습니다, 수령님!》

《그래 지금까지 열론 계속했나?》

리당비서가 대답올렸다.

《그 대회에 참가하고 와서 작업반장이 되어 모든 분조들을 다 열론분조로 만들었습니다. 한달전부터 관리위원장으로 사임하는데 모든 작업반들을 열론작업반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용타, 포부가 커! 우리 두번째로 만났는데 이렇게 자란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그러자 처녀는 생긋 웃으며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수령님. 세번째입니다.》

《언제 또 만났던가?》

《수령님께서 스물다섯해전에 우리 탁아유치원에 오셨을 때...》

《그래?》

수령님께서 기억을 더듬으시는지 잠시 말쑥이 없으시자 처녀는 수령님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그때 수령님께서 곱다고 머리를 쓸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 안나십니까? 야-참,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쓸어주셨는데-》

《다른 애들보다 더 고와했다구?》

수령님께서 허허 웃으시자 책임서기와 리당비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탁아소와 유치원이 함께 있는 농촌작업반 탁아유치원에 들리시여 아이들의 머리도 쓸어주시고 볼도 다독여주시던 생각은 나졌지만 스물다섯해나 지난 지금 그 아이들중에서 이 처녀가 어느 아이였겠는지는 생각나지 않으시었다. 그렇게 쓸어주고 다독여주신 어린이들이 어찌 한둘이라.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쓰다듬고 다독여주시며 한품에 안아키워오신 우리 수령님이신데.

그러나 자기를 특별히 고와했다는 자랑을 지금껏

하면서 자랐을 처녀관리위원장을 실망케 하고싶지 않으시여 수령님께서는 정말 기억이 나시는듯 처녀의 어깨를 가볍게 쳐주시었다.

《아, 맞아. 이제야 생각나. 그땐 요만-했지?》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며 손바닥을 땅에 낮추 드리워보이시었다. 처녀라니까 그땐 기껏 두세살 되었을가?

《아닙니다, 고보다는 좀 컸었는데...》

《그럼 요만큼?》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손바닥을 약간 더 들어올리시었다. 그러자 처녀는 수령님의 손을 잡아 한뼘나마 척 끌어올렸다.

《이만큼은 됐었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들판으로 퍼져갔다.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이라구?》

《스물여덟살입니다.》

《어이쿠! 시집부터 빨리 가야겠구만.》

《예!》

어망결에 이렇게 대답올린 처녀는 요란한 폭소가 터지자 얼굴이 빨개지며 깔깔 웃었다.

《허허, 우리 관리위원장 시집가라니까 체격 옹하느걸 보니 다 무르익힌것 같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던 처녀는 수령님께서 은근한 어조로 《총각두 이 마을에 있나?》 하고 물으시자 귀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살거렸다.

《뭐? 해주에 있어? 도농부원?》

그러자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야-참, 큰소리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비밀인데...》

《오- 그렇지.》 수령님께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우시고 목소리를 낮추어 정말 비밀이야기를 나누시듯 하시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리벌처녀가 도시총각을 친했나?》

《도시총각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 한마을에서 나서자랐습니다. 난 오빠가 없구 응- 순철오빠 누이동생이 없기때문에 우린... 음-》

《그래- 오빠누이처럼 다정하게 자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 뭐라드라? 고령고령하다가 뽀령뽀령하는 사이가 됐겠구나.》

수령님께서 황해도지방사투리를 써서 눌러주시는 통에 또 폭소가 터지고 처녀는 허리까지 들까불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어댔다.

《그런데 어쩐다? 결혼하면 남편따라 가야 되겠지? 바늘따라 실간다는데.》

처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령님, 전 고향을 뜨지 않습니다. 녀자가 꼭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는건 봉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해마다 정당 열돈을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입술을 꼭 감쳐둔 처녀관리위원장이 대견하시여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음— 관리위원장 정말 잘 골랐소. 대단해. 그런데 말이요, 만약 총각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오지 않겠다구 하면 어떻게 하겠나? 응?》

처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웁니다, 수령님. 꼭 웁니다. 전 믿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래. 그런 믿음이 없다면야 진실한 사랑이 아니지.》

말씀을 끊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처녀관리위원장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웃음을 지으시었다.

《좋은 일이요. 그런데 이젠 나이들이 있는데 늦잡으면 안돼. 농사에만 적기적작이 있는게 아니요. 안 그래?》

처녀는 생긋 웃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최적기에 해내겠습니다!》

《하하하!》 고개를 높이 쳐드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수령님께서는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눈곱까지 닦으시었다.

(원, 처녀가 별차기란. 수집어하는데라고는 하나 두 없군. 하긴 이렇게 별찬 처녀니까 분조두 작업반두 맡아서 정당 열돈을 해냈겠지. 이제 농장두 꼭 해낼거야. 사랑두 자기 뜻대로 가꿀거구.)

《이젠 모판을 좀 보자구. 간밤에 피해는 없었나? 가만, 그러구보니 왜 관리위원장 혼자뿐이요?》

《지금 다 아침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어제 밤 모판들에 나뉘를 썬우구 새벽에 눈이 몇자마자 나뉘를 벗겨서 눈을 털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더러는 저수지에 가서 비물, 눈석이물들을 말끔히 잡게 하구 물 한방울이라두 논판을 더 적시게 더러는 배수로들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지난밤에 그렇게 교시하셨다구 군에서 전화루 알려왔습니다.》

《전화루? 군에서두 전화루 알렸단 말이지. 음—》

저으기 무거워지시는 수령님의 심중을 알리 없는 처녀관리위원장은 계속 말씀드렸다.

《모두 밤을 밝혔기때문에 오전한것 쉬면서 젖은

옷들두 말려입게 하자구 리당비서동지가.》

《잘했어. 그럼 관리위원장두 아침밥 먹으러 가야지. 식사는 제때에 해야 돼.》

《모판박막들에 물방울 맺히는걸 기다렸다가 털어주구 가려냈습니다.》

《오— 아침에 기온이 올라가면 비닐박막안에 물방울이 쏴얹게 맺히지. 털어주면 좋아. 해빛이 더 잘 비쳐들어서 밤새 떨어졌던 모판온도를 빨리 높일수 있지.》

《예! 그러구 이 물방울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고걸 털어주면 애기모들이 단젓처럼 빨아먹는게 막 알립니다.》

수령님께서는 그 말에 이슬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관리위원장의 마음씨가 느껴지시여 한참이나 대견하게 바라보시었다.

(농장의 주인을 정말 잘 골랐군.)

하긴 플라넛것도 아니다. 이 땅이 그렇게 키웠다. 자신께서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이 땅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농촌의 새 세대인가....

《우리 관리위원장동무를 도와 다같이 물방울을 털어줍시다. 가서 운전사도 오라고 하오. 올 때 밥보자기를 가지구 오라구. 아침밥을 여기서 다같이 먹게.》

그러시고는 외투의 아래자락을 올려접으시고 모판앞에 무릎꿇혀 앉으시었다.

손가락으로 박막을 탁탁 튕겨 안쪽에 맺힌 물방울을 털구어주시며 수령님께서는 다정히 물으시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처녀관리위원장은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혀 고개만 까딱일뿐이었다....

3

수령님께서는 차가 어느덧 평양을 가까이하자 눈물을 흘리며 따라서던 처녀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의 모습을 다시 그러보시며 앞좌석에 앉은 책임서기에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그 관리위원장처녀가 참 결작이지? 음— 그 농장일이 잘되겠소.》

《그 동무들은 수령님께서 싸오신 주먹밥을 나누어먹은것을 아마 일생 잊지 못할겁니다.》

《그럴줄 알았으면 우리 아침밥을 좀 잘 싸가지구 갔을걸 그랬소. 주먹밥 몇덩이를 가지구 나누어 먹었으니 그 동무들이 좀 낯낯할거야. 다음부턴 어디 갈 땐 뭘 좀 마련해가지구 다니자구. 아까 헤어

질 때 그 일 잘하는 관리위원장 줄게 하나두 없어서 정말 아쉬웠소.》

운전사가 즐겁게 대답올렸다.

《건뎡이것을 병채루 뺏기지 않았습니까.》

《어- 누구한테두 말 말라구. 국가주석의 주머니 털어냈는데 기껏 건뎡이것 한병밖에 없더라는 소문이 날수 있어.》

패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반쯤 내리운 차창안에서 즐거운 웃음이 흘러나와 화창한 봄날의 대지에 뿌려졌다. 책임서기는 그때의 광경이 다시 새겨져 눈곱이 달아올랐다....

...정림은 입술을 감빔며 바싹 다가앉아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수령님께서 손수 푸시는 밥보자기를 지켜보는데 꼭 할아버지한테서 무엇이 나올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나앉는 철부지손녀같았다.

고추장으로 무친 시금치를 속에 넣고 잡곡이 섞인 밥을 쥘기하여 김으로 싸 주먹밥을 한덩이씩 나누어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책임서기에게 물으시었다.

《가만, 그것 안 가져왔나?》

그러자 운전사가 벌떡 일어서 승용차로 달려가더니 건뎡이것이 들어있는 병줄임통을 가져왔다.

《관리위원장, 건뎡이것을 좋아하나?》

《예, 좋아합니다.》

《그래. 건뎡이것은 밥맛을 돋구는 칼시옴성분이 많은 좋은 것같은데요. 밥에다 발라서들 하라구. 어때?》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맛나게 먹던 정림은 《정말 맛있습니니다.》라고 명랑하게 대답올렸다.

《뚝고추를 건뎡이것에 찍어먹어도 별맛이지?》

《예, 전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덴 맨 뚝고추만 그렇게 먹군 너무 매워서 바가지로 물을 퍼마시다가 엄마한테 욕을 먹군 했습니다.》

《건뎡이것을 호박지지개나 감자지지개를 할 때에 뒤순가락만 넣구 쪼여두 구수한게 맛있소.》

《웁습니다. 야-참! 우리하구 꼭 같으시네!》

책임서기는 그만 어처구니없어 히히 웃었다. 이런 철딱서니없는...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처녀의 말을 받아주시었다.

《갈을수밖에. 우리 평안도사람이나 황해도사람들은 다 건뎡이것을 좋아해. 헌데 함경도사람들은 이런걸 좋아 안한단 말이요.》

정림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맛있는걸 안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래. 거긴 거기대루 좋아하는게 또 있지. 우리 나라는 지방마다, 마을마다 독특한 자기 음식맛을 전해내려오거든.》

우리 조선사람들만큼 제 고향, 제땅을 사랑하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소. 왜 그런고 하니 넓은 초원을 오가면서 짐승을 방목하는 유목민두 아니구 떠돌아다니는 장사군두 아니구 제땅에 뿌리를 든든히 박구 제 손으로 착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기때문에 그렇소.》

뜻깊은 그 말씀에 다들 생각이 깊어졌다. 말씀의 깊은 뜻을 음미하다가 살며시 손가락에 붙은 밥알 한알을 뜯어먹는 처녀를 웃음속에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하나 남아있던 주먹밥덩이를 집어드시었다. 새벽에 떠나실 때에는 두덩이씩 돌아가게 싸 주먹밥이었는데 두덩 더 불어나다니니 한덩이씩 돌아가고 한개가 남아있던것이다.

《자, 이 한개는 관리위원장하구 리당비서가 절반씩 나누어서 더 들라구.》

손수 절반 갈라서 내밀어주시는 수령님앞에서 처녀는 점찍해서 사양했다.

《자, 자, 어서 받으라는데. 음식을 나누어먹으면 정이 통한다질 않나. 마음 맞춰서 일 잘하라는 뜻이야.》

다정한 말씀에 후더위오르는것을 누르며 두손으로 받아드는 그들에게 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난 금방 철들 때 혁명하는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났소. 창덕학교를 두해 다닌것 내놓구는 소년 시절과 청년시절을 다 중국동북에서 보냈지. 거긴 함경도사람들이 많았소. 그러다나니 함경도음식을 많이 먹었지. 그런데두 어릴 때 들인 음식맛을 잊을수 없었거든. 산에서 싸울 땐 왜 그렇게 건뎡이것이 먹고싶던지.》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회억에 잠기시어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가 이으시었다.

《한번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주인집에서 뚝강냉이를 삶아서 내놓더구만. 그걸 보니 아이때 고향에서 뚝강냉이에 건뎡이것을 곁들여먹던것이 생각나서 이런뎡 건뎡이것이 제격이라고 했더니 그 집로인이 장군님두 평안도사람인가고 하면서 자기 머리가 평안도녀잔데 며칠전에 본가집에 갔다가 가져왔다고 건뎡이것을 내놓더구만. 그날 오래간만에 건뎡이것 해서 뚝강냉이를 맛있게 먹구 떠나는데 그 집에서 건뎡이것을 병에 넣어주었소. 한동안 맛있게 잘 먹었지. 그런데 부대엔 태반이 함경도사람들이라 같이 먹자구 하면 코를 싸쥐구 돌아

않지 않겠나.》

수령님께서 웃음을 지으시며 병졸임통뚜렁에 건넵이것을 더 쏘아주시었다.

《어릴적에 들인 음식맛을 잊지 않는다는건 고향을 잊지 않는다는거야. 타향살이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향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아.》

모두가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안팎에 깊은 추억이 어려있는 수령님을 우러렀다. 이윽고 사색에서 깨어나신 수령님께서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우러르는 정림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시었다.

《우리 관리위원장은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고향을 사랑하거던. 고향땅에 한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요. 이게 다 땅에서 청년교양을 잘한 덕이요. 내 동무네한테 당부할건 김정일동지를 받들어서 고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잘 가꾸라는거요.》

《알겠습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자, 이제 가겠소. 농사를 잘 지으라구. 가을에 내 또 오지.》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정림은 단박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수령님의 팔을 부여잡았다.

《수령님! 우리들이 수령님말씀대로 일을 잘해서 풍년벌에 모시고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뎐, 그뎐... 이렇게 주먹밥을... 싸들고 오시지 마십...》

말을 맺지 못하고 품에 안겨 흐느껴우는 처녀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시는 수령님께서도 가슴이 뭉클해나고 눈곱이 젖어드시었다. 마음을 놓으란 말이지, 그래, 이런 동무들이라면야 내가 마음을 놓을수 있지, 이런 동무들이라면야...

《고맙소, 고마와. 오늘처럼 관리위원장은 애기 돌보듯 곡식을 돌보구 리당비서는 농민들을 돌보라구. 그러면 마음을 놓겠소. 관리위원장, 내 뭘 도와줄게 없을까?》

맑은 눈물이 섰듯 흘러내리는 정림은 건넵이것병을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수령님, 이걸 저에게 주고가십시오.》...

...《날씨가 참 좋구만. 우리 만경대에 들렀다 같가?》

수령님의 말씀에 생각에서 깨어난 책임서기는 젖어오른 눈곱을 서둘러 손등으로 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정말입니까, 수령님?》

수령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한번 깜빡하시었다. 그러자 책임서기는 너무 기뻐 소리치다싶이 하였다.

《수령님, 지금 만경대엔 꽃들이 만발하고 고향

집은 꽃향기에 묻혀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나라 봄경치에서는 만경대가 제일입니다!》

수령님께서 슬며시 웃음을 지으시었다.

(되우 좋아하는 하는군.)

4

배나무집에는 수령님께서 오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군과 도의 일꾼들, 연백지구에 나갔던 농업위원회 책임일군까지 와있어 자그마한 프락이 사람들로 붐비었다. 정림은 건넵이것병을 안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옆에 선 배나무집녀인도 웃고름으로 눈곱을 찌고있었다. 모두가 뜨거운 걱정애 잠겨있으나니 수령님의 승용차가 다시 마을에 들어와 집앞에서 멎어선것도 모르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책임서기가 부축해드리려는것을 만류하시었다.

《일없소, 사람들이 보겠소. 이 지행이두 감추라구. 현대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들 모여있나? 벌써 이사집 실으러 온게 아니요?》

운전사가 반달음으로 앞서들어가며 프락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는데 수령님께서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천천히 마당에 들어서고 계시었다.

《수령님!》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이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동무네두 왔구만!》

《죄송합니다, 수령님.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수령님께서 이른새벽부터...》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됐소, 됐소. 이렇게 다들 현장애 나오지 않았나. 그러구보니 내가 잘못했소. 동무네한테 이쪽은 내가 나가보겠다고 알려주구 떠났을걸. 지도가 한곳에 너무 집중된것 같구만. 미안하오.》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은 젖은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렸다.

《아닙니다, 수령님. 저희들이 농친 공백을 수령님께서 메꾸어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연백지구애 나갔었는데...》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래? 연안, 배천애 나가봤단 말이지? 그쪽은 어떻소? 별일 없었겠지?》

《나가보기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 저수지가...》

수령님께서 농업위원회 책임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자 승용차에 돌아와앉은 운전사는 수령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쏘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오래간만에 만경대에 가셨다가 그리운 고향집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신 수령님!...

...수령님의 승용차는 고향집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서고말았다. 화창한 봄날에 만경대를 찾은 인민들이 꽃물결처럼 흐르며 봄비는 고향집!

책임서기와 운전사는 당황해서 마주보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 차창을 내리우시고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계시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저렇게 아이들도 아버지, 엄마 손목잡구 많이 왔구만.》

《수령님, 제가 그만. 수령님께서 만경대에 가고 하실 때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건데.》

《무슨 소릴.》

불현듯 수령님의 심중에서 눈보라가 일었다. 얼어붙은 압록강, 포평나루터에 눈가루를 쓸어올리며 불어치던 그 눈보라, 눈보라... 사립문밖으로 따라나와 손을 끌어주고 옷깃을 여며주고 눈보라를 걱정해주며 눈물을 지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라 찬바람이 불어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차마 내짚지 못하시던 짚신발, 그때 부르시던 《압록강의 노래》.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혈육과 헤어지고 친지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다. 그러나 제일 고통스러운 아픔이 조국과 헤어지는 아픔이다.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사립문이 저렇게 늘 열려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만, 많이 찾아와. 저 사립문에 다시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있나.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구 말구.》

수령님께서 말씀으시고 차창너머로 고향집을 조용히 더듬으시었다. 한평생 인민의 고향집들에 가난서린 초가마가리들을 벗겨주시고 행복의 리상촌을 일떠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의 고향집에는 기와 한장 올리지 못하시었다. 고향집에 바치고싶으시던 그 모든 사랑과 정을 이 나라의 마을들마다에, 집집마다에 깡그리 바치시여 고향집추억은 이리도 소중하고 목메이는것인가.

고향, 만약 자신에게 고향 만경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잊지 못할 추억이 없으셨다면 조국과 인민에 대한, 혁명위업에 대한 80여평생의 사랑과 헌

신이 있었을것인가. 고향! 이제는 인민의 고향으로 된 자신의 고향—

《자, 우린 가자구. 인민들 휴식을 방해하지 않게 사랑사랑.》

화창한 봄을 즐기는 천만자식들이 행복의 꽃물결로 굽이치는 사랑하는 고향집을 뜨거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는 수령님의 추억속에 답촌마을에서 들리셨던 배나무집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딘가 쓸쓸해보이던 녀인, 지붕우에 남아있던 진논...

녀인은 분명 고향을 뜨는것을 괴로와하는 모습이였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정이 각별한 법이다. 어린시절 눈에 익힌 부모형제들과 이웃들, 동무들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

그러나 추억이 아무리 유정해도 그것만으로는 사랑일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바친것이 있을 때부터 생겨난다. 무엇을 바치고 어떻게 바쳤는가. 바로 여기에서 고향을 추억으로만 돌아보는 사람과 피와 넋으로, 근로의 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갈라진다. 그 녀인에게서 고향은 사랑하는 남편과 일가친척들이 피흘리며 쓰러진 땅이다. 그래서 더 억척스레 가꾸고 땀흘려 사랑한 땅이다. 거기에는 그 녀인의 한생이, 피와 넋, 땀이 스며있다.

혈육들을 무참히 앗아간 원수들과 끝까지 결판을 내겠다고 최전연을 뜨지 않고있다는 배나무집녀인의 딸과 사위도 장하다. 애국렬사의 후손들은 웅당 그래야 한다. 하다면 한생 살아온 고향을 떠야 하는 녀인의 마음속 아픔은 어떤단 말인가?

고향에 한생을 바치겠다는 처녀관리위원장, 그 기특한 처녀의 고향에 대한 사랑도 제 손으로 심어가꾼 곡식포기들과 함께 움터자랐을것이다. 도급기관에 있다는 젊은이가 처녀의 그런 사랑을 다 알고있을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이르시었다.

《이자 갔던 마을에 다시 가자구. 처음에 들렸던 그 집에 가봐야겠소.》

책임서기와 운전사가 의아해서 돌아보자 수령님께서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었다.

《사연이 있을거야, 말 못할 사연이.》...

...《아주머니, 이 마을에서 몇해 살았소?》

《나서부터 이날까지 일흔살 먹도록 살았습니다.》

녀인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이사집옆의 보통이를 풀고 자그마한 나무함을 꺼내 수령님께 받쳐올렸다.

《한뼘 여기서 수령님의 은덕을 많이 입었습니

다. 이게 모두, 이게 모두...》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찼찼 흘리는 녀인에게서 책임서기가 그 나무함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 드렸다. 그안에는 지금껏 녀인이 받은 훈장과 표창장, 대회참가증들, 농민휴양권들, 지어는 군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초대장까지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시었다. 그것은 이 땅과 함께 흘러온 한 농촌녀인의 인생사였다. 아니, 이 땅의 력사이기도 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이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표창장까지 다 꺼내보신 수령님께서는 《일을 많이 했구만, 많이 했소.》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피살자가족이라구 배려를 많이 돌려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었다.

《내 어쩐지 아주머니가 고향을 뜨기 피로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왔소.》

《수령님...》녀인은 수령님의 손을 움켜잡고 울음을 씌었다.

《마음쓰지 마십시오. 사위도 아들이나 같은데 거기 가서... 여생을 편안히... 살겠습니다. 피살자가족이구 후방가족이라구 이날껏 돌봐줬는데 육신이 이젠, 이젠...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만큼 배려를 받았으면 됐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수령님께서는 무엇인가 뜨끈한것이 울컥 마쳐와 마음이 격해지시었다. 땅과 같이 순박한 녀인, 희생된 혈육들의 뭍까지 다 합쳐 억척스레 일해온 녀인.

이 녀인이 아파하고 피로와하는것은 소중한 이 땅에 자기를 더 바치지 못하는 그것이다. 혈육들의 피로 물들고 자기의 땀으로 걸구어진 고향땅에 생을 끝까지 바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피로움...

수령님께서는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 아주머니는 우리와 함께 토지개혁을 하고 이 땅을 지켜 싸웠으며 협동화도 하고 농촌제도로 관철해온 오랜 농민입니다. 고향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알고있기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딸마저도 군사복무를 마친 다음 군인가족으로 최전연초소에 세우고 수십년 세월을 묵묵히 홀로 살며 이 땅을 가꾸어왔습니다. 농민으로서,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도 말년에 집이 되는것이 피로워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고향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령...님!...》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자기의 속마음을 수령님께서 다 헤아려주시니 녀인은 끝내 참고참아온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손을 움켜잡고 거기에 불을 비비며 더운 눈물로 적시는 그 모습을 측은히 내려다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푹 떨구고 서있는 리당비서를 보시자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섭섭한건 뭐가? 이런 귀중한 농촌핵심을 왜 친자식이 되어 모시지 못했는가 하는거요. 친아들, 친딸이 되어 어머니같은분들은 앓아만 있어도 힘이 된다고 하면서 잘 모셨더라면 인생말년에 자기가 고향마을에 부담으로 된다고 생각했겠는가, 응? 리당비서동무, 난 이게 섭섭해.》

《수령님, 제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소, 잘못했단 말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더 말씀이 없이 어깨를 떨며 우는 녀인의 손을 어루쓸기만 하시었다. 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며 흐느껴울던 정림이 한발 나섰다.

《수령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절 옥해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오래동안 분조장, 작업반장을 했는데두 혼자 사는 할머니의 마음속 고통도 모르고 잘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건넌이것병을 안고 어깨를 떨며 흐느껴우는 정림과 배나무집녀인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그러안으시고 리당비서에게 말씀하시었다.

《사람들한테 고향은 혈육이나 같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따져보면 혈육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것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도 고향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요. 그런 사랑을 심어주고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소. 농촌당사업에서는 이게 특별히 중요해.》

수령님께서는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내 이래서 농사를 지도하는 동무네가 늘 농촌에 내려가라고 하는거요. 이 아주머니같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만 있겠는가. 동무네가 농장에 내려와야 농사두 알구 농민들의 마음두 알지 않겠소.》

자책에 잠겨 머리를 깊이 숙이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음성은 더욱 절절히 울렸다.

《곡식이러한건 그저 땅에 심어 자래우는게 아니라 고향땅을 사랑하는 농민들의 마음에 심어가꾸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상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작품에서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물론 수령의 혁명활동력사를 한 작품에서 한꺼번에 보여줄수는 없다. 혁명의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내놓는다고 하면서 내용이 없이 규모만 크게 잡으려 하여서는 안된다. 형상과제의 크기는 작품의 규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작품의 규모를 작게 잡아도 수령의 형상에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무게있는 력사적과제를 얼마든지 체현시킬수 있다. 작가는 수령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어느 한 단면을 선택하여 작품에 담을수 있다.》

는거요. 그래서 낱알 한알한알이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해.》

한생을 고향땅에 바쳐온 녀인과 그 역시 한생을 고향에 바쳐갈 처녀를 한품에 안아주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순철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를 묻은 그 땅의 흙 한줌, 곡식 한포기에도 성스러운 피와 진한 땀을 묻어 우리 수령님께서 이토록 귀중히 품에 안아주시는 고향사람들! 내 이것을 다 알고 살았던가. 이 가슴속에 고향처녀에 대한 사랑은 있었어도 그 사랑을 심어주고 자래워준 고향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었던가.

눈앞에는 흘러간 군사복무시절 정림이가 보내왔던 벼이삭이 안겨왔다. 고향에 대한 처녀의 불타는 사랑이, 그 불길과 함께 한생을 타번질 그런 사랑을 안고 나는 다시 고향의 아들이 되리라. 수령님께서 먼길을 다시 오시여 조국애의 뿌리로 이토록 소중한 지켜주시는 향토애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고향의 참된 아들딸로 우리 한생을 살리라!

순철은 감격에 우는 사람들을 헤집고 수령님앞에 나섰다.

《아버지수령님, 저와 정림이가 친자식이 되어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한생을 바쳐 이 고향을 사랑하고 가꾸어가겠습니다.》

니다.》

수령님께서 손잡고 나란히 선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니 동무가? 응? 고맙소, 고마와.》

그러시고는 두 남녀를 다정히 그려안아주시었다.

《내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했는데 늙은이들은 나라의 은인이야. 동무네가 나서자라난 이 좋은 농촌을 지켜내구 가꾸어온 은인들이란 말이요. 그러니 잘 모시라구.

어땡소? 아주머니, 이 젊은이들이.》

《수령님!...》

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사람들모두가 한 농촌녀인을 위하여 먼길을 다시 찾아오신 웅심깊은 그 사랑에 눈물을 쏟고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령님께서 만경대에 가셨다가 고향집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돌아서시었다는것은 모르고있었다. 자신께서는 고향집뜨락마저도 인민들에게 다 넘겨주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을 지켜주시려 먼길을 다시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 만시름이 풀리신듯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미소가 마을에, 들판에 비껴가고 있었다.



민족의 아버지

리 호 근

수령님께서는
흰 양복 입으시고
가벼이 뒤집지신채
응접실주단우에 서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치마저고리차림으로 허리굽혀 인사올리는
북남녀성대표들의 손 일일이 잡아주시며
환한 미소 지으시고 그들을 둘러보시는데

문득 한 대표가 친아버지에게 하듯
수령님께 나지막하게 말씀올린다
—수령님 모두가 하나와 같이
치마저고리차림이니
누가 북조선의 대표이고
누가 남조선의 대표인지 가려보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수령님 그 물음 천천히 외우시며
상념에 잠기신 안광으로 북남대표들을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나직이 말씀하신다

—아니야 전혀 가려 못 보겠어
전혀!...
그러시고는 짐짓 웃음을 거두신채
창밖을 바라보시며
산같은 무게로 단호히 말씀하신다

—어떻게 가려보겠소 옷차림만이 아니라
생김새도 말도 다 같은데 말이요!...
순간 모두 뜨거운것을 삼키며
북남대표모두를 똑같은 친자식으로 안아주시는
대해마냥 한량없는 아버지사랑에
목메여 목메여 모두 입속으로 뇌인다
—아버지!...

아, 때는 바야흐로 청청한 정오
정원 어데선가 폭폭 메새소리 유정하고
목란꽃향기 그윽히 풍겨오는데
창문가득 푸른 하늘이 흘러들어왔다
한낮의 눈부신 해살이
그들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혁명일화

만찬회 때 잊은 일

은 나라가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성대하게
경축하던 때인 주체91(2002)년 4월 26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군절축하사절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던 로씨야련방 원동련방주
재 대통령전권대표 빨리콤포스끼일행을 위하여 만
찬을 베푸시였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전권대표와 함께 로씨야
에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고있는 그의 아들도
자리를 같이하였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께 축배를
드리면서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받
으시며 군대에 복무하다가 희생된 그의 형을 추
모하여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대통령전권대표일행
의 마음을 뜨겁게 덥혀주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통령전권대표의
아들에게 우리에게선 선군정치가 있으며 혁명
적군인정신도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그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그들일행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탄
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만경대고향집앞에서

원영옥

그 어디를 보아도
가난의 자취 력력한
만경대고향집
여기엔 없다
황금빛 번쩍이는 값진 재부도

세월은 세기를 넘어 흘렀건만
오늘도 옛그대로인
지붕을 덮은 벼짚이영
쭈그러진 독...

이 나라의 겨레를
품어안고 솟은 집 뜨락엔 있어라
눈물겨울던 조선의 역사를
이랑마냥 번져주는 보습날
나라잃은 설움 고이고고이던 물동이

빙빙
달을 두고 해를 두고 낱아도
가난만을 낳던 실물레는
오늘도 돌고있어라
가난과 설움에 울던 어제날을 잊지 말라고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못살아
정녕 그렇게는 못살아
이 집 이 마당가의 그 모든것
가슴에 품고 일가분들
피어린 반일전에 나서시었나니

백두밀림의 달밝은 밤
《사향가》의 노래속에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 잠 못들던
밀영의 우등불가에 솟아

항일의 대원들을 품어주던 집

만경대일가분들
가난과 설움에도 젖지 않을
애국의 넋을 주추돌로 고인 집
모진 세월의 폭풍에도 꺾이지 않을
애족의 마음 기둥으로 다듬어세운 집
오, 만경대고향집이여

이 집이 있어
나라를 빼앗기고 헐벗어도
언제나 이 지붕아래 마음후덥던 겨레
이 집이 있어
설한풍 쪽잠도 달았고
두고온 고향집 그리울 때면
마음속에 그려보던 만경대고향집은
기어이 찾아서 안길 조국이었나니

백두의 설한풍속에
애국의 넋을 불태워
조국해방을 안고오신 수령님
온 겨레를 앞세우고 들어서신
만경대고향집이여
온 겨레를 쳐마아래 품어준
조선의 고향집이여

내 삼가
고향집앞에 옷깃 여미고섰노라
그리고 벼짚이영 쭈그러진 독
보습날과 물레앞에 서니
문득 가슴에 넘치는 자존심이여
조선의 유산 혁명의 재부앞에
온 세상 억만재부가 빛을 잃어!
무색하여!...

가 사

영
원
한
삶
의
를

김
용
엽

이 땅에 흐르는 수만갈래 내물도
바다에 안겨야 마를줄 모르듯
인생도 바다같은 품에 안겨야
영원한 삶을 빛낼수 있으리

이 땅에 피어난 천만송이 꽃들도
해빛을 받아야 아름답게 피듯
인생도 해빛같은 품에 안겨야

영원한 삶으로 향기를 풍기리
원수님 그 품은 인정의 넓은 바다
참된 삶 꽃피우는 은혜론 해빛
그 품에 자기 운명 맡긴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이 땅에 빛나리
아 영원한 삶의 품이여

가슴저린 10년

홍 민 식

4월이 오니
더해만지는 그리운 마음
우리 탄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던
아버이 우리 수령님

늘 석탄문제로 심려하시며
우리 탄부들이 수고한다고
자신께서 10년만 젊으셨어도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싶다고 하시던
아, 그 말씀 가슴에 맺혀
불을 안고 불같이 살아온 우리

이제는
아버이수령님 뜻을 이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건설을 앞당기시려
현신의 길 걸으시는 우리 원수님을
탄으로 받들고
탄으로 결사옹위할 불타는 마음

탄벽을 마주해도 생각되는 10년
꿈결에도 어려오는 그 10년
발전소굴뚝을 보아도
불밝은 살림집창문을 보아도
그 10년이 떠올라 떠올라

가슴저린 10년
죄책의 그 10년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안고사는 우리들이거니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10년은
우리들의 무한한 정신력
우리들의 심장의 불

그 불

그 정신력으로 캐내는 석탄은
그저 석탄이 아니다
온 나라에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불이다 화약이다

그 불이 채탄기가 되고
그 정신력이 동발이 되어
석탄산을 하늘높이 쌓으려니
조국이며 마음껏 설게하고
마음껏 불바람 안고 비약하고 비약하라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정
갑절로 더해
그 10년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 다하리라
우리 원수님 석탄으로 심려하지 않으시게!

막아서는 시련도 많으리
부족한것도 또한 많으리
애국으로 뚫는 일심단결의 힘
불굴의 정신력으로
우리 만난도 뚫고 나아가리니

원수님 가리키신 설계도따라
인민의 꿈 인민의 소원이
꽃처럼 만발하고만발할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안아오리라

아, 가슴저린 그 10년
죄책의 10년을
비약의 10년
번영의 100년으로 앞당기리라

하늘땅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이여

리 계 심

해빛밝은 창가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 흘러나올 때면
몽클해지는 가슴
걸음걸음 생각에 잠기여라

가는 날 오는 날을 기쁨으로 보내고
새 기쁨으로 맞으며
오늘의 이 행복에 목메일 때면

크나큰 그 품에 안기여라
만민의 태양을 안아올리신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의 품에

—하늘은야 높고
땅은야 넓다
너는 그래 이다음에
하늘땅보다 더 크거라...

아, 그 자장가 부르시며
하늘땅보다 더 큰 사랑의 품속에
어리신 수령님을 안아키우신 어머니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천리길을 떠나보내시며
조국의 아들되기 바라신 그 마음
하늘땅에도 비길수 없으라

어머님의 그 사랑 그 믿음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
깊은 밤 잠든 대원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실 때도
마안산의 아이들을 새옷으로 감싸주실 때도
그것은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 아니었으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민들을 찾으시여
은혜로운 사랑을 베푸실 때도
고생 많으시던 어머님을 생각하시며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 살피주시고
어머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누벼가신 어버이수령님

아, 어머님이 바라신
하늘땅에도 비길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에 기쁨과 행복이 꽃피나고
우리 인민모두 화목하게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이 펼쳐졌으랴

암흑에 잠겼던 이 땅에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위대한 조선의 어머님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

어데 가나 그 어디에서나
하늘땅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
우리에게 주시여라
우리를 키워주시여라!

《단풍》호 너를 따라

함 영 주

달도 없는 밤바다를 누비지 않았다면
이처럼 일찌기 돌아올수 있으랴
멀치떼가 터졌다는 소식에
서둘러 떠난 이 아침

배길에서 만난 《단풍》호
잠긴 선이 보이지 않도록
배머리를 폭 숙이였어도
풍어기 펄펄 마스트우에 날리며
포구를 향해가는 만능선이여

중심어장을 가리키는듯
어서 투망준비 다그치라는듯
고기비늘 허영게 묻은채로
갑판이 들썩 손을 젓는
저 고마운 사람들이 아닌가

한몸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되어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기적의 창조자들
아,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평양에 초청하시여 온 나라 사람들 부럽도록
내세워주신 그 고마움 못 잊어
어로전에 앞장선 어로공들이여

파도소리 바람소리에

뜨겁게 오고가는 화답소리
가려듣지 못한들 어떠랴
통성은 못했어도 한배를 탄듯
뜻이 통하고 정도 통하는 바다사나이들

폭풍에도 끄떡없는
그 큰 심장들엔
포구마다 고기풍년
배마다 만선의 배고동 높이 울릴
마음의 배고동 높이 울렸거니

상봉은 순간
포구로 어장으로
항로는 서로 달라 멀어져가도
봄철 어로전의 모선이이런듯
우리 따르고 선단이 따르고
온 동해가 설레이는 《단풍》호

갈매기 훨훨 어서 가자 날으는 바다
파도를 맞받아 고기떼를 맞받아
배는 전속으로 달린다
어항에 첩첩 이 가슴에 첩첩
만선의 자랑실고 가닿을
그리움의 기슭 기쁨의 포구로
아, 《단풍》호 너를 따라 너와 함께



부시참지

김도환
그림 김광석

1

광란하는 눈보라는 밀림속의 제왕인양 수림을 마구 쥐고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대오는 한줄로 긴 행군중대를 이루고 눈보라속을 헤치며 한치한치 전진해가고있었다.

전령병 명남은 사나운 눈보라의 아우성소리도, 대원들의 숨찬 발걸음소리도 통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기 생각에 빠져있었다.

(지금 주력부대는 사령관동지체를 모시고 기세충천하여 조국으로 가고있겠지. 아마 종호랑 어느 산마루에서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지...)

명남의 눈앞에는 너무 기빠 두팔을 쳐들고 만세를 웨치는 종호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것만 같았다.

(아, 나도 주력부대에 망라되었더라면... 정말 이번 조국진군길에 함께 갔더라면 그렇게 보고싶은 고향땅을 밟아볼지도 모르지. 아니, 고향땅을 밟아보지는 못해도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좋으련만...)

명남의 고향은 동해기슭의 어느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다.

열기, 가재미 등 갖가지 물고기가 옥실거리고 섭조개가 한벌 덮인 도래굴이, 마른 바다나물에 불을 달아놓고 섭조개를 구워먹던 정든 바다가모래터, 하얀 갈매기가 가가 울어대면서 머리우를 빙빙 날아돌고 저 멀리 흰 돛배가 뚝뚝 떠가는 푸른 바다.

정말로 그림고 보고싶어지는 고향땅이었다.

어린시절 피나리보짐을 짊어진 아버지, 어머니손에 이끌려 눈물속에 두만강을 건넌던 명남에게 고

향은 그야말로 보고싶고 그리워지는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품같은것이였다.

그런데 명남은 이번 조국으로 진군하는 주력부대에 망라되지 못했다.

머칠전 남패자의 수림속에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혁명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양양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에 따라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력부대는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고 명남이 속한 부대는 그와 반대방향인 화전현쪽으로 진출하게 되였다.

명남은 처음에 자기가 다른 부대에 속하게 되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고 눈앞이 아찔했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입대해서부터 수년 세월 오직 장군님곁에서 전령병으로 자라온 그였다. 장군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부대생활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여 명남은 처음에 길길이 뛰다싶이 하며 다른 부대론 절대로 안 간다고 딱 뽀대였었다. 눈섭이 시꺼먼 경위대지휘관이 엄하게 타일렀으나 그는 패식을 두끼나 굶으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장군님을 모시고 그렇게 보고싶고 가고싶은 조국 땅에 간다는 그보다 더 큰 소원과 행복이 있을것 같지 않았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룩되지 못했으니 눈물을 흘릴만도 했다.

아마 사령관동지께서 그의 잔등에 손을 얹으시며 것처럼 간곡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명남은 그냥 주력부대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쟁을지도 모른다.

《그래 명남이, 저쪽부대에 어린 종호를 보내아겠나? 사실 이젠 명남이는 구대원이나 같은데... 최

진성련대장을 곁에서 잘 호위해야 돼. 나는 명남이가 이 중요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리라고 믿소.》

명남은 사령관동지의 믿음에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주력부대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사령관동지의 품이 더욱 그리워졌고 종호가 막 부러워지면서 조국으로 가고픈 마음이 하냥 강렬해지는 것을 어쩔수가 없다.

대오는 묵묵히 전진하고있었다. 부대의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최진성련대장의 활기에 찬 목소리만이 침묵이 흐르는 대오우로 이따금 날아올랐다.

《행군속도를 높일것!》

《앞뒤 편결을 보장할것!》

명남은 자기 생각에 너무 골똘하다보니 그만 눈속의 나무그루터기에 걸려 허양 나뒹굴었다.

《어이쿠!》

나무지에 얼굴을 박은 그는 인차 일어나지 못하고 비칠거렸다.

《조심하오. 앞을 잘 살피면서 걸어야지.》

그의 팔을 잡아일으키며 누구인가 등뒤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련대장이였다.

명남이 옷에 묻은 눈을 터느라 헤뎀비는데 최진성이 그의 잔등에서 어쩔사이없이 배낭을 벗기더니 자기 어깨에 슬쩍 걸매었다.

《아니, 배낭은 제가...》

명남이 황급해하자 최진성은 빙그레 웃었다.

《어때, 견딜만 하오? 춥지?》

명남은 련대장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꺾박하게 얼어진 탓에 웃음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힘들지?》

《일없습니다.》

《주력부대동무들을 생각한 모양이군. 그저 사령관동지를 따라 조국으로 가고픈 마음뿐이었지.》

명남은 자기 속을 환히 들여다보는것 같은 그 말에 그만 시무룩이 웃었다.

사실 련대장은 조국으로 진군하는 주력부대에 망라되지 못한 명남이 식사를 두끼나 번지면서 경위대지휘관을 애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이깁나무숲은 성기여지고 붓나무, 쇠스래가 들성들성 들어찬 혼성림이 나타났다. 드문드문 공지가 보였다.

《명남이, 앞으로 나가 중대장동무들한테 전진을 멈추라고 하오.》

명남은 련대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앞으로 내달려갔다. 발밑에서 모진 바람에 다져진 눈이 빠드득거렸다.

휴식이 선포되었다.

명남은 서둘렀다. 전령병은 휴식참에 우선 지휘부의 모닥불부터 잘 피워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는 부지런히 눈무지 여기저기를 헤집으면서 마른 나무가지를 찾았다. 그는 한참만에야 한아름의 마른 나무가지와 서너줌의 마른 나무잎을 움켜쥐고 조금 평평한 곳으로 나왔다.

모닥불을 피울만큼 눈을 쳐낸 그는 숨씨있게 마른 나무로 고깔을 해세우고 그밑에 마른 나무잎을 쭈서넣었다. 그리고 솜옷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부시쌈지를 꺼내었다.

그는 부시쌈지를 이윽도록 들여다보았다. 꽃송이가 수놓아진 비단부시쌈지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그에게 주신것이였다.

어린 나이에 사령부전령병이 된 명남이 처음에 모닥불을 잘 피우지 못한다는것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령병은 우선 모닥불부터 잘 피워야 한다시며 이 부시쌈지를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시쌈지에 들어있는 멋진 강철편부시며 날카로운 차돌부시들이며 마른 쭉임을 봉아서 곱게 비벼만든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부시깃을 꺼내어 손수 부시를 쳐서 불을 일으켜보이면서 명남의 손을 쥐고 부시를 치는 방법을 세세히 가르쳐주기까지 하시였다.

몇번 허탕치던 명남의 손에서 마침내 부시깃에 빨간 불이 달린것을 보시고는 너무 기뻐 환하게 웃음지으시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명남의 눈앞에 친누나처럼 살뜰하고 다정한 김정숙동지의 정다운 모습이 보이는듯싶었다.

《사령부의 전령병은 우선 모닥불부터 잘 피워야 해요. 언제나 모닥불을 잘 피워 사령관동지의 사업을 잘 받들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명남은 그이의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그 부시쌈지를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고 부시치는 방법을 부지런히 익히며 마침내 이제는 부대에서 모닥불을 잘 일구는 선수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진정 부시쌈지는 명남에게 있어서 이제는 제 살불이나 같은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부대의 대원들이 모닥불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면 명남에게 부시쌈지를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 때가 드문했다. 하지만 명남은 제가 직접 부시를 쳐서 불을 달아줄망정 절대로 그들의 손에 부시쌈지를 내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력부대와 헤어지기 전이였다.

련대장이 시무룩해있는 명남을 가까이 부르더니 이윽도록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주력부대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쓴 일을 두고 련대장이 꾸중이라도 하려는가싶어 련대장의 표정을 흘끔 살펴보니 별로 정색해보였다.

《명남이.》

그렇게 부르는 어조조차 그 어떤 간절한 부탁이라도 하려는듯 은근하였다.

명남은 웬일인가싶어 련대장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런대장은 인차 말을 꺼내지 못하고 명남의 기색을 보는듯 하더니 입을 뻗었다.

《명남이, 그 부시쌔지를 가지고있겠지?》

명남은 런대장의 당연한 물음에 의아해하며 《예, 가지고있습니다.》하고 대답하며 자랑하듯 부랴부랴 품속에서 부시쌔지를 꺼내었다.

런대장은 새삼스레 부시쌔지를 유심히 보면서 얼핏얼핏 명남의 기색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부시쌔지에 대한 매력은 런대장도 이미 잘 알고있는터였다.

부시를 많이 쳐본 경험자인 런대장은 이미전에 그 부시쌔지를 보며 《여간만 정성을 넣지 않았군.》하고 중얼거리면서 《이런 좋은 부시를 가지고있어서 명남이 그렇게 사령부의 모닥불을 잘 피운다는 소문이 났겠군. 참 부럽구만.》하고 명남을 칭찬해주기까지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생활에서 불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강조하였다. 성냥이 떨어지거나 습기를 받아서 못쓸 때도 있고 또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너무 세찰 때에도 바로 부시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을 일굴수 있다면서 이런 부시쌔지야말로 보배같은것이라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그러면서도 명남에게 《이 부시쌔지는 정말 귀중한것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품속 깊이 간수하오. 그래서 사령부의 모닥불을 제때에 잘 피우도록 하오.》하고 재삼 당부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일까. 새삼스레 부시쌔지를 제대로 건사하는가 확인이라도 하려는걸까.

명남이 부시쌔지를 쳐들어보이며 런대장의 얼굴을 자랑스레 쳐다보는데 런대장은 여느때없이 간곡한 어조로 말하였다.

《명남이, 이 부시쌔지를 사령부전령병 종호한테 주자구.》

《예?!》

명남은 누가 당장 그 부시쌔지를 빼앗아가기라도 하는듯 런대장의 손에서 급히 부시쌔지를 앗아들었다. 그리고 항변하듯 말했다.

《아니, 이 부시쌔지를 종호한테 주다니요? 말도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그가 늘 이 부시쌔지를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나하는데...》

사실 명남이보다 2년이나 늦게 입대한 종호는 모닥불을 잘 피우지 못해 늘 연기에 진눈물을 짜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인지 모닥불을 잘 피우는 명남의 부시쌔지를 무엇보다 욕심내곤 했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할머니가 떠주었다는 털목도리, 그렇게 귀중히 여기던 그 털목도리까지 명남이한테 내놓으며 부시쌔지와 바꾸자고 했었다.

그러나 명남은 다른것은 다 줄수 있어도 이 부시쌔지만은 절대로 안된다며 딱 잡아떼였었다.

《안됩니다!》

명남은 런대장의 앞이라는것도 잊은듯 단호히 머리를 흔들었다.

런대장은 부시쌔지를 내놓지 않으려는 그의 심정이 심분 이해되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잠시 명남의 거동을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간곡하고 절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명남이,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나? 그 부시쌔지를 왜 종호한테 주라고 하는지...》

런대장의 어조에는 지어 안타까움까지 어려있는 것 같았다.

순간 명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그저 부시쌔지에 대한 애착에만 너무 집착해있었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가 그 부시쌔지를 왜 동무에게 주었는지를 모른단 말인가?》

명남은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 친근한 눈길로 바라보는 런대장에게 머리를 숙이며 죄책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런대장동지, 알았습니다. 이제 곧 종호한테 이 부시쌔지를 넘겨주고 오겠습니다.》

런대장은 그러는 명남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지만 일은 런대장이 바라고 또 명남이 결심한 대로 되지 않았다.

명남은 그달음으로 종호한테 달려가 것처럼 귀중히 여기던 부시쌔지를 서슴없이 내밀었다.

《종호, 이 부시쌔지를 가지고가라구.》

종호는 처음에 눈이 화등잔만 해서 명남을 바라보기만 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그 부시쌔지는 종호가 쥐여보지도 못하게 하던것이 아닌가.

《뭘? 부시쌔지를 가지라구?!》

종호는 부시쌔지를 얼른 받지 못하고 두눈만 껴버려졌다.

《어서 받으라구.》

명남이 진정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그의 손에 쌔지를 쥐여주자 그제야 믿어지는듯 종호는 환성을 올렸다.

《야, 이거 정말!》

그는 너무 기뻐 부시쌔지를 쳐들고 어린아이처럼 빙빙 돌아갔다.

《종호,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사령관동지께 모닥불때문에 절대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해서는 안돼. 알겠어?》

종호는 그렇게 소중하게 품고다니던 부시쌔지를 명남이가 어떻게 되어 자기에게 넘겨주는지를 비로소 깨달은듯 침을 꿀꺽 삼키며 크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때까지는 일이 제대로 되었었다.

그런데 이때 천막에서 나오시던 사령관동지께서 마주서있는 두 전령병에게로 다가오시였다. 아마 두 전령병이 헤어지면서 작별인사를 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신듯 웃음어린 안색으로 두 전령병에게로 다가오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종호 손에 쥐여있는 부

시뻘지를 띄여보시고 물으시었다.

《그건 명남의 부시뻘지가 아니요?》

그러자 종호는 손에 든 부시뻘지를 자랑하듯 내들며 말씀드렸다.

《이젠 제것입니다. 방금 명남동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명남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보내시었다.

《예, 종호한테 줬습니다.》

《종호한테 줬다?... 명남이가 그렇게 아끼던것을?...》

사령관동지께서는 명남의 마음을 헤아리듯 찬찬히 바라보시었다.

《음...》

장군님께서 명남을 그렇게 한참 바라보시더니 뜻밖에도 부시뻘지를 명남에게 돌려주라고 종호에게 이르시었다.

《예?》

종호는 손에 쥔 부시뻘지를 꼭 움켜쥐며 의아한 눈길로 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종호의 잔등을 다정히 두드리주시며 타이르듯 말씀하시었다.

《어서 돌려주라구. 이제 명남인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야 하는 런대지휘부의 모닥불을 잘 피워야 하거던.》

명남은 장군님앞에 나서며 말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이 부시가 아니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불을 잘 일굴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뜨거움에 젖은 시선으로 명남을 바라보시다가 그를 한품에 꼭 그러안아주시었다.

《이번에 명남이의 임무가 무겁소. 모닥불도 잘 피우고 전령병으로서 최진성런대장의 사업을 곁에서 잘 받들어주어야 하오. 알겠지?》

장군님께서 끝내 종호의 손에서 부시뻘지를 받아드시고 명남에게 쥐여주려 하시었다.

명남은 급히 한발작 뒤로 물러서며 도리질했다.

《안됩니다. 이 부시뻘지는 이제는 종호가 가지고 사령부의 모닥불을 잘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최진성런대장동지도 저에게 이 부시뻘지를 종호에게 꼭 넘겨주라고 했는데...》

《뭐, 최진성런대장이?...》

《예, 종호에게 꼭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음-》

사령관동지께서는 부시뻘지를 드신채 한동안 최진성런대부가 자리잡은 숙영지쪽을 바라보시더니 큰숨을 내쉬시고 명남의 어깨를 다정히 끌어안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명남이가 것처럼 받지 않겠다고 뻔대는것을 달래시며 부시뻘지를 명남의 품속에 넣어주시었다.

《명남이, 런대장에게는 종호한테 줬다구 하라구. 알겠지? 런대장이 뭐라구 하면 나한테 밀라

구, 허허.》

명남은 더 뻔뻔수가 없어서 뜨거운것을 삼키며 부시뻘지를 받아들었고 그것을 더욱 소중히 간직해 가지고 돌아왔었다.

그 사실을 런대장은 아직 모르고있을것이다....

사령관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다시금 가슴속에 고래쳐오르는것을 느끼며 한동안 자신을 잊고 서있던 명남은 생각에서 깨어나 서둘러 부시를 내리쳤다.

탁, 탁.

부시깃에 불이 대번에 발갱게 달렸다. 명남은 그것을 쥔채 마른 나무잎에 들이대고는 한쪽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바람을 불어댔다.

순간 마른 나무잎에 불이 달리더니 연기가 치솟아오르면서 불길의 확 일었다.

《명남이 불을 피우는 솜씨가 역시 대단하거던!》

런대장이 감탄하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리었다.

명남은 흠칫하며 저도 모르게 부시뻘지를 감추려고 했다.

명남이의 행동이 이상스레 느껴졌는지 의아한 눈길로 명남을 지켜보던 런대장은 그의 손에 움켜쥔 부시뻘지를 드디어 알아본듯 놀란 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 부시뻘지를 종호한테 주지 않았소?》

명남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떨구며 중얼중얼 대답했다.

《못 줬습니다.》

《왜?》

런대장의 목소리에는 저으기 노기가 어려있는듯 싶었다.

명남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런대장은 안타까운듯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받지 말아야지. ...》

명남은 사실은 자기가 더 안타까왔다는듯 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참, 런대장동지도... 제가 얼마나 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압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저보고 종호한테 줬다고 하라고까지 하시며 기어이 품속에 넣어주시는데야 어쩔수 있습니까?》

런대장도 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뾰 다시었다.

두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2

캄캄하게 펼쳐진 아아한 어둠속의 한가운데에 빨간 점 같은것이 언뜻 피었다 사라졌다.

반디불같은 그 점은 매우 선명하게 바라보였다.

명남은 눈에 신경을 모아가지고 여겨보았지만 그 빨간 점은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반디불인가?》

명남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겨울에 무슨 반디불인가. 자, 명남이, 보오. 또 나타났소.》

옆에 있던 런대장도 이미 그 빨간 점을 본 모양 확정적으로 부르짖었다.

《담배불이요.》

《예?》

명남이 머리를 기웃했다.

《담배냄새가 나오. 한 사오리 될것 같소. 중대장들을 모이라고 하오.》

런대장은 모여온 중대장들에게 명령을 주었다.

《1중대장동무는 대원 3명을 데리고 가보오. 놈들의 숙영지인것 같소. 어디서 오는 놈들인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는것 알아오시오. 다른 중대장들은 전투준비를 갖추시오.》

얼마후 정찰조를 데리고 돌아온 1중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불이 반짝했던 그곳에 일만군혼성 《토벌》대가 숙영하고있는데 병력수는 약 2천명정도 된다고 했다.

놈들을 기습하겠는지, 그냥 수림속으로 빠져들어가겠는지, 놈들의 력량이 런대보다 거의 세배나 되는데다가 놈들의 숙영장소가 습격하기 매우 불리한 개활지대인지라 중대장들은 긴장한 눈길로 런대장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최진성은 더 론의할것이 없다는듯 주먹을 들었다 엇비스듬히 내리치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적들을 족칩시다!》

놈들의 숙영지까지는 한 5리가량 되었다. 부대는 은밀히 적들의 턱밑에까지 다가갔다.

《벼락같이 들이치고 번개처럼 빠지기로.》

런대장이 중대장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놈들은 천막안에 불을 피워놓고 왁작 떠들어대고있었는데 식사중인지 그릇부딪치는 소리도 들렸다.

명남은 최진성의 곁에 붙어서 앞의 천막을 쏘아보았다. 보초병이 서너명 서성대는것으로 보아 적의 지휘부가 들어있는 천막인듯 했다.

최진성은 앞을 쏘아보며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격나팔을 힘껏 부오!》

명남은 신호나팔을 으스스리게 틀어쥐며 입가에 가져갔다.

《땅!》

런대장의 신호총소리와 함께 천막앞에 있던 한놈이 푹 꼬꾸라졌다.

《따따— 따따— 따따따따—》

명남은 나팔을 쳐들어 힘껏 불었다.

최진성런대장은 비호처럼 앞으로 내달렸다. 그

는 보초병들을 다 쏘제끼고 천막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명남이도 런대장의 뒤를 따랐다.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우렁찬 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놈들은 우뢰가 울고 벼락이 떨어진듯이 그저 중풍을 만났것처럼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아마 랑랑한 나팔소리를 듣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주력부대라고 생각하고 더욱 그런것인지 몰랐다.

런대장은 벌써 세놈이나 쏘눅히고 발악적으로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드는 털보왜놈장교의 상판을 권총손잡이로 내리쳤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천막들마다에서 적들의 비명소리가 런달아 울렸다.

런대장이 명남에게 명령했다.

《철수나팔!》

《따따따— 따따따— 따따— 따따— 탄탄》

총탄이 귀전을 스쳤지만 명남은 나팔을 힘껏 불었다.

런대장의 명령대로 부대가 벼락같이 적들을 죽치고 번개처럼 빠진 뒤끝에도 적들은 저희들끼리 총을 쏘아대며 악마구리 뿜듯 했다.

대원들은 그 꼴을 통쾌히 내려다보며 유유히 산등성으로 오르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난 후 최진성런대장은 적들이 뺨히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에서 휴식명령을 내렸다.

일단 적들을 족쳤으니 부대가 수림속으로 쭉 빠져들어갈줄로 생각하고있던 명남은 숙영준비까지 하라는 명령에 저으기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이때 명남은 최진성런대장의 치하를 받았다.

《역시 사령부의 전령병이 달라. 명남의 돌격나팔소리에 적들이 얼마나 질겁했는지 절반 일이 다 나갔더라구. 놈들이 분명 우리를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주력부대로 착각한것 같아. 찢찢매는겉보니, 하하하.》

런대장은 통쾌히 웃어댔다. 명남이도 기뻐서 시원하게 웃어제졌다.

그런데 적들은 너무 혼썰이 나다보니 유격부대를 정말로 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주력부대로 생각했는지 시체를 견어가지고 그달음으로 황황히 꿈무늬를 뻗었다.

산등성에서 유격대원들은 그 꼴을 내려다보며 또 한바탕 웃었다.

그런데 최진성런대장은 몹시 락심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비겁한 놈들, 달아나다니...》

3

그날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기가 조련치 않았다. 사위를 분간할수 없을만큼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

쳤다.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사방에서 나무가 얼어터지는 소리가 쟁 — 쟁 — 요란스럽게 울리었다.

눈보라속에 모닥불을 피우려고 애를 쓰는 한 대원의 주위에 대원들이 모여서 안타까이 서성거렸다.

비상용 딱성냥까지 동원하여 불을 피우려고 애를 태우던 대원이 그만 버럭 짜증을 내었다.

《제기랄, 어찌나 눈보라두 모진지 딱성냥도 안되는군.》

그는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부시를 꺼내들었다.

《부시가 좀 나올가?》

모두가 기대어린 눈길로 부시를 치려는 대원을 지켜보았다.

그 대원이 련속 부시를 내리쳤으나 불은 도무지 일지 않았다.

《허참, 하도 눈보라가 심하니 부시도 불이 잘 일지 않는군.》

대원은 더욱 힘있게 부시를 내리쳤으나 불꽃이 반짝반짝할뿐 도무지 부시깃에 불이 달리지 않았다.

《야단이로군, 불을 피워야 몸도 녹이고 식사도 하지. …》

얼굴에 성애가 하얗게 내불린 대원들이 너무 안타까와하는 소리였다.

그야말로 야단이였다. 이 혹독한 추위속에서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불인데 도저히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

이 정황에서 오직 대원들의 하나와 같은 바람은 자기들의 언뎌를 녹여줄 불, 불, 불!이였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환성을 올리듯 웨쳤다.

《아! 저것 보게. 련대지휘부에서 모닥불을 지펴올렸구만!》

모두가 련대지휘부쪽을 바라보며 환성을 터쳤다.

《야, 이 눈보라속에서도 불을 지펴올렸군.》

《역시 련대지휘부가 다르구만.》

《거참, 소문을 들을라니 지휘부에 새로 온 전령병이 모닥불을 피우는데 선수라더니…》

《선수는 선수인 모양이군, 제일선참으로 불을 피운걸 보니. …》

사실 그들의 말대로 련대지휘부 전령병인 명남이 이 지독한 눈보라속에서 제일먼저 모닥불을 지펴올렸다.

그 부시쌈지에 들어있는 부시와 부시돌, 부시깃을 가지고. 그리고 부시치는 그 솜씨가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던 최진성련대장은 명남을 믿음이 어린 눈길로 이윽히 바라보다가 당부하듯 말했다.

《명남이, 이젠 빨리 각 중대에 나가서 모닥불을 지펴주라구. 지금 모닥불을 피우지 못해서 안타까워들 하고있소.》

《알았습니다나.》

명남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나무가지들을 덧놓고는 급히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불을 피우지 못해 것처럼 안타까와하던 대원들은 달려오는 명남을 마치 석달 가물에 비를 만난 사람 들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남은 품속에서 부시쌈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부시깃을 부시돌에 묘하게 감싸쥐고 오른손으로 껌싸게 부시를 내리쳤다.

탁! 반짝하는 불꽃과 함께 명남의 왼손에서 빨간 불이 나타났다.

부시깃에 불이 달린것이다.

《야!》

둘러섰던 대원들이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단번치기에 성공이로군!》

명남은 불이 달린 부시깃을 재빨리 마른 풀잎속에 들이밀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댔다. 순간 마른 풀잎에 불길의 달린듯 연기가 피졌다.

명남은 그것을 나무고깔을 해세운 밑에 들이밀고 또 입바람을 불었다. 연기가 치솟아오르면서 마른 나무가지에 불길이 확 달라붙었다.

《와!》

대원들의 환성소리가 눈보라의 아우성소리를 누르며 밀림속에 울려야갔다.

《정말 명남동무 모닥불을 피우는 솜씨가 대단하구만!》

《부시가 좋아서 그런가? 부시를 치는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부시도 좋고 솜씨도 좋으니 불을 잘 일구겠지.》

대원들은 누구라없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결에서 언뎌를 녹이며 명남에게 감사와 찬탄의 말들을 건넸다.

《명남동무의 그 부시쌈지가 우리를 뒤통에서 살려주누만.》

《추울 땐 불이 그저 삼촌보다 낫다더니…》

《삼촌이 뭐요, 지금같이서는 불이 어머니뎌이나 같다고 할수 있지.》

명남은 문득 자기에게 이처럼 귀중한 부시쌈지를 안겨준 김정숙동지의 그 사랑에 가슴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고 종호에게 주었던 부시쌈지를 되찾아 자기 품속에 넣어주신 사령관동지의 그 웅심깊은 사랑에 그저 눈굽이 달아올랐다.

(아마 대원들이 이 부시쌈지에 깃들어있는 사연을 안다면…)

명남은 순간 최진성련대장이 왜서 자기를 중대에 내려가 빨리 모닥불을 피워주라고 그렇게 타는듯 한 눈길로 바라보았는지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것 같았다.

명남은 품속에 넣었던 부시쌈지를 꺼내여 대원들 앞에 쳐들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비추이는 명남의 부시쌈지를 대원들은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명남은 대원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부시쌔지에 갇든 패력을 뜨거움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불길에 활활 타올랐다.

명남이 말을 끝냈으나 대원들은 한동안 불빛에 청동조각상처럼 말없이 서있었다.

누구인가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것 같은 웅글은 소리로 한마디 했다.

《아, 그래서 이 모닥불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덥혀주는가.》

누구인가 그에 화답하듯 말했다.

《정말 어머니품인들 이 모닥불의 뜨거움에 비기겠소.》

그날 밤 대원들은 명남이 지퍼올린 모닥불에 언 몸을 녹이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용기백배하여 련대장의 명령에 따라 적들이 도사린 성시를 공격하는 전투에 진입하였다.

4

성시공격전투는 험치 않았다.

적들이 새로 보수한 포대는 견고하기도 하려니와 여러문의 기관총까지 갖추어 요새화되다싶이 하였고 성문 또한 굳건하였던것이다.

대원들은 련대장의 명령에 따라 포대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해나섰다. 포대의 기관총이 어찌나 세차게 불을 뿜어대는지 사닥다리를 타고 성벽위에 올라섰던 대원 몇사람이 굴러떨어졌다.

《수류탄을 뿌려라!》

최진성이 이렇게 웨치며 권총을 높이 쳐들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련대장동지, 위험합니다.》

명남이 밑에서 웨쳤다.

그러나 최진성은 들은척도 않고 어느새 토담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예광탄이 그의 귀전을 스치듯 지났으나 그는 그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명남에게 부르짖었다.

《명남이! 수류탄을 올려보내라구!》

명남은 급히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제 옆구리에 차고있던 수류탄을 내밀었다.

토담안을 내려다보니 가물때 물웅덩이에 울창이 굵듯 많은 적들이 바글바글 끓고있었다. 이리뛰고 저리뛰고 웨치며대 어찌나 소란을 피우는지 미처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련대장이 수류탄을 던지고 명남이와 대원들이 련속 총을 쏘갈겨대자 적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돌격 앞으로!》

최진성이 돌격구령을 웨쳤다. 그리고 명남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돌격나팔!》

《파판— 파판— 파판파판—》

최진성은 명남의 돌격나팔소리에 금시 날개라도 돋친듯이 토담우에서 휘—익 내리날았다.

그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내달리면서 웨쳤다.

《놈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북문쪽에서 적들의 한개 서렬이 총질하며 달려왔다.

명남은 토담에서 뛰어내려 련대장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와— 함성을 지르며 총창을 꼬나들고 달려가던 대원들이 무릎을 꿇고앉아 침착하게 묘준사격을 하였다.

놈들은 쫓무니를 빼면서도 발악하였다.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따라가며 적들을 소멸하였다.

부대는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철수하여 수림속을 행군해가는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명남은 오늘의 승리가 마치 사령관동지께서 되려주신 부시쌔지로 일으킨 모닥불의 열을 안고 대원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운것만 같이 생각되어 은근히 자랑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최진성련대장의 얼굴이 밝지 못했다. 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으니 누구보다 활기에 차서 기뻐해야겠는데 몹시 어둡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대원들은 웃고 떠들며 걸음을 다그치는데 최진성련대장만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묵묵히 걸어가고있었다.

1중대장이 명남이곁으로 다가와서 슬그머니 팔을 잡으며 물었다.

《련대장동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소?》

명남은 머리를 기웃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글쎄 말입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중대장은 매우 불안해하였다.

명남의 뇌리에 문득 전투가 끝난 후 련대장이 포로로 잡은 위만군중대장놈을 심문했던 일이 떠올랐다.

《포로한 위만군중대장놈을 심문한 일밖에 없었는데요.》

《그놈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중대장은 머리를 기웃했다.

그날 밤 련대는 한 30리정도 행군하여 밀림속에 숙영지를 정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흥에 겨워 승리를 경축하여 모닥불 주위에서 노래와 춤판을 벌리었다.

하지만 최진성련대장만은 여전히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있었다.

명남은 모닥불에 조심스레 나무가지를 덧놓으며 묵묵히 앉아있는 련대장의 눈치를 살피고있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련대장은 마침내 무릎우에 놓인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며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중대장들을 다 모이게 하오.》

《알았습니다.》

명남은 런대장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각 중대로 달려갔다.

얼마후 명남의 뒤를 따라 중대장들이 달려왔다.

급히 달려온 중대장들이 런대장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중대장들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을 하고있는 최진성을 바라보며 긴장해서 자세들을 바로가지었다.

이윽하여 최진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동무들, 오늘 포로한 위만군중대장놈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벌써 사령부가 조국으로 진군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지금 적들의 대병력이 사령관동지께서 가시는 백두산일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멸한 적들도 래일 주력부대쪽으로 출동하게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중대장들의 얼굴이 일시에 컴컴해졌다.

(아, 그래서였구나!)

명남은 런대장이 왜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캄캄해지는 그 어둠을 헤가르듯 런대장의 열기띤 목소리가 높이 울렸다.

《우리 조선의 운명이신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동무들도 잘 알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령부에 쏠리는 적들을 우리가 한시바빠 족쳐버립시다.》

《알았습니다!》

중대장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밀림속에 우뢰처럼 울려갔다.

5

그후 사령부대로 쏠리는 적들을 유인하여 족쳐버리는 최진성런대의 가렬한 전투와 행군의 나날들이 연이어 흘러갔다.

엄혹한 추위가 조금씩 풀리고 양지쪽의 눈이 녹을무렵 어느날 런대는 적부대와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맞다들게 되었다.

적들이 역량상으로 유격대보다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있어 싸움은 처음부터 매우 격렬하였다.

최진성런대장과 명남이가 지휘처로 위치하고있는 앞쪽에서 왜놈들의 기관총이 악랄하게 울부짖고있었다.

굵다란 이깔나무밑등에 내뻗친 기관총이 번쩍번쩍 불을 뿜었다. 풀대들이 툭툭 부러져서 땅우에 휘뿌려졌다. 나무뒤에 엎드린 기관총수와 부사수 두놈의 누런 몸집이 푹푹히 보였다.

최진성런대장은 불을 뿜는 기관총을 지그시 쏘아보았다.

《런대장동지, 제가 저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명남은 참지 못하고 자리를 차고 막 일어서려 했다.

이때 런대장이 명남을 눌러앉혔다.

《명남이, 기관총수는 내가 제끼겠으니 빨리 1중대로 가시오.》

《안됩니다, 런대장동지!》

명남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이제 명남인 최진성런대장을 잘 호위하여 사나운 눈보라길을 뚫고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고 하시며 품속에 부시쌈지를 기어이 넣어주시던 사령관동지의 영상이 떠올랐다.

《런대장동지!》

하지만 런대장은 움쭉 일어섰다.

순간 명남은 몸을 일으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때 불시에 한쪽옆구리가 뜨끔해나는것과 함께 명남은 펍 쓰러졌다.

《명남이!》

런대장은 명남을 끌어안았다. 내려다보니 벌써 왼쪽옆구리주위에서 피가 질벅히 배나오고있었다.

중상이었다. 즉시 대원들이 담가를 들고 달려왔다.

그러나 명남은 한사코 담가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런대장은 안타까움에 차서 명령했다.

《빨리 담가에 오르라. 안전한 곳에 가서 치료를 받거요.》

하지만 명남은 도리질하며 애원에 찬 눈길로 런대장을 쳐다보며 떠떠떠 떠 말했다.

《런대장동지... 난 걱정마십시오. 빨리... 놈들부터...》

얼마나 절절한 눈길로 쳐다보며 말하는지 런대장도 그만 더 어찌지 못하고 이마살을 떨더니 자기의 전령병을 이렇게 만든 적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에 닿은듯 산발이 찌렁찌렁하도록 소리치며 권총을 뽑아들고 달려나갔다.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라!》

대원들은 런대장의 명령과 때를 같이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을 웨치며 비호처럼 달려나갔다.

수류탄 터지는 소리, 픽픽 탄알이 귀전을 스치는 소리, 악악 적들이 말악하는 소리...

그러나 그 모든 소음을 누르며 런대장의 웨침소리가 천지를 진감했다.

《동무들! 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자!》

그에 호응하여 대원들이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자! 만세!》하고 웨치며 사태 쏟아지듯이 달려나갔다.

그 무서운 공격앞에 그만 적들도 몰담벽 무너지듯 허물어지고말았다.

드디어 적들은 모조리 격멸소탕되었다.

일시에 전장에 정적이 깃들었다.
런대장은 급히 마른 잔디우에 누워있는 명남에게 달려갔다.

명남은 눈을 감고있었다. 출혈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이 해쓱했다.

《명남이!》

런대장은 피타게 웨치며 조용히 누워있는 명남을 끌어안았다.

런대장의 웨침소리에 명남이 겨우 눈을 떴다.

《명남이!》

런대장의 목멘 부름소리에 명남은 입가에 가까스로 웃음을 떠올리며 물었다.

《적들을... 다... 졌...》

런대장은 급히 머리를 끄덕이며 《응. 응.》하고 대답했다.

명남은 안간힘을 쓰며 손을 가슴우로 가져갔다. 그가 무엇을 찾는지를 잘 아는 런대장은 그의 품속에 깊이 간수한 부시쌈지를 꺼내여 손에 쥐여주었다.

명남은 손에 쥔 부시쌈지를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이윽히 보다가 가느다란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마지막힘을 모아 말했다.

《런대장동지... 이... 부시쌈지를... 종호에게... 꼭...》

런대장은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아니, 아니. 안돼! 명남이, 무슨 소릴 해. 가자. 사령관동지께 가야지.》

그러자 명남의 얼굴에 비졌던 가느다란 웃음발이

환하게 퍼져갔다.

《가고... 풀니다...》

그리고 명남은 머리를 맥없이 툭 떨어뜨렸다.

《명남이!》

주위에 둘러섰던 유격대원들이 와— 울음을 터쳤다.

《명남동무!—》

《명남이!—》

미소를 그리며 눈을 감은 명남을 부르는 대원들의 웨침소리가 온 산밭에 메아리쳐갔다.

×

자욱한 눈안개를 뚫고 천지를 한꺼번에 들었다놓는 눈석이의 퇴성벽력이 터졌다.

우뢰소리는 만주별관으로부터 저 멀리 조국땅에로 장중하게 울려가고있었다.

죽어가는 겨울의 아우성, 승리하는 봄의 노래는 온 강산에 차고넘쳤다.

몇달후 사령관동지께서 거느리신 주력부대가 눈보라만리길을 헤쳐 마침내 조국땅에 진출하여 무산땅에서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리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최진성과 온 런대는 끝없는 열광과 환희에 넘쳐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들의 눈앞에는 못꽃이 다투어 피어나는 그리운 고향산천, 조국강산과 더불어 문득 부시쌈지를 종호한테 꼭 전해달라며 미소짓던 명남의 그 모습이 유난스레 떠오르는것이였다.

가 사

우리의 고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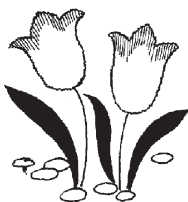
김 령

만경봉의 무지개에 실리어왔나
인민의 만복이 꽃피여날 고운 꿈
푸른 하늘 넘치네 행복의 웃음소리
아 우리의 고운 꿈 원수님 이루어주시네

정일봉의 봄하늘에 비끼여왔나
인민의 만복이 꽃피여날 고운 꿈

푸른 하늘 아득히 기쁨의 노래소리
아 우리의 고운 꿈 원수님 이루어주시네

만경봉의 무지개에 실리어온 꿈
정일봉의 봄하늘 비끼여온 꿈
인민의 만복이 꽃피여날 고운 꿈
아 우리의 고운 꿈 원수님 이루어주시네



힘의 철리속에 밝힌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인간학적 해명

강철국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힘의 위력을 온 세상에 파시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 군민의 가슴에 절대불변의 신념을 새겨주는 또 한편의 장편소설 《힘》(조상호 작)이 나왔다.

류다르게 안겨오는 이 작품의 제목은 그 무엇인가 산악처럼 거대함을 역세게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힘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힘에 대해 말할 때 그 어떤 물체의 변화에 미치는 물리적힘에 대해 논하기도 하고 사람의 정신력과 육체적준비의 결합체로 나타나는 창조적능력에 대해서도 말할것이다. 하지만 장편소설 《힘》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있는 힘, 물리적힘으로서의 그 가치를 논하지 않았다.

소설은 인간의 힘은 무엇에 필요하며 왜 힘이 있어야 하는가를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고 있다.

《서장. 잠들수 없는 령혼들》, 《제1편. 전쟁은 어느때 일어나는가》, 《제2편.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다》, 《종장. 우리의 힘》으로 구성된 소설은 힘과 인간의 운명, 힘과 전쟁, 힘과 승리, 힘과 민족 등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점층적인 논거로 줄기차게 끌고나가면서 나라와 민족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와의 관계속에서 밝히고있다.

소설은 주인공 안동수의 아버지 안덕삼의 피의 절규가 메아리치는 서장에서 나라를 찾고저 죽음을 각오하고나선 이 나라 백성이 어찌하여 그 높은 독립의지, 그 어떤 원수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송죽같은 절개를 피눈물의 원한의 절규속에 묻어야 했는가를 력사의 교훈으로 심각히 보여주고있다.

《…

아, 아— 분하구나, 원통하구나.

기관총도 하나 없이…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도 힘이 없느냐. 왜, 왜…

저런 갈지도 않은 쪽발이들한테… 이렇게 망하다니… 아, 조선아, 조선아…》

이렇게 서장에서부터 힘은 왜 키워야 하는가, 민족의 운명을 지킬 힘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 나라 독립군운의 운명을 통하여 심각한 철학적문제로 제기한 소설은 해방된 새 민주조선에 다시금 조성된 전쟁의 위기와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환경을 력사무대로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주인공의 아버지의 피의 절규를 통하여 민족을 지킬 힘, 총대의 힘을 중요한 형상과제로 한 소설은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혁명무력건설을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땅크부대를 창설하시고 무적의 철갑대오, 조국수호의 굳센 방패로 키워주시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안동수의 운명선을 통해 깊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새 조국건설에 한몸바칠 애국열의를 안고 사랑하느 부모처자를 남겨두고 조국에 나온 안동수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를 평양학원 교원으로, 《조선인민군》신문사 책임주필, 땅크려단 문화부려단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대해같은 사랑속에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나는 그의 성장선은 그대로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를 이룬다.

마치도 안동수의 자서전을 보는듯 한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가장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력사적사변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힘과 전쟁이라는 형상과제를 생동한 화폭속에서 해명하고있다.

그러나 강자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힘만이 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의 힘이 낳은 기적의 힘이라는것이 소설이 밝힌 명백한 결론이다.

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소설은 주인공의 운명선에 복종되는 여러 인물선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병사들의 정치사상교양을 책임진 문화부려단장이라는 주인공의 위치로부터 자연스럽게 얹혀지는 여러 등장인물선을 통하여 작품의 극성을 조성하면서 보다 줄기차게 전진시키고있다.

실례로 한세곤의 운명선, 한계천의 운명선에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탓에 우리 인민이 겪었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재현시키면서 계급의 총대, 인간운명수호의 힘에 대한 주제해

명을 미체와 일본반동들에 대한 높은 계급의식문제와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밝히고있다.

이런 립체적인 기타 인물선의 리용은 이야기줄거리를 주인공의 자서전적인 운명선을 따라 발전시키면서도 높은 계급의식을 반영할것을 요구하는 소재적특성에 맞게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보다 생동한 생활화쪽으로 재현시키고있다.

여기에 구체적인물들의 운명선과 주인공의 운명선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첨예한 힘의 대결장에서 민족의 운명수호의 힘, 총대의 힘에 대한 력사의 진리를 극적과제로 제기하고 해명한 구성의 립체미가 있다.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 소설의 립체적인 구성이 안고있는 형상과제이다.

소설은 이 철학적인 문제를 형상의 매력과 진실성을 담보하는 인간성격형상에 이바지한 사건조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자기 운명수호의 힘, 혁명의 총대의 위력에 관한 문제를 가장 과학적인 혁명의 철리로 밝히는데 이바지하는 주요인물들의 성격형상을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이바지하도록 더 력점을 찍어나가고있는것이다.

땅크려단장 류경수, 민족보위성 부상 겸 국장 김일, 참모장 리영복, 문화부대대장 방철호, 땅크운전수들인 전기련, 한세곤, 한계천은 물론 적대인물 황대걸 역시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불길을 헤쳐온 류경수, 김일은 주인공이 언제나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삼아야 할 인물형상이다.

안동수는 류경수의 사고방식, 사업기풍에서 항일의 나날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수령님식, 빨찌산식을 배우려고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평양학원에서 교원으로 사업하던중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그 순간은 주인공의 운명선에서 뚜렷한 매듭을 이루면서 그후 그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오직 항일투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 늘 사색하며 병사들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의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을 전면적으로 보여줄뿐아니라 그의 성격적기질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실례로 건국실사건으로 《열이 빠진 녀석》으로 된 방철호는 군의소 라정순중위에게도 《주대없는 사람》으로 랑대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으로 주인공은 엄격한 검토를 받으며 더욱 자기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 방철호는 우리 인민군대가 과연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된다.

그런가하면 전기련이나 한계천의 땅크전복사건은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높은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는 인간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진실한 생활화쪽으로 묘사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건국실사건이나 땅크전복사건은 매 인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건국실사건에서 주인공 안동수가 반쏘분자로 락인되는가, 견실한 혁명가로 되는가 하는 운명적인 문제를 안고있다면 방철호 역시 《홀레브냄새》가 나는 열이 나간 녀석으로 평가받고있는 조건에서 혁명군대지휘관의 자격을 잃는가, 아니면 지키는가 하는 운명문제를 안고있다.

또한 전기련이나 한계천이에게 있어서 땅크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전투기재만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힘이였다.

하기에 그 무쇠철갑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 자기 운명수호의 힘을 키우는 과정은 자기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힘겨운 투쟁이였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 식, 우리 식의 주체전법을 창조하는 과정이였다.

방철호만 보아도 건국실사건으로 안동수와 허가이, 박영옥, 라정순 등의 인물들과 극적인 운명관계를 맺고 그야말로 땅크병답게 적의 아성으로, 처녀의 심장속으로 용감하게 돌진하는 억센 투지를 가진 개성적성격을 체현하고있다.

또 덤배북청 전기련이나 한계천 등 병사들의 영웅적성격미는 자기자신의 힘을 믿을 때 불가능도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힘이 일어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면서 자주적인간의 힘은 무한대이며 이 무적의 힘이 전승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음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또한 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힘은 누구보다 발휘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이것은 참모장 리영복과 안동수, 류경수와와의 성격차이를 보여주는 땅크진출사건이다.

아직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끊어진 철교를 통한 땅크진출을 놓고 절대로 진출시킬수 없다고 주장하는 리영복의 론거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포로되어 땅크사고를 일으킨 전기련에 대한 낯은 사고관점의 연장파 병사들의 힘에 대한 물리해로부터 오는 웅당한 귀결이다.

하지만 안동수나 류경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는 심오한 진리를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였기에 병사들의 위훈을 의심치 않

은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미를 진실하게 창조함으로써 자기 운명수호, 민족수호의 힘의 원천을 보다 철학적으로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한 사건조직과 성격형상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다.

이처럼 소설은 사건조직이 성격형상에 철저히 복종되면서도 개성적인 성격창조의 생활적기초가 되게 하고있다.

우리의 힘은 장군님이시다

소설은 형상생리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구성요소를 종자를 철학적으로 꽃피우는데 집중시키고있다.

기둥이 바로서지 못한 집은 무너지기마련이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묘사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을 잘 엮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으로 작품이 뒤집히고만다.

작품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것과 함께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소설의 종자는 무엇인가. 작가는 마지막 절정장면에서 작품의 핵을 이렇게 밝혔다.

《참모장동무, 우리에겐... 힘이... 있소... 우리... 힘은... 김일성장군님이시오. 장군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그간... 미제가 뭐겠소... 장군님은... 우리... 승리요... 장군님만 잘 모시면 우린... 영원히... 이기오...》

우리의 천만국민이 영원히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해야 할 혁명의 이 철리를 풍부한 생활화폭속에 철학적으로 꽃피운 작품의 감정조직은 여기서 최절정을 이룬다.

힘의 철리속에서 민족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절정장면과 더불어 가장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모든 감정조직이 생활론리, 성격론리에 맞게 치밀하게 짜인데 있다.

소설의 감정조직에서 작가가 놓치지 않은것은 매 인물들의 심리적효과를 잘 리용한것이다.

작품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자기나름의 심리적고충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감정조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실례로 서용숙의 감정선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자기를 애타게 찾아도 전혀 낮모르는 사람으로 대해야 하고 자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파도 갈수 없으며 자기에게 혈연의 정을 부어주며 새생활을 시작할것을 바라는 주인공에게도 진심을 말할수 없는 모대김의 복잡한 심리적굴곡을 가지고있다.

서용숙의 내면심리의 고충속에서 펼쳐지는 이 다양한 감정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일하려는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침략의 불을 지른

미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더욱 깊이 깔아주고 있다.

감정조직에서 인상깊은것은 또한 인정심리선을 잘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사이의 인정심리선을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인간학적요구를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안동수의 어린시절은 물론 동생 금덕의 어린시절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정, 인정에 주려온 고행길이다.

이로 하여 부모형제, 처자에 대한 정은 남다른것이다. 소설은 주인공과 안해와의 관계를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으로 풀어나가면서 멀리 이역땅에 두고 온 부모처자에 대한 그 강렬한 그리움의 선에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하고도 뜨거운 인정선, 사랑선을 겹놓아줌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간애의 세계속에 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더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부모처자들을 생각할 자기를 넘려하시여 몸소 류경수려단장이 집에 데려가 자신을 대신해서 설을 쇠게 하도록 다심한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김정숙동지께서 계시지 않는 처택에 부르면 오히려 안동수가 피로와할것 같다시며 친부모의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세계속에서 주인공은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 조선의 힘, 우리의 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의 사랑과 정에 대해 너무도 뜨겁게 체험한 주인공이기에 이 소중한것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내던것이다.

바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과 정으로 병사들을 걸음걸음 품어안아 주며 언제나 돌격전의 앞장에서 한몸으로 막아주는 주인공의 모습에 대한 등장인물들과 독자들의 감정선으로 절정장면을 잘 조직하고있다.

주인공의 최후로 하여 최절정에 이른 작품의 내용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확신의 감정흐름을 종장으로 이끌어 처자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으로 소설의 마감을 장식함으로써 작품의 종자를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즉 우리의 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며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서만이 가장 위력한 혁명의 총대, 민족수호의 총대가 굳건해진다는 력사의 철리를 가장 숭고한 흠모의 감정선에서 밝히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조국과 민족을 지킬 총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감정흐름을 탁월한 령장을 모신 조선의 행운에 대한 감정으로 상승시켜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힘, 무진막강한 총대는 곧 위대한 선군령장을 잘 받드는 길에

철령아래 사과꽃바다여!

방 금 석

단풍이 곱게 물든 철령
굽이굽이 령길을 달리던 야전차
어이하여선가 우리 장군님
문득 령길우에 차를 세우신다

나의 병사들이 기다린다고
최전연초소를 찾아
령길을 달리시던 장군님
눈덮인 지난 겨울의 철령을 그려보시는가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

아, 그이의 시선이 닿은 곳은
령길아래 펼쳐진 사과바다
곧게 뻗은 파원길따라
사과 실은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
장군님안팎에선 기쁨이 일렁이거니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못 잊을 추억으로 솟은 철령
철령은 조국수호의 최전방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의 불멸의 탑!

허나 어이 다 알았으랴
그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인민의 행복을 지켜신
위대한 아버지

우리 어이 다 알았으랴
조국수호의 결전장을 달리시면서도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선
조국과 인민이 부강할
행복의 씨앗이 언제나 움트고있었음을

고난의 그 나날에도
령길을 오르시며 펼치신 구상
령길을 내리시며 남기신 사랑
그것이 꽃피고 열매맺은
아, 철령아래에 펼쳐진 사과바다여

가슴속에 사무치는
그 만단사연들이
울긋불긋한 사과알들에 비껴
파도마냥 파도마냥 가슴에 흘러들어
그이는 가시던 길 멈추셨으리

이 가을을 붉게 물들이는
파원을 굽어보시며
장군님은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땅
이 강산에 태동하는
강성부흥의 무르익은 가을을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보셨거니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전방
병사들의 전호결에 파원을 꾸려주신
장군님의 깊고도 뜨거우신 심중이여
군사작전도에
행복의 무릉도원을 그려주신 높으신 뜻이여!

행복이라도 행복이라도
선군이 꽃피워준 행복이 영원하고
바다라도 사과바다라도
선군이 펼쳐준 사과바다가 영원하여
장군님 바라보신 사과바다여
축복받은 철령아래 사과바다여!

.....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러한 묘사형상의 비결은 작가가 형상생리의 요구에 맞게 대상의 세부를 인상깊게 살려내려는 창작적사색의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장편소설 《힘》의 묘사대상들이 홀

륭히 창조될수 있는것은 작가의 묘사대상에 대한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창작적사색과정에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묘사형상의 철학적깊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박은 웃음

리 기 창

1

눈부신 아침햇빛이 아빠트창문에 비쳐들었다. 리정희는 신발장에서 자주색구두를 꺼내놓고 술질을 하려다가 무춤하였다. 이미 구두를 윤기나게 닦았을뿐 아니라 뒤축에 굴쭉같이 생긴 덧창까지 댄 것을 보았던 것이다. 정희는 그것이 지난날 신발수리소에 다니다가 지금은 홍구두공장 자재창고원을 하는 어머니의 솜씨임을 직감하였다.

어머니두 참, 아직 뒤축이 닳지도 않았는데...

그 구두는 그가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홍구두공장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온 후 수입자재인 생고무가 적게 들도록 파고무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기술혁신한것인데 원가를 낮추면서 그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후 그는 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에 참가하는 영예까지 지녔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출근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이 어루만지며 불어왔다. 정희는 파릇파릇 돌아나는 잔디며 앞을 다투어 꽃망울을 터치는 갖가지 꽃들로 화창한 봄풍경을 펼친 거리를 지나 어느덧 홍구두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이때 그는 접수실앞에 서있는 한 청년을 띄어보았다.

검은테안경을 낀 갱뿔한 얼굴, 고집스럽게 보이는 두툼한 입술, 체육선수처럼 균형잡힌 체격...

분명 어디선가 본듯 한 모습이다.

어디서 보았을까? 내가 경공업대학을 다닐 때 보았는가? 아니면 열성자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그의 아리송한 기억은 제화직장에 들어서서 자동흐름선을 타고 줄지어 흘러나오는 구두창을 손에 쥐고 살펴볼 때 불현듯 실마리가 잡혀졌다.

...이태전 대학시절 방학기간에 집으로 내려왔을 때였다.

어느날 어머니가 지난날 아버지가 창안한 구두들이 도에서 열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 출품되었으니 어서 가보라고 정희의 등을 떠밀었다. 전

시장으로 달려가보니 도안의 지방공장들에서 생산한 갖가지 소비품들과 함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홍구두공장 기사장사업을 하면서 창안제작했던 구두들이 진렬되어있었다.

정희는 눈뿌리가 시큰해졌다.

참관자들은 구두의 모양과 질도 좋지만 다른 구두보다 가격이 훨씬 낮다고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었다.

정희는 정말 기뻐다.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창조물을 내놓을테야!

정희가 가슴부풀어오르는 긍지와 결의를 안고 전시장입구로 걸어오는데 해설원녀인이 전시품을 본 의견을 적어달라고 하면서 어느 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검은테안경을 끼고 대학생복을 입은 한 청년도 무엇인가 써놓고 일어서는 참이였다. 그리로 다가가 원주필을 뽑아들던 정희는 방금 그 대학생이 써놓은듯 한 글의 내용에 시선이 멈칫했다.

《홍구두공장에서 생고무원료에 파고무를 배합하여 구두창을 만든것은 매우 실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를 심화시켜 수입자재를 쓰지 않고 100프로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구두창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원가도 적게 들고 더 많은 구두를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그런 구두를 신고다니는 주민들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피어날것입니다.

××화학공업대학 5학년 최일》

정희는 아버지가 불치의 병으로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심혼을 깡그리 바쳤던 창조물에 그런 의견을 제기한 초면의 그 대학생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불시에 치밀어올랐다.

어쩌면 이럴수 있단 말인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멀어져가는 대학생을 떨리는 눈길로 한참 쏘아보던 그는 충고를 주고싶은 충동으로 몇걸음 내짚다가 무르츠했다.

초면에 너무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울적한 기분에 잠겨 집으로 돌아온 정희가 그 사연을 터놓자 어머니는 안색을 흐리며 말하였다.

《그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언젠가 생고무를 전혀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만 폭발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마나, 폭발사고를요?!》

정희는 문득 눈앞에 어느 영화에서 보았던 폭발 사고장면이 떠올라 몸을 흠칫 떨었다.

《그래서 아버지진 파고무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성공시켰다더구나. 아마 그 대학생은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그랬을테지...》

그러나 정희는 대학에 다시 올라가서도, 3대혁명소조원이 된 후에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창안했던것보다 생고무원료를 적게 쓰도록 할수 없을가 끊임없이 모색하던 끝에 폐유를 첨가하는 방법을 찾아 성공했던것이다.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정희를 열렬히 축하했다.

정희는 이번엔 우에서 받아오던 고무풀을 자체로 만들 새로운 기술혁신에 전념하고있었다.

헌데 오늘 뜻밖에도 공장에 찾아온 최일을 알아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저으기 산란해지었다.

그 동무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연구소나 공장, 기업소에 배치되었을텐데 오늘 여기엔 왜 왔을까? 혹시 그때처럼 또 무슨 의견을 제기하려고 온것이 아닐까?

착잡한 생각을 굴리며 정희가 현장밖으로 걸어가는 데 구두포장함이 실린 밀차를 끌고가는 제화공처녀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참, 지배인동지가 전국경공업대회에 참가한다지?》

《오늘 떠나신다나봐...》

《야, 전번엔 정희소조원동무가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에 참가하더니 정말 우리 공장에 자랑도 많이 생기누나.》

《아무렴, 자랑이지!》

정희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자 불현듯 오늘 김수옥지배인이 평양에 간다는것을 상기하고 지배인실로 향했다. 자기가 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금치 못하던 지배인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오늘 지배인이 떠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으니...

정희는 행정청사계단을 한계단 넘겨짚으며 2층복도로 올라갔다. 헌데 지배인실에서 나오는 최일을 띄어본 정희는 못박힌듯 굳어졌다.

지배인실에 왜 찾아왔을까?

종잡을수 없는 의혹이 다시금 갈마들었다.

최일은 지배인을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떨군채 정희옆을 지나가는것이였다.

정희는 그가 계단아래로 내려가는것을 본 다음에야 지배인실에 들어갔다.

연청색옷에 파마머리를 한 지배인의 모습은 40고개를 넘어서 나이에 비해 펴 젊어보였다.

《지배인동지, 오늘 떠나신다지요? 축하합니다.》

정희가 인사를 하자 지배인은 등실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소조원동무랑 도와주었기때문이지.》

《아이참, 필요... 저, 방금 최일이라는 청년이 왔겠습니까?》

정희의 느닷없는 물음에 지배인은 그 동무와 아는 사인가고 되물었다.

《아는 사이라기보다...》 하고 갑자르던 정희는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때 있었던 사실을 터놓았다.

《그 동무가 그런 의견을 써놓았던 말이지...》

지배인은 혼자소리로 뇌이며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 또 그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던가요?》

정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으나 지배인은 입을 다물고 고무나무화분에 물을 주는것이였다.

정희는 지배인의 그늘진 안색을 보아 최일이가 온당치 못한 말을 했으리라고 짐작하였다.

《혹시 저한테 말 못할 애긴가요? 제가 참작할 의견이라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한걸음 다가서며 안타까이 말하는 정희의 목소리에 더는 대답을 피할수 없다고 생각한 지배인은 최일이 찾아왔던 사연을 숨김없이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2

오늘 아침 김수옥지배인이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방에 들어설 때 전화종이 울렸다.

공장정문에 재료연구소의 최일이라는 연구사가 찾아왔다는것이였다.

《들여보내세요.》

얼마후 검은테안경을 낀 낯선 청년이 탄력있게 들어왔다.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그는 신분증을 내보이며 인사를 하였다.

《연구사동무가 어떻게 우리 지방구두공장엘 왔어요?》

김수옥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를 여겨보았다.

《제 론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 공장에서 받아들이겠다면 실현시켜보려고 왔습니다.》

최일은 책상우에 두툼한 론문을 내놓는것이였다.

결표지에서 《염화비닐계열가소성탄성체에 의한 구두창제조》라는 제목을 본 김수옥은 저으기 놀랐다.

2년전 공장기술혁신조에 있던 최섭이라는 기술자가 생고무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염화비닐계열가소성탄성체로 구두창을 만들 혁신안을 내놓았던 일이 문득 떠올랐던것이다.

그때 최섭아바이는 실험도중에 그만 폭발사고를 일으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락심하지 않은 그는 퇴원후에 다시 해보려고 제기했으나 기사장이던 정희 아버지가 두번다시 승인할수 없다고, 단념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공장에 가서 하라면서 거절했다.

실망어린 눈길로 기사장을 바라보던 최섭아바이는 가슴이 꺼질듯 한숨을 쉬더니 사직서를 내고 공장을 떠나버렸다. 그후에 알아보니 종합편의로 옮겨가 신발수리를 한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 최일연구사가 그런 논문을 가져왔으니 놀랄수밖에 없는 지배인이였다.

혹시 최아바이의 아들이 아닐가 하는 예감이 들어 그를 눈여겨보니 갱퐁한 얼굴과 두툼한 입술이 최섭의 모색을 닮은듯싶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장기술혁신조에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일순 최일의 낯색은 빨개지였다.

《웁습니까? 그리고 이 논문을 보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것 같군요.》

《아닙니다. 아버지 그걸 불태우자고 했습니다.》

《불태워버리다니요? 왜요?》

김수옥이 논문을 번져보다가 눈길을 들자 최일은 고무나무화분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래전 공장을 떠난 후 아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혁신안문치를 부엌 아궁에까지 집어넣었더랬습니다. 그런걸 제가 간수했다가 이렇게 보충한겁니다.》

《그랬더군요. 헌데 아버지 동무가 오늘 여기로 오는걸 아시는가요?》

《제가 이 공장에 온다는걸 말하면 응하지 않을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김수옥의 가슴은 뭉클했다.

지난날 아버지가 포기한것을 기어이 실현시키려는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아들이 아닌가! 뜨거운 눈길로 최일을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는 문득 정희소조원의 모습도 떠올랐다.

정희소조원 역시 아버지의 창안품을 보다 실리성 있게 완성시키지 않았는가. 얼마나 진취적이며 미더운 새 세대들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복하던 그의 얼굴엔 느닷없이 어두운 그늘이 지였다. 만약 최일의 논문을 받아들이는다면 정희소조원이 기술혁신했던 생산공정을 어차피 해체하고 그 대신 새 설비를 놓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한동안 가슴을 저미는 번거로운 생각에 흠칫해 서있던 김수옥은 무겁게 말꼭지를 떼었다.

《연구사동무의 심정은 알겠으나 지금 우리 공장에선 한 3대혁명소조원이 기술혁신하여 종전보다 생고무를 훨씬 적게 쓰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두생산을 정상화하고있어요. 그러니 안됐지만 이 논문은 다른 구두공장에...》

문득 최일의 실망어린 눈빛을 감촉한 김수옥은

말꼬리를 돌렸다. 《아마 제화직장에 가보면 제 말이 리해될거예요...》

《그렇다면 생산현장을 보겠습니다.》

론문을 집어든 최일은 문밖으로 나갔다...

김수옥지배인은 떠날 시간이 되였는지 손목시계를 보더니 정희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생산공정을 돌아보면 그 동문 내 의견대로 할거예요. 그러니 걱정말아요.》

속눈섭을 내리깔고 잠잠히 서있던 정희는 지배인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고 방에서 총총히 나왔다. 그의 심중은 연추가 매달린듯 사뭇 무거웠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최섭아바이사이에 엮혔던 불미스러운 사연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때 만약 아버지가 최아바이의 혁신안을 끝까지 도와와섰다면 그가 그렇게 공장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래서 최일도 아버지의 창안품에 대해 그런 의견을 제기한것이 아닐가?! 더구나 오늘은 논문까지 가져왔으니...

삼거웃처럼 엮히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청사밖을 나선 정희는 맞은편 제화직장에서 고개를 수긏하고 터벅터벅 걸어나오는 최일을 보았다.

지배인동지의 의견대로 생산현장을 돌아본게로구나. 어떤 결심을 했을가? 아무튼 직접 만나서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느닷없이 고패치는 마음의 파동을 눅잡히지 못한채 그를 마주 향해 걸어가었다.

《안녕하세요. 재료연구소에서 오셨는지요?》

그제야 고개를 든 최일은 안경테를 추스르더니 정희를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누군지 저를?...》

《이 공장 3대혁명소조원이에요. 방금 지배인동지한테서 연구사동무가 온 사연을 들었어요.》

《그러니 구두창제조를 새롭게 창안했다던 소조원동무로구만요. 나도 생산공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연구사동문 생고무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연구안을 가져왔다면서요.》

정희는 그가 든 밤색가방에 호기심어린 눈총을 박으며 물었다.

최일은 모두숨을 후- 내뿜더니 불만스러운 어조로 대꾸하였다.

《헌데 지배인동진 현존성과에 만족하는것 같더군요. 그런 관점으론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없을거요. 소조원동무야 그러지 않을테지요?》

《글쎄요. 저, 실례이지만 그 논문을 저에게 보여줄수 없을가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최일은 서슴없이 가방에서 논문을 꺼내주었다.

《자, 우리 사무실로 가자요.》

정희는 2층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그동안 전 다른 직장을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희는 그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

졌다. 다른 소조원들은 현장에 나갔는지 방은 비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논문을 한장 두장 번져보기 시작했다.

이윽하여 그의 쌍꺼핀 눈은 생기를 띠고 반짝이기 시작하였고 가슴은 견잡을수없이 쿵쿵 방아질을 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논문에는 생고무대신에 염화비닐로 구두창을 제조할 과학기술적담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었던것이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100프로 국산화를 실현하겠구나! 이걸 전례없는 혁신이야!

경탄을 금치 못하며 논문을 번져가던 그는 문득 마감부분에 눈길을 박은채 목각처럼 굳어졌다. 의외에도 구두창의 유연성이 부족한 요소를 포착한 것이다.

그 동무도 논문에 이런 약점이 있다는걸 알텐데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해 이대로 완성하고말았을가?

마음 한구석이 불시에 허전해짐을 의식하며 마감부분을 다시 음미해보는데 문기척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것은 최일이다.

보매 사뭇 흥분된 기색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정희는 그에게 의자를 가리키고 보온병의 물을 고뿌에 담아주었다.

최일은 고뿌의 물을 걸탐스럽게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논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기대감이 어린 그의 눈빛을 피하듯 정희는 논문을 번져보며 망설이다가 논문의 장점과 함께 구두창유연성의 부족점을 숨김없이 말해주었다.

그의 의견을 묵묵히 듣던 최일은 도리머리를 하며 변명하였다.

《생고무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조건에서 그럴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감을 주는 구두를 신고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어날가요?》

《밝은 웃음이라구요?!》

최일은 저으기 놀라며 그 말을 뇌이였다.

그의 기억을 튕겨주듯 정희는 감회어린 눈길을 창문너머로 돌리며 담담히 말했다.

《연구사동문 대학시절에 이 공장에서 인민소비품전시회에 출품했던 구두에 대해 그런 의견을 써놓았었지요?》

《소조원동무가 그걸 어떻게?!》

일순 전기에 감전된듯 최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도 그날 전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동무가 써놓은걸 보았했어요. 그런데 오늘 연구사동문...》

말끝을 잇지 못한채 입술을 감쳐무는 정희를 뚫어질듯 바라보던 최일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의 물을 따라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대론 받아들일수 없다는겁니까?》

《그래요.》

《이제 보니 소조원동문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미련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배인동지의 의견대로 제가 기꺼이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구요?!》

몰리해당하는 설분이 왈칵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되는가를 알 때가 있을거요.》

최일은 제잡담 말을 내뱉듯 하고는 논문을 가방에 와락 집어넣더니 문밖으로 뿔 나갔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듯 초연히 서있는 정희의 가슴에 멀어져가는 최일의 발자국소리가 아프게 마쳐왔다. 정희는 오열을 삼키며 얼굴을 싸전채 무너지듯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3

정희는 최일이가 떠나간 후 마음의 안정감을 좀처럼 가질수 없었다.

논문을 들고왔던 최일의 모습과 함께 지난날 아버지와 최섭아버이사이에 벌여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밟혀왔다. 그러고보면 몇년전 아버지들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 자기와 최일의 대에 와서 다시금 제기된셈이 아닌가. 물론 최일연구사가 그냥 돌아갔으니 더 이상 원심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정희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무엇때문일까?... 최일연구사가 나의 진심을 자기나름대로 억측한채 떠났기때문인가, 아니면 나도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고있지 않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일까?...

정희는 소조사무실창가에 서서 바람결에 휘느적이는 수양버들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생각을 굴리었다.

지난날 아버지때문에 최섭아버이가 공장을 떠난 것처럼 오늘은 최일연구사도 그렇게 떠난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정희는 불현듯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에 참가했던 일을 상기했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일촉즉발의 준엄한 그 나날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하시고 뜨거운 은정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이 고마와 나는 실력과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내가 그날에 다진 맹세를 순간이나마 망각하고 그 어떤 사심에 사로잡혀 동요하거나 주저했다는면 어떻게 3대혁명전위의 본분을 지킨다고 할수 있으랴.

가슴저미는 자책감으로 입술을 피지게 감쳐물던 정희는 최섭아버이를 만나보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그는 송수화기를 들고 지배인실을 찾았다. 응답이 없었다. 그제야 지배인이 평양으로 떠났으리라는것을 의식했다.

그럼 누가 최섭아버이의 행처를 알수 있을까?

신발수리공을 하시던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이런 생각이 뇌리를 치자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자재창고로 부리나케 반달음쳐갔다.

전표를 정리하던 어머니는 숨가빠 들어서는 딸을 보자 사뭇 놀라며 왜 왔느냐고 물었다.

《어머닌 여기 기술혁신조에 있다가 종합편의로 옮겨갔다는 최섭아버이가 어느 신발수리소에 다니는지 모르세요?》

딸의 느닷없는 물음에 어머니는 도리머리를 하며 갑자기 그건 어째서 묻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희는 흰서리가 듬성듬성 앉기 시작한 어머니의 머리칼을 살며시 비다듬어주며 오늘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의 낯색은 비구름이 덮인듯 흐려졌다.

《애야, 그렇더라도 네가 중뿔나게 나설 건 뭐냐. 굵어 부스럼을 낸다고 공연히 아버지의 명예나... 그래서 지배인두 그 연구사더러 다른 공장에 가보라구 했을게다.》

《어머니, 그러나 저는...》하고 정희가 자기의 진심을 터놓으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어성을 높였다.

《팬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할 생각 말아라. 그런데다 신경을 쓰려거든 우에서 받아오던 고무풀이 떨어저가는데 그 문제나 좀 어떻게 풀어보려무나.》

《?!...》

어머니의 엄한 질책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이때 녀인들이 낡은 신발바닥을 선별해가지고 법석 떠들며 창고로 들어오는통에 정희는 더 말을 못하고 창고에서 나왔다. 어느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하고 걸었다.

가슴을 아프게 허비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냥 귀전에 울려오는듯싶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의 공적은 물론 나의 창안품마저... 그렇다고 나머지 외면한다면 어찌겠나요?...

정희는 봄비로 차분히 젖는 구내길을 밟으며 여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때 《소조원동무-》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분석공처녀가 실험실앞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전날 밤 자체로 제조해본 고무풀을 분석하라고 맡겼던 일을 상기했다. 분석공처녀가 주는 분석표를 받아 들고 더듬어보니 고무풀의 점착성이 기준치보다 낮았다. 이런 고무풀로 구두를 붙인다면 얼마 신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 아닌가. 고무풀을 만들 때 생고무를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때문일까? 그렇다고 지금 구두창을 생산하는데도 생고무가 들어가야 하는데 고무풀제조에까지 그걸 섞을순 없지 않는가.

정희는 맥플린 걸음으로 실험실에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공장구내에 심은 잔디와 꽃 나무들이 봄비를 머금고 생신한 빛을 뽐냈다.

하건만 정희의 낯빛은 침울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무풀점착성을 높일 방도가 묘연했다.

비에 옷이 축축히 젖어드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착잡한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그의 뇌리엔 문득 오늘 보았던 최일의 논문이 떠올랐다.

그 논문에서 생고무대신 표가교제를 첨가하면 고강도점착제와 류사한 고무풀을 만들수 있다는 대목도 본듯싶었다. 그것을 머리속에 곰곰히 되새겨볼수록 가슴은 견잡을수없이 활랑거렸다.

표가교제는 대학졸업실습때 낡은 고무다이야분말에서 추출한적이 있지 않는가.

이윽고 그는 자재창고뒤마당에 있는 파고무야적장으로 달려갔다.

정희는 비물에 젖은 파고무더미에서 다이야쪼박을 찾아들고 준비직장 고무분쇄작업장으로 갔다.

그날 밤 정희는 실험실에서 쪼박 밝히며 분말속에 섞여있는 실밥들을 말끔히 골라낸 다음 시약들을 두고 반응시켜 잠시후 까무스름한 표가교제를 얻어냈다.

그러니 이제 고무풀도 문제없겠구나!

환성을 터뜨리며 의자에서 일어나던 순간 정희는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비칠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그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병원구급과에서였다.

침대주위에는 위생복을 입은 의사와 어머니며 소조원들과 공장일꾼들이 서있었다.

의사선생의 말이 실험도중 시약냄새를 맡았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며칠간 안정하라는 것이었으나 정희는 다시 공장에 나와서 표가교제를 첨가하며 실험을 거듭 해본 결과 고강도점착제 못지 않은 고무풀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 소식을 지배인도 들었는지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소조원동무, 축하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어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요?》

정희는 격정에 넘쳐 뇌이였다.

《그래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설에서 경공업원료, 자체의 국산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어요. 그러니 소조원동무가 이번에 자체로 그런 고무풀을 만든건 대단한 성과예요.》

정희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지배인동지, 그건 사실... 그 연구사동무의 논문에서 찾은거예요. ...》

《아니, 그럼 그 동무가 아직 공장에 있어요?》

《저에게 논문만 보여주곤 떠났어요. ... 제가...》

정희는 말끝을 잊지 못했다.

《그 동문 이 지배인때문에 갔을거예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가책되는 것이 많군요. ... 이제 내려가면 우리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일을 해보지요.》

《지배인동지, 알겠어요.…》

지배인의 전화를 받은 후 정희는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자기가 해놓은 일을 되새겨보았다.

지난날 아버지가 창안했던것보다 생고무원료를 적게 쓰게끔 기술혁신한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가. 금시 모닥불을 들쭉든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처럼 해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제품을 도저히 내놓을수 없으리라는 자책감이 뇌리를 쳤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는 구두를 생산하자면 이제라도 최일연구사를 다시 만나봐야 한다!

이렇게 마음다진 정희는 다음날 아침 역으로 나갔다. 알아보니 재료연구소는 기차를 타고 5개역을 지나야 하는 곳에 있었다. 막상 열차에 올랐으나 그의 마음은 저으기 산란했다. 그날 공장에 찾아왔던 최일사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속에 헤어졌으니 이제 찾아가면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까 하는 불안감때문이었다. 또한 그사이에 최일이가 다른 구두공장을 찾아갔다면 어쩌랴싶은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정희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열차는 서역에 벗어났다.

재료연구소는 덩치큰 화학공장결에 위치한 2층건물이었다. 창문들만 내놓고는 온통 푸른 담장물로 뒤덮여있었다. 이윽고 정희는 접수실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최일연구사를 만나러왔다고 했다. 경비원은 최일연구사와 남다른 사이로 짐작한 모양인지 병글서 웃더니 송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번갈아 누르는것이였다.

《접수입니다. 거기 최일연구사동무가 있습니까? 지금 기술협의회중이라구요? 응구두공장에서 처녀가 찾아와서 그림니다. 좀 기다리라고요? 예.》

경비원은 병글병글 웃으며 정희한테 전화내용을 그대로 전하는것이였다.

정희는 《알겠어요.》하고 긴의자에 앉았다.

아직 그 동무가 다른 구두공장에 가지 않은게 다행이로구나. 헌데 이번엔 내 의견에 동의할까. 아마 예까지 찾아온 내 심정을 리해해줄거야. 먼저 고무풀에 대한 인사를 해야지....

정희가 울렁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있는데 얼마후 문이 벌럭 열리더니 최일이가 들어섰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깎듯이 인사했다.

《아니, 소조원동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일은 얼떠름한 표정으로 눈을 찔끔거렸다.

정희는 고무풀에 대한 인사말부터 하려는데 그가 통명스럽게 다시 말했다.

《전번처럼 주관적인 생각부터 앞세울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돌아가주세요!》

순간적으로 정희는 서러움에 말문이 콕 막혔다.

《그래 동문 남의 연구소에까지 찾아와서 어쩌자는거요? 나도 요새 알게 됐지만 소조원동문 지난날 우리 아버지의 창안을 한사코 반대했던 그 기사장의 딸이라면서요?》

그의 뜻밖의 말에 정희의 낯빛은 창백해졌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감뻘며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정희의 귀전에 울분에 찬 최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리 아버진 동무의 아버지때문에 창안을 포기하다못해 공장까지 떠났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요? 동문 상관마시오. 난 우리 국내산원료로 질 좋은 구두를 꼭 만들어내고야말테요.》

새파랗게 질린 정희의 낯색은 보려고도 않고 선언조로 말하고난 최일은 문을 탕— 하니 닫고 나가버렸다.

정희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이 동무가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란 말인가. 새 세대 청년과학자가 초보적인 리성과 도덕도 갖추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앞에 정희는 더없이 실망하고말았다. 더불어 마음속엔 서러움같은것이 서서히 차올랐다.

(어쩔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물어도 안 본담.…)

정희는 더없이 락심하여 접수실문을 나섰다.

4

최일이에게 배척당하대싶이 하고 다시 열차에 몸을 실은 정희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짙게 어렸다.

차창밖에 팔굽을 세우고 눈물에 젖은 볼을 손으로 감싼채 초연히 앉아있는 그에게 차창밖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봄빛질은 푸른 산과 들판의 풍치도 그리고 반쯤 열어놓은 창문으로 숨막힐듯 풍겨오는 싱그러운 봄의 훈향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다만 최일의 통명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귀전에 되울려울뿐이였다.

《우리 아버진 동무 아버지때문에 창안을 포기하다못해 공장까지 떠났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동무까지 내 창안품에 칼질을 하려 드는거요?…》

정희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니 앞으로 그를 다시 찾아간댔자 오늘처럼 거절당할것이다. 더우기나 경비원아바이의 말에 의하면 그가 출장을 간다니 다시 찾아갈수도 없지 않는가. 정희의 입에서는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는 어쩌면 좋담.…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가?

정희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이제 두번다시 외면한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길에서 물러선다는것이구나 같다. 오늘 걸음을 내짚은바치고는 최섭아바이를 찾아가서 기어이 설득시켜야 한다!

정희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증역에 내리자 곧바로 하천종합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몇걸음 내짚는데 등뒤에서 《정희소조원-》 하고 정답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김수옥지배인이다.

《아이, 지배인동지 오셨군요!》

그는 얼어지듯 달려가 지배인의 손을 잡았다.

《신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 사진이랑 봤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소조원동문 어데 갔다오는 길이에요?》

지배인은 그가 입은 나들이옷이며 손에 든 가방에 눈길을 주며 물었다.

《저, 최일연구사를 만나려고 재료연구소에...》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대답했다.

《아니, 거기까지?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 동문 다른 긴급연구과제를 받고 출장을 간 다기에 하는수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최일리와 있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하였다.

《그 동무가 긴급연구과제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럴수 있어요...》

지배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심중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경공업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원료, 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도 새로운 긴급과제를 주었을거예요. 내가 전번에 그 동무를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만...》

지배인은 후회하듯 말꼬리를 여물구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구두창의 유연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나직하나 절절하게 울렸다.

《지배인동지도 아시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공업의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방공장이라고 하여 구두의 질을 보장 못한다면 어떻게 인민들의 호평을 받겠습니까?》

《그건 옳아요. 현대 최일연구사가 출장을 간다니 소조원동문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지배인은 기대어린 눈빛으로 정희를 보았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던 최섭아바이라랑 함께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공장을 원망하며 떠나간 최아바이가 이제 와서 응할가?》

지배인이 반신반의하듯 입속으로 뇌이였다.

《그래서 더구나 찾아가고싶어요.》

《소조원동문 지금 최아바이를 만나러 가요?》

지배인은 사뭇 놀라운 눈길로 정희를 보며 입을 벌린채 서있었다.

《예. 그럼 전...》 정희는 지배인을 지체시키는 듯싶어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총총히 걸었다.

《소조원동문 정말...》

뒤에서 지배인의 목에 잠긴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저녁노을이 비긴 하늘가를 바라보며 걸음을 다우쳤다. 30분쯤 걸어가니 《신발수리》라는 간판이 붙은 나지막한 건물이 보였다.

이윽고 정희가 파란 칠감을 입힌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서니 최일의 모색을 련상시키는 한 로인이 고무풀로 떨어진 구두이음짚을 붙이고있었다. 한때는 공장기술혁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창안들을 내놓던 최섭아바이가 신발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자 정희의 눈초리는 가늘게 떨렸다. 작업대에는 갖가지 구두와 수리도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목에 잠기는 음조로 나직이 인사하였다.

고개를 든 최섭은 그가 신은 구두부터 살핀다.

《새 구두같은데 뒤축에 덧창을 대려구요?》

《그런게 아니라...》 잠시 머뭇거리던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홍구두공장 기술혁신조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치년 누군데 그걸 아요?》

최섭의 수북한 장미가 꿈틀거렸다.

《전 그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이예요. 아바인 거기 제실 때 생고무를 쓰지 않고 구두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순 최섭의 불편이 경련하듯 푸들거렸다.

《새삼스레 그런 왜 묻소?》

《그때 어쩌서 포기하셨는지 알고싶어서요.》

《그건 공장일군들한테 들었겠는데...》 하고 울대뼈를 떨며 한숨을 길게 내뿜더니 무뚝뚝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때 애긴 입에 담기도 싫수다.》

그는 더 묻지 말라는듯 다시 고무풀칠을 했다.

찰기도는 까만 고무풀에 눈길을 주던 정희가 그 고무풀은 어디서 받아오는가고 화제를 돌렸다.

《받아오긴, 내가 만든거였다.》

그 말을 듣자 정희는 최일의 톤문에서 보았던것도 최섭아바이가 만든 고무풀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러고보면 신발수리를 하면서도 창조적사색을 중도반단없이 하는것이 아닌가!

가슴이 몽클했다. 최아바이가 기술혁신조에 그냥 있었다면 그 혁신안도 성공시켰으리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이윽고 정희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최섭은 벽시계를 쳐다보더니 퇴근시간이 되었는지 작업복을 벗는것이였다.

정희는 하는수없이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다.

그는 최아바이도 최일이처럼 두말안팎에 훌쩍 가

버리면 어쩌라 하는 불안감으로 가슴을 조였다.

잠시후 최아바이가 남자구두를 넣은 구역을 손에 들고나왔다.

《집에 가서도 구두수리를 하시나요?》

《그런게 아니라 특류영예군인이 주문했던걸 퇴근길에 갖다주려구...》

최섭은 스티스적 걸음을 옮겼다. 퇴근후에도 특류영예군인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는 그의 모습에 정희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인주세요. 제가...》 정희는 그의 손에서 구두구력을 옮겨줘었다.

《소조원네 집은 어딘데?》 그의 어조는 좀전과는 달리 부드러워진듯싶었다.

《상천마을이예요.》

정희의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묵묵히 걸었다. 보매 아직 한력있는 걸음이였다.

정희는 그의 팔굽을 다정히 쥐며 구두공장에서 왜 나왔느냐고 속삭이듯 나직이 물었다.

최섭은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던지 두툼한 입귀를 실룩이다가 무겁게 말꼭지를 떼었다.

《내가 시험에 그만 실패를 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 글썽 기사장이 두번다시 승인할수 없다면서 다른 공장에 가서 하든지 하라면서 거절하더군요...》

정희는 그가 말하는 기사장이 다름아닌 자기 아버지라는것을 의식하자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러니 공장을 떠날수밖에... 그런 일군들 밑에서야 무슨 창안인을 실현할수 있겠소...》

정희는 아바이가 지금 자기와 나란히 걷고있는 소조원이 기사장의 딸이라는걸 모르는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라도 다시 공장에 나와서 그 혁신안을 실현시켜보지 않겠는가고 다정히 물었다.

최섭은 대답대신에 허거프게 웃었다.

그들은 제 나름의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었다.

이때 정희는 저쪽 앞에서 마주오는 최일의 모습을 띄어보았다. 정말 출장을 가는 길인지 그의 손에는 려행용가방이 들려있었다.

그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걸어오는 정희를 알아보았는지 안경테를 추스르며 눈이 휘둥그래서 성큼 성큼 다가왔다.

《아니?! 동무가?...》

그는 정희에게 한마디 던지고는 뺨 지나쳐버렸다.

《아니, 저...》 정희는 그를 찾으려다가 곁에 최섭이가 있다는걸 생각하고 그만 말꼬리를 삼켰다.

《내 아들과 아는 사이였소?》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최섭은 어안이 병병해서 눈을 두부럭거렸다.

정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라 바람결에 흐트러진 머리칼을 비다듬으며 입을 다문채 걸었다.

《나한테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게구만. 혹시 우리 아들과 남다른 약속을 했었나?》

《어마, 그런건 아니예요...》

정희는 삼시에 얼굴이 익은 가재처럼 빨개가지고 텐겹하여 도리머리를 하였다.

《그럼 어째 말 못하오? 내가 들어보고 도움을 줄수도 있질 않소, 어려워말구...》

그 말에 더는 침묵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한 정희는 최일리와 만났던 일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헛참,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던 말이 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던 최섭은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헌데 소조원동문 어떤 도움을 받자는게요?》

《기술혁신조에 계실 때 시도해본 경험이 있으니 모두가 지혜를 합치면 생고무를 쓰지 않고도 질 좋은 구두창을 만들수 있을거예요!》

했으나 최섭은 고집스럽게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문채 묵묵부답이였다.

정희는 그가 수나롭게 응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모른진 않았지만 그의 가슴속에서 불타다가 꺼져버린 열망의 불씨를 지퍼주고 그를 혁신의 대오에 다시 세워주고싶었다.

《다시 공장에 나와주세요. 네?》

정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채삼 간청했으나 최섭은 완고하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한번 빠진 구렁텅인 피한다는데 난 그 공장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오. 아마 우리 아들도 그래서 나한테 알리지도 않구 거길 찾아갔다가 그렇게 됐을테지... 후-》

가슴이 꺼질듯 한숨을 길게 내뿜더니 최섭은 고개를 수궁하고 걸었다.

정희는 그의 가슴에 웅어리진것을 끝까지 풀어주고 그의 그늘졌던 얼굴에 밝은 웃음을 안겨주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어 다시 절절히 말했다.

《아바이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원료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구 있수다.》

《그런데 아바이와 같은 기술자가 껴진 신발이나 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바이위치는 신발수리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뭇라구?!》

최섭은 홉튼 눈으로 정희를 쏘아보며 버럭 어성을 높였다.

《그럼 신발수리를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하란 말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나요.》

《신발수리도 기술기능이 있어야 하는거요. 소조원동무더러 하라하면 할것 같소?》

《?!...》 정희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어느덧 골목길어구에 이르렀을 때 최섭은 정희가 들었던 구두구력을 옮겨줘며 저으기 가라앉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소조원동무의 심정은 알겠네만 어쩌겠소...》

구두구력을 들고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찾아 걸어

가는 그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정희의 눈시울에 맑은것이 찰랑히 고여오르더니 앞에 물안개가 서린듯 뿌옇하게 흐려지었다.

5

정희는 날이 저물어서야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물었다.

《너 오늘 최아바이네를 찾아갔는지?》

《어마나, 어머니 그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고 갔던 정희는 당혹감에 휩싸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지배인한테 다 들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니?》

전번과는 달리 어머니의 기색이 온화해보이는지라 정희는 최아바이와 만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냥 왔단 말이지. ... 하긴 최아바이의 말처럼 날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신발수리소를 비워놓을순 없지. ...》

지난날 신발수리공이었던 어머니여서 최섭의 말을 십분 이해하는것 같았다.

정희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최아바이대신 그 일을 맡아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허나 다음순간 스스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수옥지배인이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며 일하라고 마음써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어머니에게 죄스러웠던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주는 못할망정 어떻게 ...

정희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감물었다.

침울한 얼굴로 아무말도 없이 밥을 몇술 뜨다가 수저를 놓는 딸의 모습을 띄여본 어머니는 측은한 생각에 잠겨 나직이 말하였다.

《오늘 지배인과 네 말을 듣고보니 요즘 네가 왜 그처럼 뛰어다니며 아글타글하는지 알만 하다. 그런데 최아바이까지 도리질을 한다니 넌 어쩔 작정이냐?》

초점없는 눈길을 방바닥에 펴군채 까딱않고 앉아있던 정희의 입에서는 가는 한숨소리와 함께 물기에 젖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그렇다고 아버지처럼 외면한다면 어찌겠나요. 차라리 제가 신발수리를 하고 최아바이를...》

《뭐, 뭐라구?!》

어머니가 펄쩍 뛰듯 놀라는통에 정희는 손바닥으로 얼른 입을 감싸쥐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채 고즈넉이 앉아있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미닫이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뭇별이 총총히 돌아나는 담청색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못박힌듯 서있었다.

정희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한 말을 불쑥 꺼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심란해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공연히 그런 말을 해서 어머니마음을 괴롭혔구나. 전번에도 어머니 그랬었지. ...

아닌게아니라 어머니는 밤늦게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싯거리는것이였다.

정희는 어머니의 피로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지 몰랐다. ...

허나 그의 예상은 다음날 지배인을 찾아갔을 때 뒤집어졌다. 그가 최아바이를 찾아갔던 사연을 말하자 지배인은 뜻밖에도 좀전에 어머니에게 다 들었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정희가 놀라며 묻자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에 잠긴 읊조로 말하였다.

《동무 어머니 최아바이를 만나보고 자기가 대신 신발수리를 하겠다면서 글썽 거기로 갔어요.》

너무나 의외의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 뜨거운것이 밀물처럼 그들먹이 차올랐다. 뒤이어 어머니의 그런 웅심깊은 마음도 모르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자책감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며 문밖을 나서는 데 지배인의 목갈린 소리가 들렸다.

《소조원동무, 최아바이한테 함께 가자요.》

《지배인동지도요?!》

《소조원동무보다 이 지배인이 먼저 찾아가야 하는데, 어서 가자요!》

《지배인동지!》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쥐고 신발수리소를 향해 걸음을 다우쳤다. ...

얼마후 그들이 신발수리소에 들어서니 어머니와 최섭아바이가 작업대앞에 나란히 앉아 구두를 한짝씩 쥐고 손질하고있었다. 정희의 눈썹리는 찌릿했다. 내가 저런 어머니를 잠시나마 고향해다니?

급시 《어머니—》 하고 외락 달려가 용서를 빌고싶은 정희의 심정이였다.

호—혹— 오열을 삼키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들은 정희와 함께 서있는 지배인을 띄여보자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아니, 지배인동지가?!》 최섭은 자기 눈을 의심하듯 눈을 슴벅거렸다.

《아바이, 오래간만이군요. 지나간 일은 다 잊어주세요. ...》 지배인은 그의 터갈린 손을 잡으며 머리를 숙이였다.

《지배인동지가 이렇게 신발수리공아주머니까지 보내줄줄 정말 몰랐수다.》

《제가 보낸게 아니라 이 소조원인 자기 딸의 곡진한 애길 듣고 온거랍니다.》

《딸이라니요? 그럼 이 아주머니가 소조원의 어머니란 말이요?!》

최섭은 눈이 휘둥그래서 모녀를 번갈아보았다.

《그런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그럼 소조원의 부친도 구두공장에 다니오?》

어이말이 대답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자 최섭은 의욕어린 시선을 지배인쪽으로 돌렸다.

《소조원동무 아버지 최아바이가 잘 아시던 우리 공장 기사장이었는데 이태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최섭은 전기에 감전된듯 와들 놀라며 머리를 숙이고 잠잠히 서있는 정희를 새삼스럽게 보았다.

소조원처녀가 기사장의 딸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오늘은 또 어머니와 지배인까지...

《소조원동무, 내가 뭐길래 이렇게들...》

최섭은 목이 짹 메여 말꼬리를 흐렸다.

《공장에 다시 나와서 그 혁신안을 손색없이 실현시키자요!》

정희는 한걸음 다가서며 간절히 말했다.

《신발수리 제가 맡겠으니 넘려마시우!》

어머니가 손질하던 구두를 흔들며 응수했다.

지배인도 요구되는걸 다 보장해주겠으니 다시 해보라고 말했다.

그들의 진정어린 목소리에 눈을 스르시 감고 입을 실룩이던 최섭은 뜨직이 말문을 열었다.

《좌우간 좀 생각해보겠수다...》

정희는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공장에 나오리라는것을 믿고싶었다.

그날 공장으로 돌아온 정희는 지배인에게 제기하여 최아바이가 사용하도록 실험실을 새로 꾸리기 시작하였다. 갖가지 실험기구들은 물론 자기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까지 가져다놓았던것이다.

어느날 고무나무화분을 안고 실험실에 들어서던 김수옥지배인은 컴퓨터를 보자 찬탄했다.

《아니, 집에서 컴퓨터까지 가져오다니?!》

《그때처럼 시험도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컴퓨터모의시험부터 해보야겠습니다.》 하고 정희는 불에 보조개를 지으며 방그래 웃었다.

《역시 3대혁명소조원이 다르니까.》

지배인은 부동한 얼굴에 미소를 담으며 고무나무화분을 창문 밑에 놓았다.

《그건 지배인동지방에 있던게 아니냐요?》

《웁아요. 최아바인 기술혁신조에 있을 때 고무나무화분을 정성껏 가꾸곤 했어요.》

정희는 그래서 최아바이가 생고무를 쓰지 않는 혁신안을 내놓았으리라고 생각하며 고무나무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때 분석공처녀가 문을 열더니 최섭아바이가 온다고 소리치는것이였다.

정희는 너무 기뻐 밖으로 달려나갔다.

실험실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최섭을 보는 순간 정희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핑- 고였다.

그는 엎어지듯 달려가 최섭의 손을 잡고 어린애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반기였다.

《전 꼭 오실줄 알았어요. 어서 가시자요.》

정희가 그의 손을 꼭 쥐고 실험실로 걸음을 옮기는데 지배인이 마주 나오며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아바이 혼자 오셨는가요?》

《최일인 아직 출장갔다 오지 않았수다.》

최섭은 시답지 않은 투로 대답했다.

《그래요? 어서 들어가자요.》

번듯하게 꾸려진 실험실에 들어서자 최섭의 눈은 전조등처럼 휘둥그레졌다.

《내가 그때 떠났던 그 실험실이 이렇게?》

지배인이 소조원동무랑 최아바이가 오면 실험을 하도록 새로 꾸렸다고 말하였다.

《지배인동지... 소조원동무...》

최섭은 눈을 습벅이며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떠들떠들 걱정을 터치였다.

《정말 고맙수다... 이 실험실뿐아니라 이자 들어오면서 보니 그동안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더군요...》

《그것도 우리 소조원동무들이 앞장서서 한거랍니다.》

지배인은 자기와 함께 생산현장을 돌아보자면서 최섭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고즈넉한 방안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공장정문에서 오는 전화였다.

《재료연구소에서 소조원동무를 찾아왔는데 들어보내랍니까? 최일이라는 연구사라고 합니다...》

(그가 왜 왔을가? 혹시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왔을가? 아니면?...)

종잡을수 없는 의혹의 실마리를 더듬으며 정희가 접수실문을 열었을 때 최일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의자에 앉아있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정희는 쌀쌀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왔습니까?》

《그래요, 아버지를 다시 모셔가려구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뭐, 그냥 돌아가라구요? 못 가겠소!》

최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웨쳤다.

《연구사동무가 받았다는 긴급연구과제나 할것이 지 여긴 왜 왔어요?》

《난 오늘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신발수리소에 들렀댔소. 현대 뜻밖에도 우리 아버지대신 소조원동무의 어머니가 신발수리를 하는걸 목격했단 말이요! 난 차마 그냥 돌아갈수가 없어 여기로 왔단 말이요. 그리구 소조원동무! 날 용서해주오. 전번엔 내가 동무를 잘못 생각한것 같소.》

《아니, 그럼?!...》

그의 말에 가슴노리가 뭉클했으나 정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우린 동무를 잘못 본것 같애요.》

연구사동무가 없어도 우린 성공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정희가 접수실문을 열고 나오는데 최일이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뭐라고요?! 난 그래서만 온게 아니요. 그동안 구두창유연성을 높일 기술적방도를 찾았던 말이요.》

과학에 대한 생각 외 1편

한 동 선

깊어가는 은정과학지구의 밤
꿈같이 원수님 만나뵈온 이야기
가슴에 포개안고 식구들 잠든 이밤
귀가엔 그냥그냥 만세소리 만세소리
눈앞엔 우렷한 원수님의 그 모습

시를 쓰고싶노라
수자와 부호만을 적어온 이 펜을 들어
내 마음 달리나니
과학이여 너는 무엇이냐
너 무엇이어서 바쁘신 우리 원수님
새벽에도 이른새벽
새해에도 정초에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과학이여 내 어릴적 너는
선생님 번저주던 대수문제런습장
남던저 풀고싶던 기하증명문제들
수학올림픽에 뻗어간 우승의 푸른 꿈
어린 마음 들떠우던 환상속의 자연세계

의무보다 권리를 먼저 안겨준
배움의 전당에 층층 높이 오를 때
과학이여 너는
암호로 가파로운 탐험의 등산길
정리와 공리 도형과 모형 프로그램으로 말하는
신비의 세계... 다만 그것이던가

과학이여 너는
청춘의 랑만이 나라쳐오른 우주
내 젊음이 인연맺은 남모르는 첫사랑
실패와 고심끝에 오는 성공
그 성공의 환희던가 정복자의 궁지던가
발명으로 창안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영예의 증서런가 명예의 칭호런가

잊을수 없어라 수령님 모시였던 일터에
우리 장군님 오시였던 그날을

우릴 불러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 하신 그 말씀
과학이여 너는 진정
이 한몸 불태워 휘날리고싶은
우리의 공화국기 아니었던가

깊은 밤 생각도 깊어깊어
귀가엔 그냥그냥 만세소리 만세소리
마음속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모습
눈앞에 우렷한 위성과학자거리!

한시바빠 안겨주고싶으신
인민의 부귀영화 과학에 달려있어
우리 원수님 뜨거운 가슴에
위성과학자거리 과학자의 세상을 안고오시였
나니
과학이여 너는
품속에 껴안으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
문명국을 떠올리실 원수님의 무궁한 힘!

보배가 되고싶노라 보배가
이 한몸 지혜의 보배가 되어
원수님의 기록한 뜻 펼쳐가고싶나니
나의 수자여 부호여 프로그램들이여
우리 원수님리상을 위해선
너희들도 강하라 아름다우라

따르는 마음 받드는 마음
삼가 내 과학을 칭하노라
과학이여 너는
내 지켜선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조선
조국번영에 바치는 제대없는 나의 복무
너는 주체
너는 선군
너는 사회주의
아,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승리다

음성없는 록음

중앙에서 내려온 방송기자
원수님 만나뵈온 로학자앞에
기대어린 눈길로 마이크를 내미는데
두손 저으며 황급히 써 내미는 글썽지
—목이 쉬여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아, 그래서였구나
기념사진촬영장에 나오신 원수님 우리러
울고 웃으며 만세부르며

어린애가 되어버린 행복한 그 순간에야
목이 다 쉬어버릴줄 그 어찌 알았으랴

기자는 자리를 일지 못했네
수첩엔 한장도 쓰지 못한 백지
손에는 음성없는 빈 록음기
하지만 취재는 이미 다 끝난셈
우리러 더친 환호성끝에 목이 다 쉬어버린
심장의 맹세가 여기에 담겼으니!...

시 초

조국이며 이 대지를 받으시라

우리의 금지

김 충 기

사나운 날바다에 빗장을 지르며
아득히 뻗어간 제방따라
무연히 펼쳐진 간석지 새땅을
가슴뻗듯이 바라보며
간석지건설자 우리는 생각한다

누구나 자기 일에 금지가 없으랴
별에 풍작을 가꾸는 사람들
수천척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 탄부들
가는 곳마다 하늘이 비좁도록
집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하지만 자부하노라
생마같이 길길이 날뛰는
파도의 갈기를 휘잡아 길들여
조국의 국토를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 우리처럼
삶의 금지를 안고사는 사람들 없다고

산악같은 파도를 밀어내며 한메터
광란하는 해일을 맞받아 한메터
날바다우에 제방을 쌓아 땅을 넓히며

쫓는 해 지는 달을
남먼저 맞고 보내는 우리

이 한몸 제방이 되고 장석이 되어서라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지켜
간석지 새땅을 안아내고야말
결사판철의 억척같은 의지앞에
사나운 날바다도 달의 인력도
맥을 추지 못했거니

정령 선렬들 찾아준 땅에서 삶을 누리면서
자기 한생에 한치의 땅도 넓히지 못한다면
한줌의 흙이라도 더 보태고 기름지워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쉽게 누구나 말하지 말라 값높은 애국에 대해

오,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노라
조국의 영원한 억년재부인 땅을 넓히는
간석지건설자들처럼 보람찬 일터는
애국중의 애국의 일터라고
온 세상에 자랑하노라!

땅! 재부중 재부

함 영 근

돌격대기발을 휘날리며 온 날
익살군 그 총각이었지
옷 젖는줄도 모르고
침병 바다에 뛰어들어
—동무들 발밑에 옥토가 있소!
찌렁 가슴을 두드리던 열띤 목소리

그저 평범한 말 같았어도
땅이 귀한줄을 안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구나
수수천년 바다속에 잠자던
그 땅이 그리도 아까워
간석지돌격대체복을 입은 청년

그 말 한마디
백 천의 심장을 흔들었네
돌격대천막에 배낭을 벗어놓고
간석지제방처럼 쪽 늘어선 대렬이여

이 기슭에서부터
이제 가야 할 그끝은 어디바루냐
땅을 사랑하기에
날바다를 내밀어

조국의 대지를 넓히려 온 우리

초목이 무성하고
오곡백과 무겁게 실리는 땅
이 땅을 사랑하라 그 말과 그 뜻
우리 선생님에게서 배웠지
우리 책에서 읽었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알았지

세상풍파 다 겪으시며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땅
한몸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고 가꿔주신 땅
애국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우리 원수님 끝없이 빛내여가시거니

우리를 믿어
원수님 맡겨주신 전투장
일터는 넓어서 좋아
할 일은 많아서 좋아
맘껏 땀을 흘리자
깡그리 온넛을 불태우자

아, 땅!
나라의 재부중에
땅보다 더 크고 귀한것 있으라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일인데
열백밤 아니 한생을 날바다우에서 새운대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으리!

건설장의 달밤

함영근

수평선 저 너머로 해떨어지자
바다는 한순간 고요에 잠기더니
두둥실 머리위에 달이 솟았네
그러자 어데선가 와와 함성소리
엇갈리는 자동차 불도젤 기계의 대군단

멋이로다 우리의 일터
물은 여기서 아득히 먼데
장석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마치 군항을 떠나온 함선인듯
돌격대제모에 땀기는 날리지 않아도
우린 돌격전에 나선 해병과 무엇이 다르랴

배들은 포구로 돌아가고
갈매기들도 잠든 바다
날바다우에 제방을 쌓으며
한메터 한메터 열여가는 우리의 돌격로여

잠자리를 비워놓고 일터로 달려나온
정든 침실은 어디바루냐
바다중천에 둥근달 벗삼고

파도와 싸우는 돌격대 청춘들아

종구나
배 지나간 자리엔 흰파도만 일지만
우리 걸어온 자욱엔
천년제방이 솟아 뻗어가거니

세상천지 다 보며 수천수만년
너 못 본것 있으랴만
놀라지 말아 건설장의 둥근달아
밤사이 뻗어간 제방을 두고
돌격대청춘들의 일손을 두고

아, 달밝은 간석지건설장
곧바른 승리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몰아가자 무적의 이 전투함선
원수님 가르키신 저끝까지
마감막이전투장 저 기슭 한끝까지
단숨에!
단숨에!

기념비

김충기

수수만년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던
아득한 수평선이 지평선이 되고
끝없이 펼쳐진 간석지벌에
벼이삭설레이는 소리 정답게 들릴 때

사람들이여 여기서
그 어떤 기념비를 찾지 마시라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쳐
바다에서 새땅을 안아올린
간석지건설자 우리의 이름을 묻지 마시라

그 어떤 파도에도 해일에도 끄떡없게
만년성벽같이 제방을 쌓으며
우리 그 돌의 한귀퉁이에도
자기의 이름 새긴적 없거니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우리 쌓은 제방우에서 즐겁게 뛰놀며
이 벌에서 무르익은 낱알을 먹으며
간석지벌의 새 주인으로 자라날
우리의 후대들은

노래하리 이야기하리
부모들의 청춘시절은
여기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흘렀다고
마감막이를 끝내고 제방길 나란히 걸으며
일생을 약속하던 그 청춘남녀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였다고

그것이던 더 바랄것 없어
파도소리밖에 들리는것 없는 건설장에서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보았고
한밤중 들이닥치는 세찬 파도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여 제방을 지키였나니

정녕 우리 청춘을 바쳐
조국의 새 대지로 안아올린 이 땅
기름진 옥토로 된 간석지 이 벌은
탑으로 쌓아 다 전할수 없고
글과 노래로도 다 부를수 없는
애국의 기념비!

받으라 미래여!
사랑하는 후대들이여!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달의 인력도 틀어잡고
바다를 밀어내고 우리가 넓힌
조국의 새 국토 간석지 이 땅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재부로
사회주의부귀영화 꽃피는 인민의 보금자리로
조국의 지도에 새로 생긴 이 땅
조국이며 간석지건설자 우리가 드리는
드넓은 이 대지를 받으시라!

— 룡매도간석지건설장에서 —

탄전이여 앞으로!

송 혜 경

지난밤에는 이갈이 끝없이 늘어선 천연숲길을 무척 오래동안 달려왔다는 느낌만이 강했다.

새벽과 더불어 목방산의 자태가 우렷한 드넓은 분지가 사방 무연하게 눈에 밟혀온다.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등실등실 흘러간 산발을 꺼안고 장엄한 대동강의 은빛물줄기가 바다처럼 고여있다.

청신한 대기를 마음껏 호흡한 그 아침 나는 탄광연혁소개실에서 무진대청년탄광의 어제와 마주서 있었다.

간밤에 본 그 끝없는 숲길과 분지안에 널린 광활한 로동자구. 산허리에 아슬한 저탄장이 우뚝우뚝한 이 탄광의 오늘은 50여년전 첫 청년개발자들의 위훈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연혁소개실에서 그 청년개발자들의 첫 발자국을 마음속으로 더듬어보았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파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던 주체 46(1957)년.

전망이 좋고 석탄대장량이 많은 평남지구에 굴지의 탄광을 일떠세울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이 보람찬 투쟁에 청년들이 앞장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받아안은 전국의 피끓는 청년들이 탄광개발지로 인생의 이정표를 세웠다.

사랑과 믿음의 파견장을 받아안고 송남, 재동, 천성, 직동 등과 더불어 무진대로 떠난 청년개발자들은 수십대의 자동차에 나누어타고 썩썩한 노래드높이 목방방에 도착하여 대동강반에 천막들을 쳤다.

탄광연혁사에는 그 시대가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무인지경에 가까운 험산준령 미개척지 무진대! 그러나 우리 청년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청년사회주의건설자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한치한치 길을 열고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개의 갱을 개발하였으며 주체 50(1961)년 1월 3일부터 석탄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밑에 나붙은 첫 청년개발자들의 사진은 이 땅에 나래쳤던 룡성병영의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용감한 청년전위들의 초상이었다. 기상이 릉름한 청년들, 쌍태머리가 치렁치렁한 흰저고리차림의 아름다운 처녀들, 그 청춘들의 눈빛에 더더욱 푸른가싶던 무진대의 창창한 하늘...

그들은 품었던 청춘의 리상과 포부는 서로 달랐지만 당과 수령, 조국의 부름앞에 후회와 주저, 사소한 동요도 없이 그 리상, 그 포부를 하나로 합친 영광스러운 탄전의 1세대였다.

그 찌릿한 어제날의 여운이 주는 충격은 강했다. 개척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폭 잡겨 채 깨어나지도 못한채 나는 서둘러 탄전의 오늘과 접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를 불타는 심장마다 받아안은 무진대청년탄광은 용암처럼 끓고있었다. 전차갱, 로천갱, 운반갱... 그 어느 막장에서나 기름진 석탄이 쏟아져나왔다.

만재한 광차들이 바람같이 내달리며 저탄장의 아스라한 트라스우에서 검은 석탄을 폭포처럼 떨어뜨렸다.

맴뻐 대동강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신흥갱 앞마당의 대형속보판에도 불같은 속보들이 번쩍번쩍 나붙었다. 하지만 그 속보, 그 광경을 보아줄 탄부가 어디 있으랴. 갱 주변은 텅 비어있었다.

나는 요행 붉은줄이 짙게 뻗어올라간 경쟁도표판 앞에서 얼핏 멈추어선 한 청년을 만났다.

노란 안전모를 쓴 그 청년은 금방 갱에서 나온 차림이었다.

강퍽하고 칼칼한 얼굴모색에서 탄가루는 류달리 눈확을 진하게 둘렀는데 검은테안경을 낀것 같은 눈확속에서 뒹어지지 않은 두눈동자만이 고열탄처럼 번쩍거렸다.

나는 그에게 갱사무실을 물었다.

《누굴 만나시렵니까?》

《리원식갱장동지를요, 선군시대 공로자인...》

《흠, 그가 사무실에 앉아있을게 뭘니까. 저 속보판을 못 봅니까? 가정부인들까지 총동원인데 선군시대 공로자를 이 대낮에 사무실에서 찾다니요... 갱장을 만나겠으면 절 따라오십시오.》

청년은 발치에 놓았던 큼직한 동발목을 힘 둘러메고 갱구로 내달렸다.

그가 바로 내가 찾는 갱장이었다. 젊은 갱장은 막장에서 펄펄 날았다. 안전등이 없이도 거침없이 걸어갔고 굴진, 채탄갱구들을 한손탁에 거머쥐고 자신만만하게 전투지휘를 해나갔다.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잡은 굴진공들, 드세차게 탄벽을 허물어내는 채탄공들, 련속 탄차를 밀고 내달리는 운반공들...

나도 흠뻑 땀을 흘렸다.

그래도 좋았다. 우리가 캐낸 석탄 한차한차가 평양으로 실려가 수도의 밝은 불빛이 되리라는 희열에 심장은 벅찼다.

탄광 주생산총화에 간다면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에야 나는 갱장의 얼굴을 처음으로 정확히 보았다. 그는 누구나 반할만 한 미남형의 젊은 갱장이었다. 그런데 무척 친근하고 낮은 모습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가?...

풍요한 가을을 향해간다

최명길

봄빛 질어오는 이 아침
발걸음도 씩씩하게
붉은기 펄펄 날리며
농장원들 별로 나간다

위대한 원수님 신년사 받아안고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장의 큰문을 나서
곧추 들길에 오른듯
환희에 넘친 얼굴들
충정으로 불타는 가슴들

올해신년사의 구절구절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며
농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 안고
쌀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할
피끓는 심장의 맹세로
봄을 앞당기며
농장원들 별로 나간다

보라 트랙토르 앞세우고
관리위원장도 리당비서도
중앙에서 내려온 일꾼들도
두엄지게 지고 농장원들 앞장에서 걸어간다

활기에 넘친 땅
기름진 거름에 살찐 대지
수로에 넘치는 물소리에
벼포기 아지치는 소리 들릴듯

푸르러가는 밀보리 설레임에
두벌농사 수확고도 안아보며
대오에 울리는 북소리에
봄우뢰가 메아리쳐온다

아,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한해의 이슬에 비에 젖으며
포기포기 낱알을 가꾸어야 할 먼길
이 아침 농장원들 풍요한 가을을 마중간다
하늘땅 흔들며 기발을 날리며!...

《작가동진 연혁소개실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마디 물음이 나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앗차!... 갱장동문 이 무진대의 첫 개발자의 자
손이 아니예요? 첫 개발자들의 사진에 동무와 비
슷한...》

《예. 가운데줄 두번째 선분이 저의 할아버지니
다. 맨끝에 선 쌍태머리처녀는 저의 할머니구요.
전 장손이지요.》

오호라! 순간적으로 가슴이 뻘근해왔다. 이 얼마
나 장쾌한 이 탄전의 계승이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첫 개발자, 아버지는 1970년
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지휘하신 70일전
투에서 위훈을 떨친 공훈탄부, 그들의 손자이며 아
들은 30대의 젊은 갱장으로서 선군시대의 당당한
공로자!

그렇다! 무진대는 개척의 첫 폭음을 울렸던 50여
년전의 그날로부터 순간도 답보가 없이 끊임없이,
억척같이 번영의 진군길을 다그쳐온것이다.

오직 하나, 석탄을 위하여!

순결무구한 땅, 정이 가는 땅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념원하시고 오늘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실현해나가는 백두산
대국-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떠받드는 석
탄을 위하여 대대손손 불태우는 탄부의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발산되는 땅, 그 거
세찬 생의 계승이 에누리없이 뚜렷하고 확고한 자
랑스런 땅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또다시 연혁소개실의 어깨걸고 선
첫 청년개발자들의 초상이 살아움직이듯이 보여왔
다. 이제 몇십년후이면 오늘의 이 젊은 갱장의
모습도 그가 사랑하는 신흥갱 탄부들과 어깨나란
히 나불게 되리라. 그다음에는 또 갱장의 자손들
이...

나는 확 눈곱이 달아오르고 억제할수 없는 희열
이 태양이 빛나는 저 하늘높이 충천하였다. 달리
는 뿔수 없는 이 탄전의 래일에 대한 불보듯 명백
한 확신 또 확신!

용감무쌍한 청년개발자들이 첫발을 떼여놓은
수령결사옹위의 확고한 길을 따라 창조와 변혁으
로 비약하는 선군시대의 한복판에서 무진대청년탄
광은 어제와 오늘에 그러하였던것처럼 먼먼 후날
에도 오직 석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줄달음칠
것이라는것을!

그렇다. 석탄, 오직 석탄을 위하여 탄전이어 앞
으로!

주체103(2014)년 1월
무진대청년탄광에서



홍 남 수

1

오늘도 그의 사색은 달리고있었다.

날이 저물어가고있었다. 사라져가는 하루해의 마지막여광이 창문에 불그레 비끼었다.

한식경이나 굳어진듯 앉아있던 지배인 김광수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기사장을 찾으려고 번호판을 똑똑 누르던 그는 부지중 큰 숨을 내쉬었다. 기사장이 며칠째 심장병때문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조금전까지 그의 방에서는 직장장이상 공장일꾼들이 모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가 있었었다.

그가 북창은하피복공장으로 온것은 한달전이었다. 그는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공장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사람들이고 공장의 실태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바다우에서 흘러보낸 광수는 일생 바다와 인연을 맺고살 결심을 했었다. 헌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피복공장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곧바로 그어졌던 인생의 목표가 한순간에 뒤바뀌는것만 같았다. 그는 피복공장으로 내려갈 결심을 섣뜻 못 내리었다. 그것은 마치 갈매기더러 산에 가 살라는것과 같았던것이다.

《물론 동무한테는 피복공장이 생소하고 거리가 멀다는것을 모르지 않소. 그러나 동무는 그 공장에 꼭 적합한 사람으로 될거라고 우린 믿소. 내려가서 공장사람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한번 잘해보오. 할일이 많을거요.》

그를 공장으로 내려보내며 한 일꾼이 한 말이였

다. 그 일꾼은 광수의 남모르는 힘과 능력을 알고 있는듯싶었다. 그것은 아직 불안정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뿌리깊은 힘과 폭넓은 능력이라는것을 파악한것이였다. 그렇게 공장으로 내려온 광수였다.

협의회는 그가 품었던 기대에 비해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주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적어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공장이 처한 형편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사실 은하피복공장의 생산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만 도적으로 볼 때 뒤자리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도 파언이 아니였다. 사람들도 그런 공장의 형편을 모르지 않을텐데 어째서 그것을 외면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머리우에 펼쳐졌던 무한히 높고 아득한 창공이 갑자기 낮아지며 온몸을 내리누르는듯 한감을 느꼈다.

그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은하피복공장이 도적으로 손꼽히는 공장이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많은 피복공장들이 은하와 견주어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보파리를 바꾸어진셈이었다. 공장이 그렇게 된데는 이런저런 원인이 있었겠지만 광수는 구태여 까밝히고싶지 않았다. 문제는 모두가 새롭게 자각하고 분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면 대담하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야 한다. 큰산을 넘으면 천리가 바라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결심이 광수의 마음속에 바위처럼 자리잡자 그는 누구에게라없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가공직장을 개건확장합시다. 그리고 공장의 설비들을 새롭게 갱신합시다. 우리 공장에는 삼

봉침과 자동수세기, 감침재봉기 같은 특수설비들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활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은 한결음 크게 내짚을 수 있습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너무도 엄청난 결심을 내린 것이었다. 현대 방안의 침묵은 광수에게 까닭모를 불안을 던져주었다.

광수는 생각하였다.

공장의 현대화문제가 우리 종업원들에게 그렇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혹시 내가 아직 공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광수는 생산자대중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었다.

그날 좀 늦게 퇴근하던 초급당비서는 지배인방문이 방식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광수는 초급당비서가 들어온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의연히 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심각하고 엄숙해보였다. 아니,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때 볼 수 없었던 무거운 상념이 비껴 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스적스적 걸어가 광수와 마주 앉았다. 광수는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 말했다.

《초급당비서동무, 난 아무래도 바다우에서 살아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바다우에서는 숨도 크게 내 쉴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파도에 뛰어들어 가슴을 탁 터칠 수도 있거든요.》

초급당비서는 묻지 않아도 협의회가 어떻게 흘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초급당비서는 광수가 협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내놓았는지 이미 전에 알고 있었다. 하루 전에 광수는 초급당비서를 찾아와 현재 공장을 활성화하자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자초지종 이야기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는 무슨 의미에선지 두어번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광수를 처음 만났을 때 조용히 움직이는 눈길과 쉬이 변하지 않는 표정을 보고 그가 무슨 일에서나 침착하고 정확하며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서인지 속이 묵직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지배인동무, 천리길도 첫걸음에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배인동무 이제 첫걸음을 내짚었는데 벌써 맥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복공장을 바다로 생각하고 한번 힘껏 날아보요.》

《...》

광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아직도 그의 머리속에는 풀리지 않는 생각이 삼섬불처럼 영켜있는 듯 싶었다.

얼마후 공장정문을 나선 광수는 초급당비서와 헤어져 기사장네 집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한것은 협의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한테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광수는 공장에 온 첫날부터 기사장한테 많이 의탁하려고 하였다. 기업관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생소한 곳에 발을 들여놓은 그로서는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새 바깥출입을 못해선지 기사장은 별로 피기가 없어보이는 얼굴로 광수를 맞이하였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기사장동무가 빨리 출근해야지 이거야 힘에 부쳐 일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열두번 공장생각을 하는데 이젠 나이가 있으니 몸도 인차 완쾌되지 않는군요. 난 이젠 뒤로 물러서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기사장은 이제 한해만 있으면 년로보장을 받아야 할 나이였다. 광수는 그 무슨 의미를 부여하듯 두번씩이나 나이를 강조하는 그를 보자 마음이 한층 무거워졌다. 혹시 몸이 불편하여 그러는 것은 아닐까?...

광수는 십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문제를 말하고 나서 그의 입을 지켜보았다. 광수의 말을 음미해보듯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기사장은 문득 동문서답격으로 말했다.

《이달 계획이 미타할 것 같더군요. 올해에 들어와 두달은 계획을 했는데...》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사장은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된 문제를 먼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광수는 대뜸 그것을 느꼈다. 그는 느닷없이 흥분되는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협의회에서 놀리웠던 마음이 열리는 말을 다문 몇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힘들게 가면 뒤에는 즐거운 추억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공장형편에서는 뛰니뛰니해도 재봉기 대수를 늘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사장은 광수의 얼굴빛이 어텐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건승 몇마디 보았다. 하지만 광수에게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협소하고 제한된 기사장의 생각이 놀랍기만 할 뿐이었다.

그가 공장설비를 새롭게 갱신할 결심을 더 하게 된 데는 그럴만 한 일이 있었었다.

공장에 온지 얼마 안되어 그는 자기가 직접 뛰여 다니며 한달분 생산계획을 능히 할 수 있는 편직천을 들여왔었다.

그때 출장을 갔다 돌아온 기사장은 공장에 많은 자재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곧장 재단직장으로 올라갔다. 재단직장에서는 들어온 천을 거의 다 재단을 해놓은 상태였다. 그것을 본 기사장은 랑패한 표정을 지었다. 마침 재단직장장이 나타나자 그는 첫마디부터 성을 냈다.

《직장장동무, 편직천을 이렇게 몽땅 잘라놓으면

어쩌자는거요? 동문 우리 공장에 삼봉침이 없다는 걸 모르오?»

편직천은 삼봉침이 없으면 가공을 하지 못한다. 재단직장장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전 지배인동지한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동문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기사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피우려다가 공장 안이라는것을 상기한듯 그만두고 돌아서 지배인을 찾아갔다. 그는 지배인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그가 아직 피복에 대한 깊은 파악을 못 가지고있다는 생각에 될수록 자신을 자제하였다. 허나 기사장의 말은 광수를 크게 놀래웠다. 하늘에서 큰 바위돌이 떨어졌다고 해도 것처럼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뭐라구요?»

광수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후에야 자기로 돌아온듯 그는 기대를 품고 다우쳐물었다.

《무슨 방도가 없습니까?»

가놓고말해서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래기라도 쥐고싶은 심정 그대로였다. 기사장은 어깨숨을 내쉬었다.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지배인동무생각이 어떨는지…»

《뭘니까? 어서 이야기하십시오.》

광수는 다우쳐물었다. 기사장은 생각을 굴리듯 입을 다물고있다가 결심을 내리었다.

《재단한 천을 삼봉침이 있는 다른 공장에 가지고가서 옷을 만들어웁시다.》

《예?»

광수는 놀란 눈길로 기사장을 마주보았다. 이내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비끼었다. 결국 방도란 그것이란 말인가? 그는 조용히 뇌이였다.

《그건 좀 생각해봅시다.》

《생각할게 있습니까.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기계를 쓴 값을 좀 주면 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음—》

광수는 외마디소리를 낼뿐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기사장의 의견을 따를수 없었다. 오늘은 그렇게 넘긴다치고 래일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큰 피복공장인 우리가 어떻게 매번 천을 끌라가며 옷을 생산하겠는가? 그렇게는 할수 없다. 우리도 자체의 힘으로 걸어갈수 있게 설비들을 갱신해야 한다....

소도시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광수는 주위의 모든것을 망각하고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수긋하고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속에는 일찌기 없었던 생각이 떠돌고있었다.

거세차게 흐르는 생활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를 무시하고 일군의 사고가 구태의연하다면 공장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기약할수 없다. 설비갱신문제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기사장은...

문득 그는 기사장이 근간에 와서 이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공장에 왔을 때 그는 나이에 비해 행동이 민첩했고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숨김없이 피력하곤 했었다.

기사장은 십분 그럴만도 했다. 10년나마 기사장 사업을 해온 그에게는 자기의 한쪽어깨가 공장을 떠맡들고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해버렸다. 그는 가끔 침울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더구나 말이 적어졌다. 사실 그의 변화는 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월생산총화가 끝난 뒤였다.

《기사장동무, 래달에는 남자옷설계를 다시해서 생산에 물립시다. 제가 알기엔 지난해에도 지금형태로 옷을 생산했다더군요.》

《무슨 일이 제기되었습니까?»

기사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남자옷형태가 이제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걸 난 또... 남자옷은 특별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장 제품이 다른 피복공장의것에 비해 호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광수는 고집스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 상업망들에 나간 우리 공장 남자옷이 판매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상태로 나가다간 우리 공장이 구매자들을 다 잃을수 있습니다. 옷설계를 다시 합시다.》

기사장은 대변에 의기소침해졌다. 어쩐지 지배인에게는 자기의 말이 한갓 고집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한두번 더 있었다.

사실 기사장은 지배인이 생소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것을 알았을 때 앞으로 자기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이 실릴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지배인이 공장에 자리를 잡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잘못생각했다는것을 알게 된 기사장은 다시 지배인을 보게 되었다. 그의 시야에는 지배인이 새롭게 안겨들었다. 확실히 지배인은 무슨 일에서나 일단 결심한 일은 완강하게 주장을 세웠고 (물론 주관도 없지 않았지만) 도화선처럼 확 타들어가는 성격이었다. 기사장은 오랜 생활경험을 통해 그런 성격의 사람들과는 감정조절을 잘해야지 별치 않는 일에도 의견불일치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 기사장은 성격상 상대방과의 의견충돌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을 피로하는 이런저

런 문제를 끄집어내는것을 싫어했다. 그것은 그의 단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본래의 자기에게서 한발 더 물러설 생각을 하였다. 더구나 이제 한해만 있으면 년로보장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그때 가서는 자기가 공장에 더 존재하지 않을것이고 인차 공장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삭막해질것이다. ...

광수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종일 불구멍을 막아놓아선지 방안은 썰렁한 기운이 돌았다. 집안식구들까지 없으니 더욱 그런것 같았다.

그의 안해 김금선은 딸을 데리고 도병원에 올라가있었다. 딸이 아빠트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무릎에 상처를 입었는데 등한시하다보니 병이 깊어졌던것이다.

그는 저녁을 먹는등마는등하고 자리에 누웠다. 두서없는 생각에 인차 잠들지 못하고있던 그는 일어나 팔걸이의자에 가앉았다. 퇴근길에 만나본 재단직장의 제대군인처녀의 말이 떠올랐다.

《지배인동지, 작전안만 잘 짜주십시오. 목표만 제시되면 우리 노동계급은 무조건 점령합니다.》

사실 광수는 그 말에 크게 감심했었다. 그 목표란 하나하나의 봉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높은 봉우리를 선택하고 뚫아올라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것이 바로 그 봉우리위에 있기때문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봉우리에 올라서면 앞이 환히 바라보일것이다.

차츰 졸음이 오는 무감각상태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굳잠에 떨어졌다.

2

사람은 걸음을 많이 걸을수록 생활에 필요한 많은것을 얻게 된다. 그것을 안 이상 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한걸음이라도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광수지배인의 행동은 더욱 민첩해졌고 시선은 항상 그 무엇인가를 파고들듯 날카로워졌다. 아직 공장을 틀어쥐고 움직일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그를 한곳에 멈춰세우지 않고 줄곧 앞으로 떠밀었던것이다.

하루는 그가 재봉기를 집에 들고왔다. 어데 갔다 집에 들어오던 안해가 없던 재봉기를 보자 두눈을 반짝이며 무척 기뻐하였다.

《당신이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덕에 좋은 재봉기가 생겼군요. 언제부터 이런 재봉기가 있었으면 했는데.》

《집에서 쓸 재봉기가 아니요.》

《아니, 집에서 쓰지 않으면 왜 가져왔어요?》

금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뭘 좀 만들어보고싶어 그러오.》

그가 재봉기를 집에 들고온데는 그럴만 한 일이 있었다. 짬짬이 여가시간에 그는 남자옷을 설계했었다. 며칠전에 그 설계를 끝냈다. 그는 그 설계대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볼 생각이였다.

그는 안해에게 그것을 부탁했다. 한때 피복공장에서 일한적이 있는 금선은 피복기술에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있었다.

《당신은 집에까지 피복공장을 확장할 생각이예요?!》

광수는 금선의 악의없는 정겨운 목소리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다. 금선은 혈색이 그닥 좋지 못한 닭알형의 얼굴에 몸이 갱뽀하였으나 표정이 부드러운 여인이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새 주인에 대해 알자면 그 집에 들어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소. 피복공장 지배인이 제 손으로 옷도 한벌 만들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겠소. 참, 언제부터 당신한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공장에는 기능공들이 부족하오. 난 당신이 피복공장에 들어와 일했으면 하오.》

《...》

《당신이 신경통때문에 고생하는걸 모르고 하는말이 아니요. 지금 공장에는 한사람의 기능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오.》

금선은 이렇다할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금선은 만사를 제쳐놓고 남편을 도와나섰다. 그는 남편이 설계한 옷에서 부족점을 찾아내어 수정해주었고 옷모양에 따르는 천의 색깔도 골라주었다.

금선은 며칠동안 재봉기앞에서 떠날줄 몰랐다. 따르륵 따르륵.

재봉질소리는 한밤에도 새벽에도 울리곤 하였다.

어느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광수는 안해가 없는 짬에 슬그머니 재봉기를 돌려보았다.

순간에 재봉바늘이 뚝 부러져나가고 실은 마구 엉키였다. 끄 끄 갑자르며 엉킨 실을 풀고있는데 안해가 들어왔다. 안해는 묻지 않고도 다 짐작하였다.

《험한 일이 없지요? 그저 뚜룩뚜룩 돌리는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헛참, 눈엔 익고 손에는 설다더니...》

광수는 레사롭게 말했지만 뭔가 많은것이 생각키웠다, 아직은 그것이 분명치 않았지만...

드디어 두벌의 옷이 완성되였다. 광수는 그것을 공장에 들고나와 합평회를 조직하였다. 기술준비실 성원들은 한명도 빼놓지 않고 합평회에 참가시켰다.

《내가 오늘 도에 올라갔다가 옷을 두벌 사왔는데 다들 보고 우단점을 찾아바야겠습니다, 우리 공장 제품과 대비해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중구난방 자기

들의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빼놓을세라 머리속에 새겨넣던 광수는 기술준비실장 원춘선을 쳐다보았다. 유독 원춘선만이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것이다.

《실장동무 보기엔 어떻게습니까? 난 우리 공장 제품보다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원춘선은 옷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전 이 옷에서 두가지 결함을 찾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옷웃 아래단에 잡은 주름발이 좀 조잡한것입니다. 녀자옷이라면 어울리겠지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장동무, 왜 그러오?》

원춘선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광수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원춘선이 말끝을 얼버무리며 손을 올려 한쪽눈을 꼭 누르는것이였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좀...》

원춘선은 황황히 눈에서 손을 떼며 말을 이었다.

《다른 하나는 옷안지가 커진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옷형태는 새롭습니다.》

원춘선은 말끝을 서둘러 맺었다. 광수는 선이 뚜렷한 원춘선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광수는 말했다.

《여기에 모인 동무들이 사계절에 맞는 옷을 한 벌씩 설계합시다. 저도 례외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체 공장종업원들의 옷설계현상모집도 할 생각입니다. 설계가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시상도 크게 하겠습니다.》

《지배인동지, 그런 일이야 기술준비실이 있는데 우리까지 동원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럼 우리가 그들만큼 하겠다고...》

채단직장장이 하는 말에 광수는 지뭇게 머리를 흔들었다.

《힘은 합칠수록 커집니다. 물론 기술준비실에서도 더 분발해야 합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도 나날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분발해야 합니다. 기술준비실장동무만 남고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술렁술렁 일어나 방을 나서는 사람들을 쳐다보던 광수는 두손을 무릎위에 포개여엮은 원춘선이한테로 눈길을 돌렸다.

《실장동무, 하나 물어봅시다. 몇년동안 준비실에서 새 제품이 별로 나오지 못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력이 모자라서 그런니까?》

원춘선은 인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피하려는것 같았다. 광수가 지그시 마주보자 할수

없었던지 량미간을 잠깐 찌프리고나서 말했다.

《그건 우리 준비실이 부차적인 일에 많이 동원되었기때문입니다. 전 지배인은 옷형태는 아무런간에 계획만 하면 된다는 립장이였으니까요. 그 사람 눈에는 새것이 보이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기사장이 내밀어주면 되겠는데 그도...》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듭시다.》

광수는 얼른 원춘선의 말을 밀막고나서 화제를 돌리었다.

《실장동무, 가공직장건설이 끝나면 기술준비실도 새롭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동무도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후에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저야 뭘...》 하고 원춘선은 어깨를 처뜨리며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나서 말했다.

《지배인동지, 전 아무래도 공장일을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실장동무 오래동안 공장파 인연을 맺고살았는데 이제 공장에서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소?》

광수는 얼굴에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원춘선은 가슴속에 맺혀있던것을 불시에 털어놓으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신경질적인 초조한 표정을 띄우며 말했다.

《아직은...》

광수의 표정이 납덩어리처럼 굳어졌다. 원춘선의 얼굴에 나타났던 신경질적인 초조한 빛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입만 꼭 다물뿐이였다.

광수는 입술에 주먹을 꼭 눌러대며 음— 하고 외마디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가 간파할수 없는 일에 부딪침을 느꼈다. 그는 차분하고 리지적인 녀인으로 보아오던 원춘선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형언할수 없는 실망을 주리라고는 몰랐었다.

원춘선은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공장에서 일해오면서 자기의 위치를 탈선없이 지켜왔었다. 광수는 그가 어쩌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무시해버릴 생각을 하고있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똑, 똑.

누구인가 문을 두드렸다.

광수는 말없이 나들문쪽을 쳐다보았다. 기사장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광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까지 그런듯이 앉아있던 원춘선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다. 문이 여닫길 때 광수의 어깨가 흠칫했다.

《지배인동무, 혹시 실장동무가 사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장이 담배불을 붙여몰다말고 물었다. 광수는 획 고개를 돌리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물었다.

《기사장동무는 알고있었습니까?》

《집안살림이 여의치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이 두 자식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있으니...

며칠전에 그가 찾아와 그 말을 하기에 말은 좀 했지만 결심에 말했었습니다. 집도 단칸방이지... 참, 놓아주기 아까운 동무인데...》

《실장동무가 단칸방에서 사는가요?》

《예, 네식구가 살기엔 방이 좀 비좁습니다.》

광수는 미간을 찌프리며 습관처럼 주먹을 입술에 꼭 눌러댔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몸가짐을 흐트릴상싶지 않던 그가 손을 뻗쳐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누구를 찾으려는지 통화신호가 나오자 그는 송수화기를 손에 든채 말했다.

《기사장동무, 우리가 중요한 고리를 놓치고있습시다. 확실히 저한테 빈구석이 많은것 같습니다. 수일내로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을 시작합시다.》

《예?》

기사장은 눈을 치떴다. 한순간이 지나자 그는 허겁지겁 웃었다.

《허허, 지배인동문 공장일을 한꺼번에 다 해제낄 생각인가요? 지금 벌려놓은 일도 숨찬데 살림집건설을 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피복공장이 건설기업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지배인의 이마에 순간적으로 주름이 잡혔다.

기사장에게는 광수의 미간에 잡힌 주름살이 기이하게 보였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쌓이는 어떤 불만에 대한 표시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보군...

광수는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킵시다. 정신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사장의 철색얼굴에 까닭모를 어설픈 웃음이 스치었다. 그는 지배인과 마주앉아있는것이 피로운듯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 몸을 일으켰다.

《래달에는 계획을 좀 조절해달라고 합시다. 로력예비는 거기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스적스적 방을 나서는 기사장의 등이 별스레 굽어보였다. 광수는 그가 닫고나간 문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는 기사장과 심리적간격이 생기는것과 함께 점점 자기의 곁에서 멀어져가는것 같은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3

저 멀리 하늘끝에서 초볼같은것이 타오른다. 눈여겨보니 그 불빛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비치고있었다. 저기까지 올라가자면 얼마만 한 시간이 걸릴가?...

쪼파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채 잠들었던 광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광수는 두팔을 벌리며 끄— 하고 기지개를 켜고나

서 방으로 들어서는 안해를 향해 병긋 웃었다.

《어떻게 나왔소?》

《공장구경을 나왔됐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나요, 기능공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는지 모르겠군요.》

광수는 안해의 손을 잡아끌어 자기옆에 앉히었다. 그리고는 눈귀에 가느다란 주름살이 잡힌 안해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가끔 안해의 두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머금은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깃드는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

《왜 그렇게 보세요?》

금선은 상냥하게 미소를 던지고는 얼굴을 찌프리며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당신은 도병원에 언제 가겠소?》

《래일 떠나겠어요.》

광수의 얼굴에 한줄기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었다. 그도 그럴것이 딸의 병이 도져 2차수술을 받아야 했던것이다.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놓은 결과가 오늘의 일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허비었다.

《당신한테 미안하구만. 출장갔다 돌아와서 애한테 꼭 가겠소.》

《당신은 별말을 다. 애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몸을 돌보며 일하세요. 얼굴이 많이 축갔어요.》

광수는 안해의 손을 잡아쥐며 뇌이였다.

《여보, 사람은 태만으로 병들고 로동으로 건강해진다고 했소.》

이때 전화종소리가 다기차게 울리였다.

광수는 몸을 일으켜 책상앞으로 걸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자동수예기를 실어올 자동차가 도착했다는 전화였다. 그는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러던 그는 문밖에 서있는 원춘선이와 마주치자 한자리에 굳어졌다.

《무슨 일이요? 왜 밖에 서있소?》

《저... 전번에 제가 이야기하던...》

원춘선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원춘선의 말뜻을 대뜸 짐작한 광수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실장동문 정말 리기적인데가 있구만. 동무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동무가 한치앞밖에 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소.》

《지배인동지...》

원춘선의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는가싶더니 금시 눈물이 고여오른다. 금선이 남편의 팔소매를 슬며시 잡아당기였다.

광수는 춘선의 얼굴을 외면하며 입을 열었다.

《큰소리를 쳐서 안됐소.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 후에 툇 러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도 동무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수는 원춘선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을 아프게 찔렀지만 돌아보지 않고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갔다. 사실상 원춘선을 이해할 마음의 여유를 못가지고있었던것이다.

자동차는 한시간나마 비속을 달리고있었다. 비방울이 차의 앞시창에 뿌려졌고 철썩철썩 물탕이 차체를 때렸다.

줄곧 차창밖을 내다보는 광수의 시선은 어둠속에서 무엇인가 찾고있는듯싶었다. 쓸쓸한 표정의 한녀인이 시창에 비졌다. 황이 든 잎사귀처럼 벅차고 즐거운 생활에서 밀려나 생기도 그 어떤 보람도 다 잃어버린듯 한 녀인. 그는 다름아닌 원춘선의 모습이였다.

《지배인동지, 눈을 좀 붙이십시오, 밤새껏 가야겠는데.》

운전사가 차의 속도를 늦추며 말했다.

《빨리 가지요. 아침까지는 그 공장에 도착해야 하요.》

닷새전에 광수는 ×피복공장에 사장된 자동수예기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체없이 몇백리나 떨어진 ×피복공장을 찾아갔다. 창고구석에 놓여있는 수예기를 간간히 살펴보고 돌아온 그는 기사장과 그것을 가져올 토론을 하고나서 떠난 길이었다.

광수네는 다음날 아침에 ×공장에 도착하였다. 비는 이미 멎은 뒤였다. 따스하고 찬연한 쪽빛하늘이 중천에 나타났다. 비가 내린 후에 볼수 있는 하늘이었다.

광수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크게 하고나서 공장정문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수예기를 싣고 ×공장을 떠난 차는 벌써 3일째나 길우에 있었다. 정밀한 기계여서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면 안되었기때문에 차의 속도를 낼수 없었던것이다.

《운전사동무, 좀 쉬었다 가지 않겠소?》

차가 여러굽이의 산길을 돌고돌아 고개마루에 올랐을 때 광수는 손가락으로 한쪽눈을 문지르고나서 물었다.

《그냥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공장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운전사는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곧 긴장한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역시 팬찮은 청년이야!)

광수는 며칠동안 운전사와 함께 지내보니 마음에 흠씩 들었다. 운전기술도 높았고 가끔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들어봐도 씨알이 배겨있었다. 광수는 이미 전부터 이 운전사청년을 알고있었다.

피복공장의 가공직장에는 부모가 없이 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한 처녀가 있었다.

광수가 그 처녀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황해도에서 사는 처녀의 이모가 조카들을 데려가려고 공장을 찾아왔을 때였다. 마음속의 근심을 하나라도 덜고싶은 생각이 앞섰던 광수는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선뜻 응했다. 대답을 해놓고나서 그는 이내 자신을 질책하였다.

...내가 이렇게도 리기적인 인간이였는가? 나는 공장의 일꾼이기에 앞서 종업원들의 부모구실, 형구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의 부모가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듯 보낼 생각만 했단 말인가. 당에서 바라는 일꾼이 되려면 난 아직 멀었구나...

광수는 녀인을 그냥 되돌려보냈다. 그후 처녀한테 여러모로 원심을 쓰던 그는 낮모를 한 청년이 공장정문에 자주 나타나 그 처녀를 만나곤 하는것을 띄어보게 되었다. 슬그머니 알아보니 ×기업소의 운전사였다.

그는 우정 시간을 내어 그 청년을 찾아갔다. 중키에 눈이 억실억실한 그 청년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그는 광수에게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전 지배인동지가 그 동무를 친딸처럼 돌봐준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 동무가 몇번이나 외우곤 했으니까요. 지배인동지, 전 그 동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옥성동무가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견우와 직녀처럼 살아야 할가 봅니다.》

광수는 마지막말을 우스개소리로 하고나서 병긋웃는 청년의 미소가 밝지 못하다는것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아무말없이 청년의 어깨를 힘껏 잡았다 놓았다. 그가 처녀를 만나보니 처녀도 그 청년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아직 청년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못해서일가? 처녀는 청년의 사랑을 받아들일수 없는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사연인즉 집안형편이었다.

광수는 인생의 첫어구에 들어선 처녀가 너무도 심각한 감정에 포로되어있는것을 보니 가슴 한귀퉁이가 송곳에 찔린듯 아파났다.

《옥성동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자면 물론 재산도 필요하지만 보다는 서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한거요. 그것만이 가정에 영원한 행복을 줄수 있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정이 짝 차있소.》

《지배인동지!》

두 젊은이는 인차 가정을 이루었다. 공장이 도맡아 처녀의 결혼식을 해주었다.

광수는 집에 있던 텔레비전을 보내주었다....

얼마후 광수네는 공장에 도착하였다.

광수는 공장정문밖까지 마중나온 사람들속에 원

춘선이 보이지 않자(그는 어쩐지 원춘선이 꼭 마중나오리라고 믿고있었다.)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광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기사장이 다가와 말해주었다.

《지배인동무, 실장동문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절 찾아왔더군요. 앞으로 생활이 안착되면 다시 공장에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광수의 머리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단지 생활을 이겨낼 힘이 없어 공장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어렵던 고난의 행군때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는가? 그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있다.)

광수는 언제나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서 고상하고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는데 습관되어있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별로 어렵지 않게 그것을 찾아내곤 했지만 그 순간에는 뺨맞해지는 자신을 다잡을 수가 없었다.

《지배인동무, 기왕지사 떠나간 사람인데 더 신경을 쓰지 맙시다. 참, 래달계획을 조절해달라고 우에 제기했습니다.》

광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기사장의 얼굴에 못박혔다.

《그게 정말입니까? 기사장동무, 잘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 그 계획을 나나 기사장동무 단들이서 결정했습니까? 종업원들모두가 손을 들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사장동문 계획을 조절하기 전에 종업원들의 결심을 먼저 들어봤어야 했습니까.》

흥분된 광수의 목소리는 저절로 높아졌다.

그는 기사장의 말을 더 듣고싶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한마디는 다 그의 감정을 건드릴뿐이었다. 그러나 기사장은 마치도 그런 대답을 예견하고있은듯 얼굴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나타내지 않고 말했다.

《할수 없습니다. 요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공장에서 벌려놓은 일을 빨리 끝내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로력예비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광수는 벌써 몇번째나 기사장에 대한 실망을 느껴온다. 그는 랑립될수 없는 두 사상이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함께 존재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기사장은 광수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아랑곳 않고 지금껏 품고있던 생각을 죄다 쏟아놓았다.

《종업원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육체적힘에도 한계가 있지요. 어떻게 뽀뽀기하듯 단번에 높이 올라서겠습니까?》

광수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의분이 끓어올랐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머리를 떼었다.

《기사장동무, 우리 로동자들을 모욕하지 마시오.

기사장동무는 우리 공장이 올라선 높이가 얼마인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민군군인들이 어떤 구호를 들고 력사에 없던 기적을 창조하고있습니까. 단숨에의 정신이고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이 아닙니까. 그것은 비단 인민군군인들한테만 필요한 정신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공장은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라설수 없습니다.》

기사장은 긴숨을 후- 내쉬었다.

《아무렴 제가 지배인동무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저야 구식인이고 지배인동무야 현대인인데. 난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안정을 해야지 심장이 또 편 안치 않군요.》

기사장은 지친듯 한 걸음을 옮겨놓았다. 정문밖으로 멀어져가는 기사장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는 광수의 마음은 아프고 무거웠다....

4

군당에서 돌아온 초급당비서는 곧장 기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군당의 한 일군으로부터 기사장의 해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온것이였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그런데 기사장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군당에 제기하였다는것이였다.

마침 기사장은 방에 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뿔수록 흥분을 누착히군 하던 초급당비서였지만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단도직입 물었다.

《기사장동무, 년로보장수속이 그렇게 바빠니까? 어째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합니까?》

기사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푹 잤아든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젠 나이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사장은 며칠전에 조용히 군당을 찾아가 자기를 해임시켜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는 나이도 다 되고 몸이 허락치 않아 그런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공장에서 자기의 존재가 점차 희미해지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는 그 원인에 대해 몰랐지만 (실은 알고싶지도 않았다.) 더이상 자기관 존재가 미미해지기 전에 공장을 떠날 생각이였다.

《비서동무, 한때 저에게도 지배인동무처럼 혈기왕성하여 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가도 많이 받았고 명예도 얻었지요. 하지만 이젠 늙었습니다.》

기사장은 말을 끝내고 허거프게 웃었다. 초급당

비서가 따지듯 물었다.

《기사장동문 지배인동무가 그 무슨 명예를 바라고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기준에서 보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허무한 인생을 걸어왔는가 하는 대답을 찾는겁니다. 기사장동무는 편협하고 웅졸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난 며칠전에야 지배인동무의 딸이 두번씩이나 수술을 받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픔을 마음에 묻어두고 오로지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위해 애면글면하고있는 지배인동무를 누구누구 해도 기사장동무가 잘 받아들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초급당비서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잠자코있던 기사장은 뜨직뜨직 말을 하였다.

《제가 괜한 소리를 했군요. 하지만 인간의 흥망성쇠는 항상 엇바뀌우기 마련이 아닙니까. 낡은것은 사멸되고 새것이 탄생하고. 거기에 의혹을 품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야 없지요. 나도 인젠 늙었으니 제때에 물러나야 하는게고...》

《기사장동문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보니 동문 육체가 쇠약해진것이 아니라 정신이 쇠약해졌습니다. 한때 기사장동무는 우리 공장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판사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사장동무가 무슨 일이든 자기 이해관계와만 연결시켜보는데 있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하여 기사장동무의 눈은 흐려지고 현실을 외면하는데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기사장동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배인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한때 이름이 높았던 우리 공장이 퇴보하게 된데는 나나 기사장동무가 체구실을 못했기때문입니다. 우린 그 책임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초급당비서와 기사장이 마주앉아있던 바로 그 시간에 김광수지배인은 자기 방에서 새로 설계한 옷도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요즘에 와서 그는 시간의 촉박감을 더 느끼고있었다. 공장의 실패를 깊이 알수록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생겨나는것이였다.

지금 당장 그의 머리속에는 생산을 활성화하는 일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

광수는 바늘로 찌르는듯 한 아픔에 눈을 감았다. 한참후에 아픔이 멎어 눈을 뜨니 안개가 낀듯 눈앞이 흐려졌다.

편수책상의 빼람을 열고 도수안경을 꺼내던 그의 손이 문득 굳어졌다. 빼람안에 있는 다른 안경집이 눈에 뜨인것이였다. 안경집을 꺼내어 뚜껑을 열어보니 모양이 땀시있는 분홍색테의 작은 색안경이 나타났다. 원춘선이 눈앞이를 한다는것을 알고

×공장으로 떠나는 날 사다놓은것이였다. 사실 그는 원춘선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낼가? 그가 단지 생활상불편때문에 공장에서 떠날 생각을 했을가?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것은 아닐가?... 헌데 나는 어째서 오늘에야 그 생각이 떠오를가?

광수는 원춘선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떠올라 몸을 일으켰다. 그가 사무실앞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한사람이 격석격석 걸어오며 물었다. 공장기술혁신조 책임자였다.

《지배인동지, 아무래도 제가 평양에 있는 연구소에 한번 올라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첫걸음부터 남의 힘을 빌릴 생각이요? 난 우리 기술혁신조의 힘이 그렇게 빈약하다고 보지 않는데...》

광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수예기개조가 많은 난문제들에 부딪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공장 기술혁신조는 수예기를 실어온 후 새로 무어졌다. 광수는 기술혁신조를 조직하여 수예기를 하루빨리 개조하는것과함께 앞으로 공장의 힘을 키울 결심을 하였다. 공장의 힘은 재봉기 대수도 또 덩지큰 공장건물도 아니였다. 발전하는 현실과 보폭을 맞추수 있는 기술을 배태할 때만이 진짜 힘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기술혁신조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기술혁신조가 갓 무어진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아직 역량이 약했던것이다.

광수도 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있지만 이렇다 할 방도를 못 찾고있었다.

《어쨌든 올라가보오. 내 차를 타고가오. 지금 동무들한테는 시간이 무엇보다 귀하다는걸 알아야 겠소.》

광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빠른 걸음으로 공장정문을 나섰다. 한시간후에 원춘선의 집에 들어섰던 그는 지체없이 군병원으로 걸음을 돌리였다. 원춘선이 며칠전에 눈수술을 받았다는것이였다.

광수는 이날에야 원춘선이 어째서 공장을 떠나갔는지 알게 되였다.

광수는 가슴을 파고드는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병원으로 갔는지 몰랐다. 그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가?...

《실장동무!》

임원실로 들어선 광수는 한쪽눈을 붕대로 감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는 원춘선의 곁으로 다가가며 조용히 불렀다.

원춘선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였다. 순간 그의 얼굴에 종잡을수 없는 표정이 뚜렷이 비껴였다. 광수는 가슴속으로 치밀어오르는 주먹같은 뜬뜬한것을 누르며 격하게 말했다.

《동문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소? 내가

그렇게도 미덥지 않소? 난 정말 동무를 오해했겠소.»

《지배인동지, 용서하십시오. 전 생소한 공장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 지배인동지한테 근심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배인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을 받은 눈에 오는 아픔을 참는듯 원춘선의 반듯한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내뿜었다. 원춘선이 그럴수록 광수는 더 흥분했다.

《동문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실망을 주었는지 알거나 하오? 그것으로 하여 하마터면 동무를 오해하고 타매할번 하지 않았소?》

《지배인동지!》

원춘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눈을 살포이 내리감고있는 그의 눈귀로 맑은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었다.

얼마후에 입원실을 나선 광수는 안과과장을 찾아가 원춘선의 눈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다. 50대의 안과과장은 원춘선이 눈을 완전히 회복하자면 다른 사람의 각막이 있어야 한다고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지배인동지, 우리 환자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땐 정말 안타깝습니다.»

광수는 손을 흔들었다.

《과장선생님, 미안합니다. 제 생각만 하다니니... 만약 각막이 있으면 언제쯤 다시 수술할수 있습니까?》

《한주일후에는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수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한주일후에 그는 다시 과장방으로 들어섰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물었다.

《지배인동지,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팔백냥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난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선생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 동무한테는 팔백냥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서 결심을 내리십시오.»

과장은 목이 마른듯 고뿌에 물을 따라 한모금 마시었다. 그리고 나서야 수술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주었다.

《과장선생님,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그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로부터 한달후에 새롭게 개조한 수예기로 첫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날 광수와 기사장은 오래간만에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 그들이 공장정문밖을 나설 때 저쪽앞에서

한 녀인이 총총히 걸어왔다. 원춘선이였다.

원춘선을 먼저 알아본 광수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실장동무로구만. 언제 퇴원했소?》

《지금 오는 길입니다.»

원춘선은 무척 격동된 표정이였다.

《동무가 퇴원할 때 가보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구만. 이젠 눈이 잘 보이오?》

《잘 보입니다. 지배인동지, 어쩌면 그럴수 있습니까. 아무 말씀두 안하시구... 정말 고맙습니다.»

원춘선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하였다. 목소리는 물기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광수는 부러 엄엄한 표정을 지었다.

《실장동문 새삼스럽게 뭘 그러오? 점직하게소리... 다시 그러면 정말 성을 내겠소. 자, 가가요. 우리 퇴근하는 길ियो.»

《먼저 들어가십시오. 전 공장에 들러보고 가겠습니다.»

원춘선은 누가 붙잡기라도 하듯 재빨리 정문안으로 들어갔다. 걸어가면서 손을 얼굴에 가져가는 모양이 바라보였다.

《춘선동무가 돌아왔으니 이젠 한시름 놓입니다.»

기술준비실쪽으로 걸어가는 원춘선의 등뒤를 이윽히 바라보던 광수는 걸음을 떼며 말했다. 기사장도 스적스적 그와 보폭을 맞추며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난 지금껏 내가 올라선 봉우리가 제일 높은줄 알았습니다. 자기만족에 겨워 살았지요. 지배인동무는 나보다 훨씬 높은 봉우리에 서 있습니다.»

《뭘 그러니까, 쑥스럽게. 인생총화를 너무 일찍 하는게 아닙니까. 인생의 가치는 각성과 분발에 있는것이지 생존에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설 봉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시려 견고걸으시는 그 자욱을 따라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빨리 가닿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자, 손잡고 힘껏 달립시다.»

기사장의 눈앞에는 그 봉우리들이 우뚝이 떠올랐다.

이듬해 1월에 그들은 가공직장건설을 끝냈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 새집들이도 하고.

몇년어간에 공장은 많은 봉우리들을 뚫아올랐다. 오늘도 그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령마루를 향하여 정신력과 힘을 총발동하여 힘차게 달리고있다.



신 승 구
그림 김 광 석

1

귀일리남새작업반장 유철은 신이 나서 프락포르를 몰아가고있었다. 상반년도 남새파일생산실적총화에서 상으로 받은것이였다. 귀일리는 남새파일이 잘되기로 소문난 고장이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도마도나 참외가 잘돼보기는 농장이 생겨 처음이였다.

봄내, 여름내 땀흘려 일한 농장원들에게 어서빨리 새 프락포르를 보이고싶어 유철은 가스답판을 줄곧 밟아댔다.

그 프락פור는 디젤유대신에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달리는 차라고 한다. 비탈밭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며 짐을 한쪽에 많이 실어도 자동적으로 균형을 보장할뿐만아니라 어쩌다가 발가운데에 바위돌이 있어도 거침없이 걸어낸다고 한다. 더우기 신기한것은 도마도나 수박밭을 지날 때에는 로봇트손이 움직여 과일을 따서 적재함에 싣는다니 일하기가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뛰니뛰니해도 기뻐할 사람은 얼마전에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농장에 와서 기술원으로 일하는 외동딸인 영심이일것이다. 새로운 남새파일종자를 얻어내느라, 그걸 또 알알이 심어가꾸느라 얼마나 애를 쓰며 뛰어다녔던가. 봄빛보다 바람이 먼저 찾아온다는 이 고장의 들바람에 그리도 곱던 얼굴이 꺼칠해지고 입술마저 터갈라졌어도 늘 분홍색머리수건을 날리며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뛰어다닌 영심이었다.

어느덧 프락פור는 《벼루날기》라 부르는 고개에 들어서고있었다. 이 고개만 넘으면 귀일리는 잠간사이에 닿는다. 그런데 이 령길을 넘기란 정말조런치 않다. 자동차 두대가 겨우 어길 좁은 길인데 왼쪽에는 가파로운 벼랑이고 그밑에는 호수물이 출렁인다.

그러나 쫓아 한때는 프락포르를 몰고 험한 령길도 제집 문턱 넘듯 하던 유철인지라 자신있게 고개마루에 접근해갔다. 그런데 기세줄게 툭툭거리며 달리던 프락포르가 중턱에서 덜컥 벗어나는게 아닌가? 발밑에는 시퍼런 호수물이 깔렸다. 운전대앞에 붙은 술한 계기들이 저마끔 색깔불빛을 내보내고있었지만 그것이 왜 번쩍거리는지 또 어느 단추에 손을 대야 할지 알수 없는 유철이었다.

(허, 이 일을 어쩐다?)

떠날 때 관리위원장(그는 한달장습으로 군에 올라와있었다.)이 하던 말이 새삼스레 갈마든다.

《남새작업반장, 자네는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그 차를 못 몰아. 강습을 받은 운전수를 오게 하라구.》

《오늘 운전수가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좋구만. 그런데 약혼식을 아침부터 하오?》

《아, 리발도 하고 목욕할 시간도 줘야 할게 아닙니까? 보아하니 수동장치도 있는것 같으니 마음놓수다. 아무리 자동화된것이라도 프락포르운전법이야 어디 가겠소?》

그런데 운전법이 전혀 다르다. 관리위원장의 말대로 운전수를 오게 했어야 할걸 하는 때늦은 후회가 가슴을 찔다. 그러나 이제야 어찌겠는가? 물고가는 수밖에...

《휴!》

유철은 목단추를 풀어헤쳤다. 지나가는 자동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허둥거리는 눈길로 길바닥을 황황히 더듬었다. 혹시 지나는 사람이 있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닌게아니라 뒤에서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미쳐온다. 저도 모르게 후사경에 눈길이 갔다. 그러나 기대어린 그 눈길은 인차 돌려지고말았다.

거울에 나타난 사람은 제깁깃양복에 붉은색넥타이를 맨 젊은 청년이었는데 한손에는 맵시나는 트렁크까지 들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보나 점잖은 걸음새로 보나 이 아근에 사는 농장원은 아니고 도시에서 오는 길손이 분명했다. 그러니 농장들에서만 쓰는 프락토프속내를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청년은 길가에서 프락토프를 만난것이 사뭇 반가운듯 트렁크를 내려놓고 얼굴의 땀을 훔치고있다.

《귀일리로 가는 프락토프가 아닙니까?》

유철은 평한 눈길로 청년을 쳐다봤다.

《그렇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자 청년은 땀뻘 얼굴에 싱그레 웃음을 실으며 한걸음 다가든다.

《상반년도생산총화에서 귀일리남새작업반이 1등을 했다고 소문이 짜 하더군요. 그러니 이런 최신티프락토프를 받을만 하지요. 신세를 좀 집시다.》

《허, 고장이 난 차를 어떻게 타고간단 말ियो? 프로그램화된 현대적인 프락토프란 말ियो.》

《제가 좀 볼가요?》

청년은 웃옷을 벗어 트렁크우에 착 개여놓더니 내의소매까지 걷어올린 후 자신있는 걸음걸이로 프락토프에 다가든다.

(이 사람 봐라?)

유철은 청년의 해말썽한 얼굴과 매출한 손을 보고나서 이마살을 찌프렸다.

(허, 젊어 한때는 소문난 운전수였던 나도 어찌지 못하는데...)

유철은 입을 껌 다시고나서 부득부득 운전칸에 오르는 청년에게 일렀다.

《제멋대로 운전단추를 눌렀다가는 변이 나오. 저벼랑밑에 호수가 보이지 않소?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바빠맞은 미국놈들이 이 길로 도망을 치다가 술한 자동차들이 벼랑에 떨어져 모두 황천객이 되고말았다고. 그때부터 벼랑에 올라서기만 하면 날아떨어진다고 〈벼루날기〉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적들이 벌벌떨었다는거요.》

《하하, 적들이야 벌벌 떨었겠지만 우리야 왜 떨겠습니까? 이 차는 수동장치도 되어있지만 왜 불편하게 수동으로 가겠습니까? 단추만 누르면 프락토프가 자동적으로 길바닥을 살피면서 달리게 되어있으니 벼랑에서 떨어질 일이 없지요. 어서 차에 오르십시오.》

발동소리가 귀맛 좋게 툭툭거리며 유철을 불렀다.

《거... 희한하군. 그러니 벌써 차를 고쳤단 말인가?》

《고칠거나 있습니까? 저장합금에 저축되었던 수소가 다 소비되었더군요. 다른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마침 예비가 있었군요.》

《저장합금?...》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 유철에게 청년은 설명했다. 수소차라고 하여 수소를 그냥 싣고다니지 않는다는것, 수소는 부피가 크기때문에 압축하여 수소 저장합금이라는 자그마한 특수합금에 충전시켰다가 차가 달릴 때 솔금솔금 연소실에 넣는다는것이다.

구조와 시동이 간단하면서도 휘발유나 디젤유처럼 대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

유철은 한동안 멍하니 청년을 쳐다봤다. 보아하니 유능한 운전수가 아닌가?

《그래 귀일리는 뭇하러 가는거요?》

《전 연구사입니다. 남새유전학을 연구하는...》

《영? 운전수가 아니라 연구사라... 그러니 연구사업으로 우리 마을에 오는 길손인가? 반갑소. 내 귀일리남새작업반장이요.》

청년은 유철에게 겸손하게 말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년은 몇개의 조종단추를 누르고나서 앞길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무릎에 올려놓은 트렁크우에 척 책까지 펼쳐든다. 프락토프는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절로 아슬아슬한 경길을 썩썩 내달린다.

유철은 프락토프가 달리는 찜시간도 아껴 책을 보는 청년을 황홀하게, 지어는 신기한 눈길로 쳐다봤다. 저렇듯 직심스레 공부하는 사람이 모르는게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유전학과는 거리가 먼 프락토프운전법도 알고있으리라! 전공도 아닌 프락토

르에 저렇게 밝은데 다른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또 내가 귀일리남새반장이란건 어떻게 알았을가? 흰칠한 이마에 불거진 뒤통리, 예지가 찰랑찰랑 고인듯 한 검실한 두눈. 저렇게 총명해보이는 청년이 모를리 없지....

겸손한 몸가짐과 행동거지, 말마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드는 청년이었다. 이름은 김학철이라고 한다. 그런 청년이 우리 마을에 온다니 이 아니 경사인가.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은 남새과일농사를 잘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기술원인 영심이일것이다.

나이찬 딸을 가진 부모들은 마음에 드는 총각을 보면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진다고 한다.

유철은 청년과 딸애를 나란히 세워보았다. 아무모로 보나 딸애가 짝질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심이로 말하면 농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겠다, 인물 굵고 일 잘한다고 이 아근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 총각이 연구사라고 짝질것이 무엇이랴?

유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청년의 흥분된 얼굴과 산뜻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주시했다. 명상에 잠긴듯 한 그윽한 눈동자... 거기에는 분명 범상치 않은 태일을 그려보는듯 한 환희로운 감정이 함뿍 어린듯 하다.

유철은 트렁크를 그 무슨 보물처럼 꼭 껴안고가는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그 트렁크를 귀히 건사하는걸 보니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듯 한데...》

《연구사업에 쓸 물건이 있지요. 들추면 안되거든요.》

《연구사업? 그런걸 난... 레장감이라도 들어있는가 했지?》

청년은 뜻밖이라듯 한동안 상대방을 쳐다보더니 홍조어린 얼굴에 싱그레 미소를 실었다.

《히, 레장감이라니요? 전 아직...》

유철은 그 소리에 단번에 마음이 흥그러워져 반갑게 응수했다.

《그러니 총각이로구만. 우리 마을엔 꽃같은 처녀들이 많도. 내가 처녀를 소개해줄가?》

유철은 상대방의 눈치를 은근히 살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청년이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담았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전 이미... 대상자가...》

《그-래? 어디에...》

《저... 농업대학 박사원생...》

《그렇구만!》

한풀 꺾인 목소리가 유철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구울어나왔다. 그러니 도시처녀를 이미 택한 모양인가?

서운했다. 저렇게 기계속에 밝고 정열적이고 상냥한 총각을 사위로 맞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트랙토르는 규격포전복판을 가로질러 마을로 곧추 잇닿은 농촌길로 한동안 달리더니 어느새 귀일리남새작업반마당에 들어섰다.

구름속을 빠져나온 부채살해빛이 트랙토르의 신기한 부속들을 환히 비쳐 반짝반짝 윤기를 발산하게 했다. 먼길을 달려오느라 먼지를 좀 들쓰긴 했지만 역시 새로운 트랙토르는 불맛이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 식당에서 일하던 취사원아주머니마저 취사복을 입은채로 달려나왔다.

《트랙토르가 참 희한하구만요. 반장아주버니,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은 취사원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수고했을게 뭐요? 농장원들이 애써 노력한 덕이지. 취사원아주머니도 수고했고...》

《애개개, 밥이나 해주는 내가 뭘 한게 있다고...》

취사원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실한 한팔을 내젓는다.

유철은 뜨물을 버리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취사원을 다시 불렀다.

《귀한 손님이 왔소. 농업대학에서 유전학을 전공하는 연구사선생이요. 숙소도 깨끗이 청소하고 식사도 잘 대접하오. 알겠소?》

유철은 달려가는 취사원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잊지 말것은 우리가 가꾼 도마도를 숙소에 가져다놓소. 아마 깜짝 놀랄거요.》

《나도 다 생각이 있수다. 그 맛을 보면 아마 우리 귀일리에 당장 정이 들거웨다.》

유철은 취사원을 보내고나서 작업반실로 들어갔다. 통계원이 콤퓨터로 실적표틀 보이며 흥이 나서 말했다. 올해는 도마도가 알알이 잘 익어 현금분배뭉이 훨씬 늘어난다고...

《그래 얼마나 늘어나게 되오?》

《아마 지난해보다 다섯배는... 작업반이 생겨 처음이지요.》

《다섯배라... 그만하면 자랑할만도 하지...》

호뜻한 기분으로 담배를 붙여무는데 취사원이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도마도그릇이 들렸다.

《무슨 일이요? 아직 우리 농장 도마도를 대접하지 못한게 아니요?》

《대접이 다 뭐가요? 아, 글썄 도마도를 보자마자 맛도 보기 전에 이마살을 찌프리는게 아니겠나요?》

《그건 왜?》

《뭐, 도마도알이 작다나요?》

《뭐? 작다구? 소문이 자자한 우리 도마도가?…》

유철은 색깔고운 도마도 한개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해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허, 우리 영심이가 종자개량을 해서 이렇게 커진 도마도가 작다니?》

《어디 그뿐인줄 아슈? 도마도가 몇알이나 달리는가 하길래 적어도 한 50알은 달린다고 좀 보태서 말했지요. 했는데도 내 기막혀서…》

취사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동이만 한게 적어도 한 천알쯤은 달려야 한대나요.》

《뭐, 천알?... 동이만 한게?...》

유철은 당장 의자에서 뛰쳐일어났다. 성난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저런 허풍쟁이가 있나? 트랙토르를 좀 물기에 좋게 생각했더니 알고보니…》

당장 도마도를 들고 찾아가 시비를 가르고싶었다. 그러나...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대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가을 남새파종이 한창인 이즈음인지라 어디서나 반장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다. 지시도 주고 조인도 주고 직접 일손도 잡아야 했다. 작업반실에서 공담으로 시간을 보낼수는 없었다.

저녁해가 아직은 한발만큼 공중에 떠서 엷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유철은 채 내려가지 않은 알알한 심정으로 오토바이발디디개한테만 해보며 앵앵 바퀴를 돌려댔다. 남새파일농사를 잘해서 상으로 트랙토르까지 받았는데 뭐 도마도알이 작다구? 알알이 크고 잘 익은 우리 도마도가?...

남새포전에 도착한 유철은 깜짝 놀라 멈추어섰다. 작업반실마당에 있어야 할 트랙토르가 지는 해

빛에 차창을 번쩍거리며 포전을 달리고있지 않은가? 농장원들은 그뒤를 따라가며 와와 환성을 지른다. 그리고 지금쯤 침실에서 목침을 베고누워 술술 도마도맛을 보며 휴식을 해야 할 청년이 농장원들앞에서 제법 손세까지 써가며 그 무슨 연설을 하고있다. 그때마다 농장원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이 와와 웃음을 터친다.

트랙토르가 포전길을 전진할 때마다 로봇트팔이 잘 익은 도마도를 알알이 골라파서는 적재함에 저절로 실으니 농장원들이 흥겨워할만도 했다.

제일 좋아하는건 딸애 영심이인것 같았다. 고운 얼굴에 노상 웃음을 남길거리며 새로 온 총각과 줄곧 말을 건네는데 반장인 자기도 모를 DNA니, LP유전자니 유식한 말만 한다.

(아니, 저 애가... 만나자마자 저렇게 어울리다니?)

딸애가 기술원이니 연구사와 말이 통할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도 허물이 없지 않은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유철은 딸 영심을 불러 조용히 일렀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다사해졌니? 처음 보는 청년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처음 보는 사람이라니요? 우린 대학동창이에요. 한학급에서 공부했지요 뭐...》

유철은 반달눈섭을 치켜뜬 딸애의 감실감실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언성을 높였다.

《대학동창이라구? 그래두 그렇지. 유명한 우리 귀일리 도마도를 너무 알본단 말이다.》

영심은 까르르 웃음을 터친다.

《그래서 성났어요? 아버지, 사실 도마도알이 작은건 사실이지요 뭐...》

《작다니? 너두?...》

《호호, 아마 아버지도 차차 알게 될거예요.》

영심은 들바람에 익어 더더욱 고와보이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싣는다. 그리고는 까르르 웃으며 저만큼 달아간다. 유철은 달아가는 영심을 다시 불러세웠다.

《애야, 그 청년은 이미 대상이 있는 총각이야. 알겠냐?》

영심은 흥조어린 얼굴을 조금 숙이는것 같더니 다시금 웃음을 날리며 사람들이 일하는 들판으로 쫓기듯 달아간다. 쟁쟁 울리는 웃음소리가 딸애와 함께 구울러간다...

《호호호, 걱정놓으세요. 아버지!》

아침이었다. 장마철구름을 걷어낸 새파란 하늘에 아침해가 등실 뿔다. 멀리 창공너머에서 찬연한 햇빛이 줄줄이 미쳐와 작업반실창가에서 컴퓨터를 마주하고있는 유철의 얼굴을 환히 비쳐주고있다. 유철은 지금 컴퓨터화면을 통하여 필지별 가을남새과종정형을 료해하고있었다.

남새작업반은 한해에 두번 농사를 짓는다. 한번은 봄농사, 다른 한번은 가을농사. 봄농사는 그야말로 멋지게 마무리를 지은셈이다. 도마도를 비롯한 남새과일이 군적으로 1등이다. 이제는 배추, 무우와 같은 가을남새에서 다시한번 비약을 해야 할 것이었다.

그가 마주하고있는 량자컴퓨터는 자료를 병렬처리하여 그 결과를 영상으로 현실처럼 펼쳐보인다. 지력과 남새종자의 특성, 한두달사이의 일기예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앞으로 예견되는 남새의 작황이 화면에 펼쳐진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수확철의 남새작황은 그야말로 흐뭇한 대풍이다. 또다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학철연구사가 유전인자를 도입했다는 도마도발만은 어찌되겠는지 바이 알길이 없다. 도마도포전은 1분조가 담당한 전체 남새포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니 연구사의 도입실험이 실패하는 날에는 1분조가 심한 손해를 보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장원들에게 차례지는 현금분배도 작아지기마련이다.

연구사업이 성공할수 있겠는지? 트랙포트를 타고올 때에는 더할나위없이 총명하고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요새와서는 그 좋던 인상이 다소 흐려진것만은 사실이다. 도마도가 호박이나 동이만큼 자랄수 있다니? 설사 그렇다 한들 연약한 도마도줄기가 것처럼 큰 열매를 달고 견딜수 있을까? 아마도 참나무가지처럼 든든하고 실하다 해도 당장 휘어들어 땅에 코를 박고말것이다.

그러나 과학이란 요지경처럼 신비롭다지 않은가? 혹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 어이 알랴!

호주머니에서 올려나오는 화면전화종소리가 유철의 번거로운 생각을 깨쳤다. 전화기화면에 1분조장의 상기된 얼굴이 나타났는데 어찌나 흥분했는지 큼직한 주먹코가 벌름거리고있다.

《무슨 일이요? 1분조장!》

《대학에서 왔다는 그 유전학연구사를 믿었다가는 남새농사가 아예 폐농이 될것 같습니다.》

《폐농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분조장이 헤덤비며 전하는 말이 도마도일들에 주입했다는 그 유전자씩이 실날처럼 돋는것 같더니 지난 밤에 다 죽어버렸다는것이다.

《죽어버렸다고? 야단이로군. 그럼 연구사에게 알려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한다고요? 조금 있으면 절기가 바뀌겠는데 도마도가 열리거나 할것 같습니까? 설사 새알같은것이 달린다 해도 아마 다 쫓아떨어지고말것입니다. 계절을 어길수야 없지요. 반장동지, 우리가 한두해 도마도농사를 해봅니까?》

《그러니 유전학연구사를 믿지 못하겠다는건가?》

《그래 반장동지는 믿음이 갑니까? 결국 녹아나는것은 우리1분조란 말입니다.》

유철은 전화기를 내리우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연구사의 말이 허황한 공상이었던 말인가? 아니, 그런것 같지는 않다. 딸 영심이도 연구사를 믿는 인상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 계절이 지난것만은 사실이었다. 도마도가 동이만 하기는커녕 새알만큼도 자라기 전에 쌀랑한 날씨에 다 떨어지고말것이다.

유철이 천정만 올려다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데 전화기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막을 쳤다.

《어서 결심하십시오. 남새계절이야 한초가 귀중하지 않습니까?》

유철은 손을 뻗 내저으며 소리쳤다.

《예익, 갈아엎든지 말든지 분조장생각대로 하오.》

대답을 해놓고보니 허전한 마음을 달랠길 없다. 커다란 믿음이 물먹은 담벽처럼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다. 트랙포트를 타고오면서 그가 보았던, 나무랄데없이 진지한 청년의 모습이 엇갈려 안겨들기도 한다.

유철은 벌떡 일어섰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그리하여 막 포전으로 나가려던 참인데 책상위에 놓인 전화기가 드르륵 울린다. 송수화기를 드니 군에서 오는 전화였다. 관리위원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귀에 닿는다. 그가 한달강습을 마치자면 아직 며칠 더 걸려야 할것이다.

《그래 프락토르를 무사히 물고갔소?》

《아, 말두 마십시오. 황아장수망신 고불통이 다 시킨다고 하마트면 벼랑에...》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고막에 닿는다.

《하하, 내 그럴줄 알구 연구사선생을 따라내려 보냈댔소. 현대과학을 몰라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걸 아마 단단히 느꼈을테지? 그래 내가 일전에 내려보낸 유전자에 대한 책은 보았소?》

유철은 저도 모르게 뒤더수기에 손이 갔다.

《글쎄, 보느라군 하는데 어디 시간이...》

《분초를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오. 그래야 연구사선생을 도와줄수 있을게 아니요?》

《그런데... 연구사업이...》

《알고있소, 첫 도입실험이 실패했다는것을... 그래 반장동문 처음부터 성공할줄 알았소? 유전학은 힘든 과학이요. 그러나 유전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식탁을 꾸밈하게 할수 있는 과학이라는걸 난 강습기간에 다시한번 톡톡히 느끼게 되었소. 그러니 연구사선생을 잘 도와주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고 머리를 쳐드니 열려진 문밖에 취사원의 등실한 얼굴이 얼씬한다. 손에는 음식그릇을 담은 쟁반이 들렸다. 식당쪽으로 가는걸 보니 연구사의 침실에서 나오는 길이 분명했다. 그런데 늘쌍 벙글거리던 녀인의 얼굴이 장마철하늘처럼 흐려있다.

《취사원아주머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그건 도대체 누구의 식사요?》

《누군 누구겠나요? 연구사선생의것이지. 식사를 이렇게 안하니 내 마음이 좋을터이 있수?》

유철이 다가가 쟁반우에 썩은 보자기를 헤치고보니 아닌게아니라 밤을 한술 뜨다가 말았다.

노란 닭알볶음이며 먹음직한 오리고기볶음, 이 고장에선 희귀한 송어탕까지 올라있어서 손님대접을 위한 식사로서는 정말 나무랄데가 없다. 그런데 왜 식사를 안했을가?

취사원이 주저주저하며 이르기를 연구사가 요즘 아예 입맛을 췌했는데 아무리 좋은 찬을 해놓아도 숟가락을 드는등마는등 한다는것이다.

《고심이 심한것 같아요.》

밤에는 연구사업을 하느라, 낮에는 또 낮대로 포전에 나가 일을 하느라 밤낮없이 뛰어다니니 사람이 철덩어리가 아닌 이상 견딜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어제부터는 아예 자리에 눕고말았다는것이였

다. 영심이가 안타까와 영양보충을 해주겠다고 닭알꾸레미도 들고오고 입맛을 돋굴 찬거리를 찾아 오늘 새벽에는 20리나 되는 어창에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그렇다...》

뒤집을 짓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던 유철은 부리나케 문을 나섰다. 발걸음은 저절로 연구사가 든 속소로 향해졌다.

숙소문을 열고 들어서니 침대에 누워있을줄 알았던 연구사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컴퓨터앞에 다가앉아 무슨 계산을 하고있지 않는가? 연구사의 타는듯 한 눈길에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더듬어 분주히 오르내린다. 옆에 놓인 현미경을 가끔 들여다보다가는 속에 불이 이는지 물사발을 들고 물을 마신다.

다시 화면에 눈길을 주며 어찌나 일에 정신을 팔고있는지 사람이 들어선것도 모르고있다. 현미경과 컴퓨터화면을 번갈아 바라보며 수첩에 뭔가 기록하고나서 세세히 들여다보던 청년이 두손을 맞잡으며 갑자기 나직이 탄성을 터쳤다.

《아, 찾았다, 찾았어!》

유철의 의아해하는 눈길에 청년의 환희에 찬 얼굴에 닿았다.

《도대체 뭘 찾았다는거요?》

《아, 반장동지이시군요. 원인을 찾았단 말입니다, 원인을... 왜 돌아오오던 싹이 다 죽었는지 이제 알만 하단 말입니다.》

유철은 흥분으로 한껏 붉어진 청년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다급히 물었다.

《그래 원인이 어데 있다고 생각하오?》

《무균을 하지 못하는데 있었습니다.》

《무균이라... 그게 그렇게도 중요했던 말인가?》

이때 등뒤에서 울리는 영심의 목소리가 고막을 쳤다. 돌아보니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 딸애의 얼굴이 온통 고추빛으로 익었다.

《그래요. 아버지, LP유전자의 유합조직은 무조건 무균발아되어야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균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부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새겨들지 않았지요?》

그건 사실이였다. 바쁜 농사철이고 무균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랴 하는 생각에 하루이를 미루지 않았는가? 그러니 도입실험에 실패한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

학철은 옆에 놓인 트렁크를 상우에 올려놓았다. 유철이 의아해서 쳐다보니 고개마루에서 청년이 들고오던 그 맵시나는 트렁크였다.

《반장동지, 여기에 뭘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유철이가 머뭇거리자 학철은 말을 이었다.

《여기에는 도마도를 비롯한 작물들을 크게 자래울수 있는 LP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영심동무와 함께 연구한 유전자, 다시말해서 DNA라는 도마도의 유전정보를 복제할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모든 식물은 핵과 세포의 분열로 성장하지요. 일조물이 좋으면 세포의 분열이 잘되어 식물이 빨리 성장하고 도마도가 많이 달리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광합성만으로는 열매가 많이 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촉진하면서도 유전정보인 DNA를 부단히 복제하면서 분열된 세포의 치수를 몇배나 크게 하자는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도 많이 달리고 도마도를 크게 자래울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종자개량이 아니라 유전자공학에 기초해서 도마도재배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하자는것입니다. 우리가 LP유전자를 도입하는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컴퓨터모의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사가 컴퓨터건반을 몇개 누르자 화면에는 도마도에서 DNA의 복제과정이 생동한 화면으로 펼쳐졌다. 세포의 외형이 커감에 따라 자그마한 도마도가 정말로 동이만큼 커졌다. 새로 나타난 도마도와 종전의것을 대비하니 이전의것이 정말로 작아보였다. 호두알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분에 잠겨 화면을 들여다보던 유철은 불쑥 몸을 솟구었다. 머리속에서는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유전정보인 DNA를 저렇게 복제한다면 말인지? 만일 그 복제속도가 빠르다면 그만큼 세포의 치수가 커질것이고 따라서 열매가 크게 자랄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자연적인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촉진한다면 열매가 많이 달릴것도 사실이고...)

연구사는 겸손하게 말을 이었다.

《물론 제가 작성한 컴퓨터모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고장의 기후풍토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했을수 있으니까요.》

유철은 연구사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봤다.

유철이도 컴퓨터모의라는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다. 그는 연구사의 과학적추리와 컴퓨터모의가 정

확하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저렇게 총명하고 착실한 과학자가 실수할리가 있겠는가? 모든걸 충분히 고려했을것이다.

알아야 연구사를 도와줄수 있다던 관리위원장의 말이 다시금 상기되었다. 그러니 내가 유전학의 신비의 세계를 미처 몰랐구나!... 새 프락포르운전법을 몰랐던것처럼!...

유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왜 그러십니까?》

《아쉽구만, 절기를 놓친것이... 도마도가 자랄 시간적여유가 없으니 말ियो. 그러니 다음해 봄에 가서나...》

청년은 터갈라진 입술에 온화한 미소를 띄워올리며 명쾌하게 대답했다.

《전 과학자로서 단언합니다. 복제된 도마도세포는 성장속도가 빨라서 찬 대기의 영향을 받기 전에 벌써 다 익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일조물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도 예견하고있습니다. 도마도 한알이 호박이나 동이만 할터이니 아마... 호박넝쿨처럼 덩대를 매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구만! 알만 하오! 이제는 알겠단 말ियो!》

유철은 《내 포전에 나갔다 오겠소.》 하고는 썩하니 바람을 일구며 방을 나서는것이였다.

그는 걸어가면서 화면전화기를 꺼내들었다. 1분 조장을 찾았으나 아무런 응대도 없다. 아마 프락포르소리에 전화신호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이 분명했다. 프락포르르는 지금 연구사가 그렇게도 아끼던 도마도밭을 마구 짓밟개버릴것이다. 아마도 지금썩은 밭을 다 갈아엎고 가을남새종자를 뿌렸는지도 모른다. 아니, 조금이라도 남겨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현장휴계실에 들러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무작정 몸을 실었다.

장마철뒤끝이라 내물에 길이 막혀 한동안 에돌다가 도마도밭에 이르니 프락포르르는 벌써 밭을 거의 다 갈아엎고있다.

자기보다 먼저 밭에 이른 학철이와 영심은 다가오는 프락포르앞을 막아서고있었다.

프락포르의 코앞에서 영심이가 두팔을 번쩍 쳐들었다.

《세우라요!》

놀란 운전수가 제동기를 밟는통에 차창에 머리부딪치는 소리가 《탕.》 하고 울렸다. 당장 이마

에 흑이 블록 솟아났다. 상처를 쓸어만지던 운전수가 성이 나서 고함쳤다.

《정신있어? 죽자고 그래? 래일 당장 결혼식을 해야겠는데 이 꼴을 해가지고 어떻게 새색시를 데리러 간단 말이야.》

《도마도밭을 갈아엎어서는 안돼요.》

《뭐? 난 지령을 받았단 말ियो. 다 따먹은 도마도밭이 뿔이 그리 중해서? 이제는 가을남새를 심어야 한단 말ियो. 이 밭이 제일 꼴찌라는걸 알거나 하오?》

《그래도 안돼요.》

운전수는 모자를 벗어 획 내던졌다.

《농사를 잘 짓자는게 내 혼자 생각인가 하는게지? 비키오.》

프락포르르는 다시 부르릉 하고 용을 쓰며 내달릴 차비를 했다.

이번에는 연구사가 한발 나섰다.

《운전수동무, 우리도 농사를 잘 짓자는것입니다. 도마도밭을 이것만이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내 동무네 아이 첫돌생일에 동이만 한 도마도를 선사할테요.》

《하하, 동이만 한 도마도를 태여날 우리 애한테 선물한단 말이지?... 사람 웃기누만. 연구사선생, 프락포르르나 몬다고 숙보는게 아니요, 응? 당장 비키란 말ियो.》

그다음 세차게 울리는 밭동소리...

만일 그때 유철이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어떻게 번져갔을지 모른다.

《운전수, 당장 프락포르르를 세우지 못하겠소?》

반장의 찌렁 울리는 목소리에 와들 놀란 운전수는 차를 세우고 운전칸에서 뛰어내렸다.

《누가 이 도마도밭을 갈라고 했소?》

운전수는 억울한듯이 항의했다.

《아, 그거야 반장동지가 승인하지 않았...》

유철의 고함소리가 다시 울렸다.

《완전히 승인한것은 아니란 말ियो. 그땐 그때 구 지금은 당장 프락포르르를 돌리라구. 알겠어?》

운전수가 뒤더수기를 굵으며 불멘 소리를 쳤다.

《허,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운다더니... 내 참!》

다. 남새작업반은 남새의 새싹이 움트는 이 시기가 다른 농장의 모내기철만큼이나 바쁘고 긴장하다. 남새란 일조물과 대기의 온도와 습도, 날씨에 특히 예민하다. 그러니 밭육상태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게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도마도에 유전자공학을 도입한다.

일기나 계절적조건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연구사와 영심이가 하겠다고 한다. LP유전자를 도마도의 잎에 주입하여 배양하면 유합조직이 생겨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난다. LP라는 유전자에 의하여 DNA가 부단히 복제되고 세포분열이 강해진다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훨씬 크고 탐스러운 도마도를 한겨울에도 상점들에 충분히 공급해줄수 있을것이다.

도마도에는 간염이나 뇌혈전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리코빈을 비롯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니 도마도를 사철 펴구지 않고 공급한다면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얼마나 리롭겠는가? 과학이란 괴이한 것이어서 아무에게나 호락호락 자기의 내막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실한 과학자앞에서는 굳게 닫졌던 그 비밀의 대문도 활짝 열어놓게 될것이다!

유철은 하늘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유정한 달빛을 밟으며 천천히 포전길을 걸었다.

삼라만상은 고요속에 잠겼다. 구름속을 빠져나온 둥근달이 포전 어데라없이 은은한 빛을 휘뿌리며 대지를 포근히 감싸주고있다. 밭머리 어디선가 울려오는 풀벌레소리가 줄줄줄 흐르는 물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유정한 밤의 대기속에 귀맛좋은 노래의 선율을 날라온다. 그러나 유철의 심장에 닿는 소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음향이 아니었다. 이 시각도 풍요한 대지를 뒤덮으며 우썩우썩 커가는 남새잎의 설레임소리였다. 귀에 익고 마음에 젖은 그 소리를 즐겨들으며 한동안 포전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보니 학철이와 영심이가 애쓰며 가꾸는 도마도밭이었다.

프락포르르운전수가 갈아엎어 얼마 남지 않은 도마도포전이었다. 학철이와 영심이는 청년분조원들의 방조를 받아가면서 이미 있던 도마도잎들에 정성스레 유전인자를 주입했다. 이제는 일주일나마 기일이 지났으니 싹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마련이 있을것이었다.

(제발 이번에는 싹이 나와야 할텐데…)

전지불을 들고 찬찬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낡은 도마도잎에 새싹이 생겨난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관리위원장이 보내온 책에서 본 유전자싹이 분명했다. 요즘에 와서 밤새여 열심히 공부한 덕에 그 책의 내용은 물론 그림까지도 환히 기억하고있는 유철이었던것이다.

유철은 새로 돌아난 새싹들을 두손으로 정히 보듬어안았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싹들을 어디다 이식한다? 포대기도 장만하기 전에 옥동자가 태어난셈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낡은 잎들마다에 솟아난 싹들은 얼른 짐작해도 수천수만개를 헤아린다. 그걸 허실없이 이식하자면 당장 적지 않은 땅이 필요했다. 그러나 남새파종을 끝냈으니 새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유철의 머리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지. 새로 땅을 개간하자.)

도마도밭 웃머리에 잡초로 우거진 공지가 있었다. 언제부터 그걸 개간한다 하면서도 로력이 긴장해서 미루어오던 땅이었다. 그렇지,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유합조직에서 발아된 도마도싹을 이식하자!...

유철은 당장 화면전화기를 꺼내들고 1분조장을 찾았다.

《분조장, 어서 도마도포전으로 나오오, 당장!》

《도마도포전이라니요? 그거야 전번에 다 갈아엎지 않았습니까?》

잡기에 젖은 늘어진 그 소리에 유철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졌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연구사선생이랑 우리 영심이랑 그리고 청년분조원들이 동원되어 흠에 묻힌 도마도포기를 하나하나 옮겨심은걸 그래 분조장인 동무가 몰랐단 말이요?》

《팬한것이지요. 벌써 선기가 나는데 도마도가 달릴게 뭡니까?》

유철의 격노한 음성이 찌렁 울리었다.

《두말 말고 트랙토르를 몰고 나오란 말이요. 청년들은 이밤도 포전에서 새우는데 그래 부끄럽지도 않소?》

분조장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트랙토르운전수가 어제그제 결혼식을 했는데 깨우기가...》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트랙토르를 몰겠소. 동문 차고를 열고 여기까지 몰고나오면 되오.》

...이 시각도 학철과 영심은 도마도가지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포전길을 걷고있었다. 유전정보에서 새싹, 다시말해서 유합조직이 생기는 시기는 대체로 대기의 온도가 서늘한 때라고 한다. 그러니 새로운 줄기와 잎을 형성하는 시기는 지금과 같은 밤이나 새벽일수 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이식하는것이 중요한것이다.

전지불을 비쳐들고 잎사귀들을 훑어나가던 영심이 한순간 놀란 소리를 쳤다.

《학철동무, 이걸 보라요. 새로운 유합조직이 형성된것 같아요. 낡은 도마도잎에서 새로운 도마도싹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응? 어디... 어디...》

전지불을 따라 허둥지둥 다가오던 학철이 뚫어지게 잎사귀를 살펴보다가 거기에 무슨 시약 같은걸 떨어구어본다. 그리고 그걸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힘이 진한듯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는다.

《옳구만, 새로운 유전정보인 DNA가 드디어 복제되었소.》

《그러니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이요! 하지만 아직 할일이 많소. 우리는 도마도알을 크게 할뿐아니라 그 알수도 늘여야 하오. 그러자면 인공적으로 일조률을 높여야 하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심의 근심낀 목소리에 뒤이어 환희롭게 미쳐오는 청년의 목소리.

《그건 걱정마오. 레이자빔으로 일조률을 보충해 주자는거요.》

학철은 열기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양빛을 그대로 투과하며 전기도 흘러 열작용을 나타내는 흑연투명전도막을 레이자빔과 함께 리용하면 가을의 쌀랑한 대기를 온화한 기후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면 일조률은 더없이 좋아질것이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을것이였다. 거기다가 때때로 분수를 동작시키면 도마도는 무럭무럭 자랄것이 분명했다.

영심은 벌떡 상체를 솟구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성공은 불보듯 뻔해요. 학철동무, 수고했어요.》

《아니요. 수고한건 동무요!》

열풍같은 환호와 기쁨이 두 청년을 에워쌌다.

새벽안개발을 휘저으며 두개의 전지불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흥분에 젖은 두사람의 손이 한데 맞닿아 돌아가는게 분명했다.

《놓으라요. 아이, 어지러워요.》

풀숲에 앉아 담배를 빨며 젊은이들의 말을 새겨듣던 유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철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분명 성공할것 같다. 한순간 솟구치는 기쁨에 몸을 일구던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숨을 내그으며 도로 주저앉았다.

(연구사업에 성공한건 경사로운 일이지만... 이 일을 어찌할고?)

두사람사이에는 저리도 정이 두터운데 청년은 다른 대상자가 있다지 않은가?

그 무슨 박사원생이라고 했더라?... 그러니 저 영심이 첼이 없지 않는가?

락심해서 고개를 숙이고있던 유철은 갑자기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반장동지는 참 좋은 사람ियो.》

《왜요?》

《밤을 새워가며 무균장치를 만들어주었으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성공을 생각지도 못했을거요. 연구사업을 끝내고는 반장동지에게 꼭 인사하겠소.》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마디마디에 스며들인 열기편 목소리였다. 그 말마디들은 따뜻한 온기와 열을 실은 온천물처럼 유철의 가슴에 줄줄이 흘러든다. 아, 얼마나 의리가 깊은 청년인가? 귀중한 그 무엇을 쥐었다 놓쳐버린것 같은 아쉬움이 싹타하니 가슴을 적신다.

그 순간 어둠을 타고 미쳐오는 딸애의 앵돌아진 목소리가 귀가를 쩍 울린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동무에게는 반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알만 해요!》

청년의 바빠맞은 소리가 성급히 뒤를 따랐다.

《내 말 잘못했소. 동무에게는 아버지이지만 나한테는...》

《동무한테... 뭐예요?》

《웅심깊고 사려깊은... 가시아버지!》

청년이 앵돌아선 영심의 어깨를 잡고 제앞으로 돌려세우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소?》

구름속을 빠져나온 달이 학철의 넓은 어깨에 파묻힌 영심의 발가우리한 얼굴을 환히 드러냈다.

그 순간 학철의 흥분된 목소리가 고막을 쳤다.

《다음번에 박사원에 올라오면 이번에는 벼의 유전자를 연구하자구. 벼 한알이 당콩알만 하게...》

《그렇게 하자요. 학철동무와 힘을 합치면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문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누구보다 새것을 더 많이 탐구하는 박사원생이니 그야말로 진짜배기 박사원생이지!》

(뭐? 박사원생? 그러니 저 청년이 점찍어두었다는 처녀가 바로 우리 영심이란 말인가? 영심이 1년에 한두달씩 농업대학에 올라가서 공부하는건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기술원이라고만 생각했지 박사원생이라는건 왜 생각지 못했을가? 허허!...)

호호진 웃음꽃이 피어난 유철의 너부죽한 얼굴이 우로 쳐들렸다. 구름속을 빠져나온 유정한 달이 그의 웃는 얼굴을 환히 비쳐준다.

유철은 벌떡 일어났다. 당장 달려가 귀여운 딸애와 믿음직한 사위감을 한품에 얼싸안고싶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기쁨이 커도 혼자서만 물어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것을 유철은 난생처음 깨달은것 같았다.

유철은 분조장이 물고온 프락포르의 조항간을 잡았다.

통통통... 잡판목이 우거진 공지가 단번에 뒤번저지기 시작했다. 수소를 연료로 쓰는 프락포르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굵직한 나무뿌리도 단번에 요정을 낸다. 프락포르동체에서 솟아나온 역센 보습날이 달음질치며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토양속에 부식토감이 될만 한것들이면 다 휘여잡아 처넣는다. 그러니 지력은 굉장해질것이다! 프락포르를 몰아가면서 유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이 밭에 높다란 덕대를 매줄테다. 주렁주렁 매달린 가을도마도를 온 세상사람들이 다 볼수 있게...》

갈아엮은 땅에 첫자국을 찍으며 두 청춘남녀가 구울듯 달음쳐온다.

《아버지!》

《반장동지!》

아득한 공간에서 미쳐오는듯 한 청아한 목소리! 다정한 그 목소리가 울울창창한 숲이 자라고있는 저기 산정에 닿아 영원히 잦아드는가 했는데 이 애비를 놓고서는 떠나기가 차마 아쉬운듯 다시 되돌아온다. 돌아와서는 메아리로 공명되어 귀가에서

쟁쟁 울러난다.

밤새껏 들판을 감싸고있던 안개발이 희뵈히 밝아오는 새벽빛속에 후르르 흩어져 색깔고운 꽃잎이 되어 멀리 창공너머로 두둥실 흘러간다. 마치도 그들의 성공을 축하라도 하는것처럼!

청청한 대기의 한끝에, 맑게 씻기운 동산마루의 하늘가에 동이 터온다. 풍요한 대지에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과학으로 빛나고 과학기술로 튼성번영할 내 조국의 새아침이!...

×

그때로부터 꼭 한달이 지났다. 남새포전의 배추들은 이제 겨우 통이 들기 시작했는데 덕대우에 주렁주렁 매달린 동이만 한 도마도들은 하나같이 크

고 먹음직한 붉은 색깔이다. 가없이 맑은 가을하늘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부신 해빛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에 부딪칠 때마다 빛을 발산한다. 기적같은 현실을 아무래도 믿을수가 없었던지 1분조장이 트랙포르운전수와 그의 새색시까지 척 데리고와서 덕대에 매달린 도마도를 세기 시작했는데 980알을 세고 그만 수자를 헛갈렸단다....

새로 받은 수소트랙포르는 며칠전에 버루날기로 출장을 갔는데 땅속굴착기를 도와 지하로 직선길을 닦는다고 한다. 버루날기를 거치지 않고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직선길은 이제 며칠후면 개통된다고 한다.

귀일리에서 생산한 도마도를 버루날기를 걸쳐 운반해서는 한겨울이 지나도 어림없기때문에!...

전 설

거 부 기 바 위

평안북도 녍변군에는 관서팔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약산동대가 있다.

기묘한 바위들과 산천경개가 잘 어울리고 봄에는 진달래꽃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타는 약산동대는 예로부터 천하절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약산동대에는 기묘하게 생긴 거부기바위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서해의 어느 한 기슭에 거부기형체가 살고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생거부기가 시름시름 앓더니 아예 자리에 누워버리고말았다.

서해룡궁의 진귀한 바다약재들을 다 써보았지만 효력이 없었다.

동생거부기의 병때문에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던 형거부기에게 어느날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땅세상의 약산동대에 가면 진귀한 약재가 많은데 그 약재를 구해다 먹이면 동생거부기의 병

이 틀림없이 낫것이라는것이였다.

형거부기는 동생거부기를 위해 힘겹고 어려운 길을 떠났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드디어 약산동대에 이른 형거부기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바다세상에서는 볼래야 볼수도 없는 희한한 경치였던것이다.

약초를 캐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잊고 형거부기는 그만 약산동대의 경치에 홀리어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오늘도 돌로 굳어진 형거부기는 약산동대의 절승경계를 부감하며 그냥 서있는데 바다가에 있는 동생거부기는 이제나저제나 형거부기가 언제나 올가 하고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하도 오래 사는 거부기라 지금도 서해에는 앓는 동생거부기가 형거부기를 기다리며 외롭게 살고있다고 한다.

목 성 일

생일날



고철만

△때: 현대

△곳: 평양고려호텔에서

△나오는 사람

옥선: 위성연구사, 공화국영웅

진국: 그의 남편, 위성연구사, 공화국영웅

유정: 그의 딸, 대학생

수련: 평양고려호텔 봉사원

희순: 수련의 어머니

그밖에 당중앙위원회 일군과 연구사, 기술자들

△무대

화려하게 꾸러진 호텔의 어느 한 방.

오른쪽에 바깥으로 향한 나들문이 있고 반대편에 침실과 세면장으로 향한 문이 있다.

신문이 놓인 앞차대와 안락의자좌우로 커다란 참대화분과 아름다운 꽃들로 형상한 운반로켓모형이 있고 수도의 설경이 안겨오는 창문결에는 옷걸이와 장식장 등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져 있다.

△장쾌한 폭음과 함께 힘있는 음악이 울리는 속에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는 기록영화화면이 펼쳐질 때 설화가 울린다.

《아버이장군님의 유훈지켜 우리의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종합적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우주과학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평양에서 잊지 못할 체류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음악속에 제명이 떠오른다.

생 일 날

△막이 열리면 봉사원 수련이가 소파에 앉아 코노래를 부르면서 생일축하장을 쓰고있다.

수련:(쓰던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 어떻게 써야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릴까?(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생각이 안 떠오르는듯 신문을 펼쳐들고 읽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 1돐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발사로 조선은 그이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야!... (다시 읽는다.)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지구주위궤도에 조선의 위성이 나타났다는것을 인정하였다.》 흥, 그런데두 뭐 우리의 위성발사가 어쨌다구? (쓰면서)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온 세상을...》

△수련 다 쓰고나서 만족한듯 다시 들여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코노래를 부르면서 앞차대우를 정리한다.

△옥선과 진국 들어온다.

진국: 허허, 언제봐야 우리 수련동문 부지런하거던.

수련:(반기며)선생님들이 집에서처럼 아무 불편도 없이 지내도록 하는것이 바로 저의 임무랍니다.

진국:제집이라... 고맙소. 수련동무의 환대가 하두 극진하니 우린 침대에 눕자마자 코를 끌곤 하오.

수련:호호. 음, 선생님들이 어제 밤도 연구사업을 놓고 토론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운걸 제가 모를줄 압니까. (옥선에게) 하루밤도 아니구 며칠째 계속 그렇게 무리하면 안됩니다.

옥선:아니, 오늘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에서 맘껏 휴식했어요. 정말 봉사자들이 얼마나 극성이던지... 그저 고맙기만 해요.

진국:이 《선생님》이 스케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 난 어정어정 따라가면서 열번도 더 넘어졌댔소.

얼음판우의 황소란 말 들었지? 하하하...

수련:어마나, 정말 불만 했겠습니까.

옥선:정확히 아홉번이야. 하지만 다시는 안 넘어
지겠다구 대답을 받아냈으니까 내가 선생님이 옳
지?

수련:호호...

진국:(뒤머리를 긁으며) 거 스케트타기가 생각
과는 다르더구만.

옥선:운반로켓트가 추진력도 강해야 하지만 유도
조종기술 또한 높아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수 있
다는걸 당신은 잘 알텐데요.

진국:옳소. 운반로켓트의 원리가 생활의 어느 분
야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걸 내 오늘 새삼스럽
게 깨달았소.

수련:호호호... 선생님, 솜옷들을 벗으십시오.

△진국과 옥선 솜옷을 벗어준다.

그들의 앞가슴에 금별메달이 번쩍인다.

△수련 그들의 솜옷을 받아들고 옷걸이쪽으로 간
다.

진국:(쏘파에 앉으며) 이젠 뭐요?

옥선:(눈여겨보며) 축하장이구만요.

수련:오늘 우리 호텔 연회장에서 《광명성-3》
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크게 기여한 과
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생일축하연
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맞는 선
생님들에게 드릴 축하장을 써보느라 했는데 잘 안
되었습시다.

옥선:그래요?

진국:(축하장을 읽는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광명성-3) 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온
세상을 들끓게 하신 선생님들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위성을
제작하여 발사성공시켜 우리의 위성이 온 우주를
꼭 뒤덮게 해주십시오. 봉사원 차수련》. 이거 요
란한걸! 축하장이 아주 걸작이요, 걸작!

옥선:수련동무가 글을 참 잘 썼군요. 고마워요.
수련동무.

수련:(좋아하며) 어마나! 그러니 선생님도 오
늘 생일연회에 참가합니까? 선생님, 생일을 축하
합니다.

옥선:아니, 내 생일은 지나갔어요.

수련:(서운한듯) 그렇습니까.

옥선:(고개를 끄덕이며) 응.

수련:(아쉬운듯 진국에게) 두분이 다 말입니까?

진국:이 《선생님》은 한달전에 생일을 쇠구 난
4월이 생일이요.

수련:야참 아쉽다. 하지만 다음해 선생님들 생
일날엔 제가 꼭 축하장을 아니, 꼭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옥선:정말?

수련:정말입니다. 약속하십니까?

옥선:됐어, 됐어.

진국:허허... 꼭 우리 유정이 같다니까.

옥선:정말 신동하지요. 나이도 똑같고 성격이랑
이 글씨까지도 말이예요. (창문쪽에 눈길을 주며)
우리 유정인 지금 강의실에 앉아있겠지요?

진국:지금쯤 아마 선생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반
고있을거요. 거 혹시 우리들 생각으로 헛눈을 팔지
않는지 모르겠소.

옥선:우리 유정인 그럴 애가 아니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꼭 우릴 뽐나하는 훌륭한 위성과학자가
되겠다는 앤데 아무렴 그 애가...

진국: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기쁘구만.

옥선:이제 두고보세요. 우리 유정이라도 꼭 30대에
박사가 될거예요. 난 우리 유정일 믿어요.

진국:당신 욕심두 참...

수련:(파일그릇을 내려놓으며) 파일을 드십시오.

옥선:팬찰아. 방금 옥류관에서 배불리 먹고왔는
데 뭐.

진국:식당이 참 멋쟁이였소. 봉사원들의 친절성
도 보통이 아니더군. 미처 요리이름을 기억할새도
없이 식탁에 가득 차려놓으니 어느 요리에 먼저 저
가락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 위성만 하늘에
오르게 아니라 우리 요리솜씨도 비상히 높아졌소,
하하하...

옥선:(웃으며) 수련이, 난 겁이 나.

수련:왜... 말입니까?

옥선:여기서 식사수준이 저렇게 높아졌으니 유정
이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서 음식타발을 하면 어
떻게 해?

수련:(진국을 돌아보며) 정말입니까?

진국:(빼기며) 아, 그럴수도 있지. 음식이 정 씨
원치 않으면 단식투쟁도 할 생각이요, 하하하...

수련:어마나 (옥선에게) 그럼 제가 우리 나라
민족요리들과 세계의 이름난 요리방법을 수록한
CD를 드리겠습니다.

옥선:됐어, 통답이야.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어요.

진국:(고개를 끄덕이며) 음...

수련:선생님(신문을 내밀며) 오늘신문입니다. 우
리의 위성발사를 놓고 세계가 막 떠들썩합니다.

진국:(신문을 펼쳐들고) 운반로켓트발사가 탄도
미사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란 말이지.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권리
를 계속 행사해나갈테니까. 안 그렇소?

옥선:실컷 짚어대라지요. 어서 세면이나 하고 차
안에서 하던 논쟁을 계속하자요.

진국:좋소.

△진국과 옥선 들어간다.

수련:참 다정한 부부야.

△손전화기의 착신음이 울린다.

수련:(손전화기를 꺼내들고) 어머니예요?... 갑자기 누구생일이란 말이에요... 호호호, 어머니두 참...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싫어요... 난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안돼요!... 전화놓겠습니다. (손전화기를 놓으며) 어머니 참 한심하다니까.

△또다시 울리는 손전화기 착신음소리.

수련:(손전화기를 보고나서)야... 참.

△이때 나들문쪽에서 부름종소리가 울린다.

수련:(손전화기 전원을 끄며) 예—

△수련 문쪽으로 가는데 꽃다발과 지함을 든 유정이 들어온다.

유정: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호실에 들었다고 하길래 왔습니다.

수련:어마나!(반기며) 연구사선생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정동무예요?

유정:예, 절 어떻게...

수련:선생님들한테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와 동갑이더군요?

유정:그래요. 동무이름은?

수련:난 봉사원 차수련이에요. 어서 솜옷을 벗어요.

유정:예.(둘러보며) 수련동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수련:오전 참관을 마치고 방금 왔는데 (세면장 쪽을 가리키며) 세면을 하고있어요.

유정:그래요?

△세면장에서 진국과 옥선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유정:(쏘파에 앉으며) 야, 방이 참 멋있군요.

수련:유정동무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연구사라고 이렇게 우리 호텔에서 제일 좋은 1등실에 들게 했어요. (꽃다발을 보며) 꽃이 참 곱구만요.

유정:예, 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구 축하해드리려구 가져왔어요. 그러구 호—...(긴숨을 내쉬며) 연구사업하시느라 생일도 잊고하신 어머니를 만나보고싶어서...

수련:예? 동무 어머니 한달전에 생일을 쇠다던데?

유정:호—(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아니예요. 못 쇠어요.

수련:그랬더군요. 참, 오늘 우리 호텔에서 과학자, 연구사선생님들을 위한 생일연회가 있어요.

유정:그래요? 연회에 참가하는분들은 참 좋겠네.

수련:(유정의 손을 잡으며)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유정:알겠어요. 난 오늘 어머니의 지나간 생일뭇까지 합쳐서 어머니를 한껏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생일연회에 참가한 선생님들 못지 않게 말이에요.

수련:나두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유정:고마워요.

수련:고맙긴요. 참, 유정동문 나와 동갑이라는데 우리 서로 너나들이하는게 어때요?

유정:(손을 들며) 반대없음.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호호— 웃는다.

수련:음— 그럼 선생님들을 위해서 난 무얼 할가?

유정:음... (생각하다가) 노래를 한곡 불러주렴. 우리 어머니 노래를 좋아하셔. 나두 밤새껏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수련:유정동문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더 많겠구나.

유정:응, 우리 집에선 내가 세대주나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합숙생이거든, 호호호...

수련:난 정말 유정동무가 부럽구나. 부모님들이 한달한시에 공화국영웅이 됐으니 말이야. 우리 나라에 너처럼 복받은 처녀가 몇이나 되겠니?

△유정과 수련이 이야기를 할 때 진국과 옥선이 나온다.

옥선은 화려한 조선헌마저고리차림이다.

유정:(사과를 한입 깨물며) 수련동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유명한 핵물리학자였던 페르미의 안해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학자가 되길 바라는 남편의 권고대로 공불 열심히 해서 남편의 훌륭한 방조자가 됐다는거야.

옥선:(나서면서) 하지만 개인리기주의자인 안해 때문에 자살까지 한 발명가도 있단다.

수련:선생님.

유정:(반기며) 어머니...

옥선:(두팔을 벌리며) 유정아!

유정:(달려가 안기며) 어머니, 어머니... 보고싶었어요. (돌아보며) 아버지두.

진국:우리 유정이가 그새 더 고와졌는걸. 봐라, 그래서 인간을 가꾸는데서는 지식을 당할게 없다는거다.

유정:아버진 또 그 소리. 이자 어머니가 한 말이 사실이나요?

진국:응, 나이론을 발명한 카르더스가 바로 그랬지. 왜 우리 유정이가 시집을 가고싶은가?

유정:박사가 되기 전엔 난 절대 시집을 안 가요!(옥선에게) 이 딸은 리기주의자가 아니거던요.

옥선:그럼.

진국:그렇지 않구.

△진국과 옥선 대견하여 웃는다.

유정:(꽃다발을 안고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고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아버지, 어머니를 열렬히 축하합니다.(꽃다발을 안겨준다.)

진국:(거수경례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옥선:(박수를 치면서) 너도 공부를 잘해서 훌륭

한 위성과학자가 되길 바란다.

유정:예.(돌아보며)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빠르게 탈이에요.

옥선:필?

진국:왜, 최첨단을 통과하려 달리고있는 시대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지 어째서?

유정:어머니가 한달만 좀 늦게 태어났어도 오늘 생일축하연회에 참가하겠는데.

진국:뭐? 하하하...

옥선:호호... 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유정:(옥선의 금별메달을 살펴보며) 어머니, 생일날에 이 딸이 인사도 못드렸는데 부디 앓지 마시구 건강하세요.

옥선:(머리를 쓰다듬으며)알겠다.

진국:오늘 우리 뜻깊게 만났는데 유정이 노렐 들어볼가? 물론 준비는 하고왔겠지?

유정:예, 제가 어머니생일날에 부를려구 준비했던 노래를 부르겠어요. 좋지요, 아버지?

진국:응.

△진국과 수련 박수를 치는 속에 유정이 행복에 겨워 노래를 부른다.

유정:(노래)

어려서는 철없어 애를 태우고
자라서는 철들어 속을 태웠네

△수련과 진국 박수를 치며 함께 부른다.

(노래)

다정하신 눈가에 새겨진 주름
이 아들이 곁어온 자욱입니다
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모두 박수를 친다.

유정:다음은 우리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서 봉사원 차수련동무가...

옥선:유정아, 됐다. 그만해.

유정:어머니?

옥선:그만두란데두. 유정아, 여긴 호텔이야. 술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 배려로 올라와 피로를 풀고있는데 조용해야지. 그래 오전강의는 참가하고 왔겠지?

유정:아니요. 오늘 하루시간을 받았어요.

옥선:(섭섭한듯) 강의에 빠지지 말걸 그랬다. 오후강의시간두 다 돼오는데 우리... 조금만 앉았다가...

유정:그러니까 어머니 오늘도 그전처럼... 그렇지요?

옥선:학창시절 하루를 잃으면 과학자의 한생이 그만큼 늦어져. 알겠니?

유정:어머니...

△부름종소리 울린다.

△수련 나들문으로 급히 가는데 희순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선다.

희순:(수련에게) 넌 꼭 어머니가 달려오게 해야 시원하겠니? 손전화기전원은 왜 켜니?

수련:(진국과 옥선에게)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가 말한 부부공화국영웅선생님들이예요.

희순:(반색을 지으며) 축하합니다. 우리 수련이가 선생님들 소릴 얼마나 하는지 모른답니다. 이철없는게 말은 일을 바로 하는지, 원...

진국:(희순을 보며) 아니, 수련이가 어째서요. 레절باط고 봉사성도 얼마나 높은줄 압니까?(옥선에게) 여보, 내 말이 맞지?

옥선:정말 그래요. 제 보기엔 여기 봉사원들중에서 제일 책임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이때 진국의 손전화기에서 착신음이 울린다.

진국:예, 전화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선에게) 여보, 실장동지가 방에서 찾누만. (진국 나간다.)

유정:안녕하십니까, 수련이 어머니.

옥선:우리 딸이랍니다.

희순:꼭 어머니를 닮았구만요. (유정에게) 대학생이로구나. 그래 몇학년이나?

유정:졸업반입니다....

희순:사실 우리 이 앤 이제라도 대학에 가겠다고 얼마나 조르는지 모른답니다. 자습으로 외국어를 두개씩이나 뻘다구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녀들이야 편안한데서 일하다가 맞춤형 대상을 만나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요.

옥선:그래도 공부를 시키면 더 좋을텐데요.

수련:(부끄러운듯) 야, 어머니...

희순:넌 아무리 바빠도 제일인데 집에 잠간 왔다가면 안되니? (옥선에게) 마침 더 좋은 직업이 나섰길래 우리 애 생일이라면서 좀 준비하고 사람들을 집에 초청했는데 당사자인 이 애가 안 오면 글썽 내 립장이 어떻게 되겠나요.

옥선:수련이 전망을 위해서 생일자인 생일을 원다는 그 말씀이군요.

희순:(웃으며) 아, 생일을 꼭 제 날자에 쇠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나요. (수련에게) 수련아,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와 함께 가자.

수련:난 못 가요. 어머니 정말 한심해.

희순:필?... 알겠다. 네가 정 그러면 내 너의 과장동물 만나겠다. (옥선에게) 그럼 전 바빠서...(돌아서 급히 나간다.)

△진국 다시 들어온다.

수련:어머니, 어머니!(따라나가다가) 에이...

유정:어머니, 수련동무 어머니가 자식일에 극성이군요. 음- 막 부럽네. (웅석조로-) 우리 어머니 자식에게 너무 무관심한것 같애요.

옥선:유정아, 안일을 추구하면 과학을 못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지 아니? 너도 인차 대학엘 가거라.

유정: 싫어요. 어머니에겐 오늘만이라도 이 딸의 심정을 알아줄만 한... (눈물이 글썽하여) 흑.

옥선:...

수련:선생님, 유정동무를 위해서도 선생님들이 오늘만은 꼭 함께 생일을 쇠십시오, 예.

옥선:수련동무, 지나간 생일은 무슨 생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높은 대우를 받고있는지 잘 알지 않나.

유정:(간절히) 어머니, 내가 큰결 바라나요?! 오늘만은 어머니곁에서 맘껏 노래를 부르구 함께 있고싶단 말이예요, 어머니.

옥선:(꺼안으며) 유정아, 시간을 아껴야 한다.

유정:(울먹이며) 어머니 정말 너무해요. (호느 낀다.)

진국:너 정말 어머니말 뜻을 모르겠니?

유정:아버지...

수련:선생님...

진국:유정아, 난 지금도 《광명성-2》호가 성공했을 때 추억깊이 눈물을 닦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장군님께서 위성개발제작과 관련한 어느 한 문건에 수표하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결심을 내렸는가를 이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설 때 그때 인민들에게 다 말해주자고, 그러면 인민들은 우릴 리해해줄거라고 절절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유혼을 지켜 올해에 기어이 첫 실용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키자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해주시고 결을결을 따 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기에 오늘과 같은 패승을 안아온게 아니겠니? 물론 네가 섭섭할게다. 오래간만에 만난 어머니가 널 다시 대학엘 보낸다구 말이다. 하지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네가 강의에 빠지면 되겠니? 응.

유정:...

옥선:넌 아직 모를거야. 한달전 서해의 맵짠 바다바람을 맞으시며 우리 위성발사장을 찾아오셨던 그날 발사를 앞둔 운반로켓의 동체를 다 살펴보 시며 자신의 숨결을 이어주시면서 위성발사의 성공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사장을 떠나 가시는 차안에서 우리들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과적인 위성발사를 위해 애쓰고있는것이 정말 장하다고 말씀하시곤 그후 여러가지 생활용품들과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올었는지 아느냐.

우리 녀성과학자들에게는 《봄향기》화장품까지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어머니의 생일날이었어. 정말 잊지 못할 그날 이 어머니만이 아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도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아안았기에 오늘의 이 행복과 영예가 있는것이리라

고 난 생각한다.

유정:(호느끼며) 어머니, 난...

옥선:평생 잊을수 없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흘러간 그 하루하루가 다 원수님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받아안은 우리모두의 행복한 생일날이나 다름이 없단다.

진국:유정아, 조선의 과학자로서 응당 할 일을 했을뿐인데 우리모두를 이끄시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신 원수님께서 그 성과를 모두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성대한 연회를 차려주시고 명예위병대까지 사열하게 하실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지금까지 받아안은 사랑과 행복감에만 취해있었지.

옥선:정말이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시간이 천금같이 귀하다. 우리에게엔 모든 가능성을 깡그리 바쳐 더 많은 실용위성들을 개발해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의무만이 있는 거다. 알겠니?

유정:어머니...

△희순 급히 들어온다.

희순:수련아 (진국과 옥선에게) 미안합니다. 제 좀 바빠서

진국:예, 어서...

희순:(수련을 한쪽으로 데려가며)내가 너의 과장동무를 만나 승인을 받았으니 빨리 차비를 해라.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겠다.

수련:어머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희순: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수련:그만하세요.

옥선:(유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정아, 헛눈을 팔면 절대로 먼길을 못 간다.

유정:명심하겠습니다.

진국:《은하9》호까지 냅다 쏘아올린 다음에 우리 보란듯이 어머니생일을 크게 쇠자꾸나.

유정:알겠어요. 어머니, 날 욕하지... 않지요?

옥선:(고개를 끄덕이며) 응...

유정:(지함을 열며) 요전날 우에서 내려온 일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었어요. 이걸 내가 만든 료리인데 꼭 드셔야 해요.

옥선:(감동되어) 그래.

유정:그리구 이걸 우리 학급동무들과 강좌선생님들이 보낸 기념품들이네 이걸 어머니가 쓰고 이것들은 아버지가 쓰세요.

진국:(눈을 습벽이며) 원, 자식두...

유정: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옷걸이 쪽으로 뛰어가 솜옷을 입는다.)

수련:(달려가 유정의 손을 잡으며) 안돼, 부모님들과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렴.

유정:아니야, 난 빨리 가야 해. 우리 집에 꼭 놀러 와, 응?

수련:알겠어.

옥선:(차림새를 살펴며) 너 장갑이 다 해졌구나.

나한테 수련이가 준 새 장갑이 있다.

유정:수련이가요? 어머니가 쓰세요.

진국:가만, 나도 너에게 줄것이 있다.

△옥선과 진국 유정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간다.

희순:수련아, 시간이 없다.

수련:(침실쪽을 바라보며)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것이 진정 나를 위한것일가요, 예?

희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니? 이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널 위해 뛰어다니겠니?

수련:날 위해서라구요? 어머니 지금 날 어디로 데려가려 하나요. 전 어머니처럼 살수 없어요. 난 유정이가 부러워요.

희순:야, 너 정신이 나갔니?

수련:아니요. 난 오늘에야 정신을 차렸어요. (안타까이) 어머니가 진심으로 이 딸을 위한다면 저 연구사선생님들처럼 살아야 해요. 그때 가면 어머니가 생일이 아닌 생일상을 차리면서까지 사람들을 청해들이지 않아도 이 딸은 온 세상에 대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구 자랑할거예요.

희순:수련아...

△옥선과 진국 유정을 바래우며 나온다.

수련:유정아, 내가 바래줄게.

진국:유정아, 공부를 잘해라. 우리 인차 다시 만나자.

유정:예, 수련이 어머니, 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희순:(고개를 돌린다.)

△일군과 남녀연구사들, 기술자들 들어온다.

연구사H:선생님, 선생님,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옥선:무슨 일이에요?

연구사2:여기 당중앙위원회 비서동지가 오셨소.

모두:(놀라며)예?

일군:(옥선의 손을 잡으며) 옥선동무,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무들에게 베풀어주신 은정을 전달하자구 왔습니다.

옥선:예?(웃매무시를 바로한다.)

일군:오늘 평양체류기간에 생일을 맞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축하연회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축하잔도 친히 부어주시고 동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연회를 다시 추억하시면서 그날 부부연구사들한테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사랑하는 딸자식이 혼자 있는 집을 가까이 두고도 늘 연구소와 발사장에 나가 연구사업을 한 그 동무들이야말로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들이고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영웅중의 영웅, 쉽지 않은 애국자부부라고 다시금 높

이 평가하시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친다.

옥선:원수님...(흐느낀다.)

진국:여보...

일군: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신채 창박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한 그날에 생일을 맞은 동무가 그 녀성연구사라는데 누구에게도 생일소리를 하지 않고 발사장에서 조용히 지나보냈으니 그 동무의 가족들이 얼마나 섭섭해했겠는가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자신께서 그 동무의 부모들과 자식들을 대신해서 생일상을 잘 차려주겠다고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옥선:(감격하여) 원수님께서는요? 여보...

유정:어머니.

옥선:(걱정을 터뜨리며) 경애하는 원수님!

△옥선과 유정 부둥켜안고 흐느낄 때 방창이 열린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 품에 안고 보살피며

어머니의 천만사랑 다해가는 당이어

그대의 크나큰 심장속엔 사랑의 새힘이 샘솟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삶을 빛내준 어머니

진국:여보...

옥선:유정이 아버지...

수련:선생님...

유정:수련아.

일군:동무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동무들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두뇌전, 실력전으로 세계를 누르고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치기를 바란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큰 대회나 행사때마다 생일을 맞는 대표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당에서 연회상을 차려주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해주셨다고, 자신께서는 평양체류기간에 생일을 맞는 동무들뿐만아니라 인공지구위성발사기간에 생일을 맞은 동무들까지 모두 뜻깊은 생일연회에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옥선:우리 전사들이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한 그 공적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안겨주신것만도 분에 넘친데 그 바쁘신 시간에 우리들의 지나간 생일날까지 헤아리신단 말입니까. 원수님...

유정:어머니정이... 어머니정이 그리웠던 저였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펴주시니...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걱정을 터뜨린다.)

연구사 1: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모두:만세... 만세...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방창이 울린다.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조선로동당

그대는 향도의 천만리에 승리와 영광을 새기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미래 다 맡은 어머니

일군:육선동무, 동무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이 동무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수련:선생님(축하장을 안겨주며) 저의 생일축하장입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유정:수련아!

희순:선생님, 축하...합니다.

△모두 일군을 따라 나간다.

수련:(이윽도록 눈길로 그들을 바래우다가) 어머니...

희순:내가 잘못했다. 더는 네가 갈 길을 막지 않겠다. 너도 희망대로 대학에 가서... 꼭 유정이 어머니같은 녀성과학자가 되거라.

수련:(안기며) 어머니...

희순:(안으며) 수련아!

△음악속에 설화가 울린다.

《며칠후 우리의 우주정복자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시여 또다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그들에게 은정어린 연회상과 대를 두고 전할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시었으니 정녕 우리의 주인공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맞고보낸 날과 날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장엄한 패승을 계속 펼쳐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애국충정이 새롭게 고고성을 터친 가장 뜻깊은 생일날들이었다.》

△음악이 고조되면서 막이 내린다.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4호 (루계 제798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4월 1일

발 행 주체103(2014)년 4월 5일

7-46159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